

2016 이어도 국내세미나

이어도 전설과 실존의 탐구 : ‘이어도 고대항로를 찾아서’

2016년 10월 19일(수) 오후 1시~6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세미나3실

주최 · 주관



후원



이 학술사업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프 로 그 램

13:00~13:30	등 록
	개회식
	사 회 양금희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개회사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축 사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격려사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13:30~13:40	기념사진촬영 및 휴식
13:40~14:40	<세션 1>
	사회 김은석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박원길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 토론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채바다 (삼별초 뱃길탐험대장)
14:40~14:50	휴 식
14:50~15:50	<세션 2>
	사회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고대해양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 토론 김동윤 (제주대학교 교수)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15:50~16:00	휴 식
16:00~17:40	<Round Table>
	좌장 조성윤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강병철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문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 부영주 (전 제주일보편집국장)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17:40~18:00	폐회사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18:00~20:00	만 찬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사)이어도연구회 이사장 고충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7년 창립된 (사)이어도연구회가 어느새 9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어도연구회는 제주, 서울, 국외 등지에서 국제 및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금번 이어도 국내학술대회 및 학술 세미나는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어도연구회는 이어도 교육 홍보뿐 만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술지와 단행본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출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이어도 전설과 실존의 탐구: '이어도 고대항로를 찾아서'』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어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학술적인 다양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인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우선 "몽골사에서 이어도 항로"에 대해서 발제해주신 칭기스칸 연구센터 박원길 소장님과 "고대해양사에서 이어도 항로"에 대해서 발제해주실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자를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몇 몇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축사를 해주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위원장님, 격려사를 해주실 박경훈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그 외 여기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어도 전설과 실존의 탐구: '이어도 고대항로를 찾아서'』 주제의 세미나 개최로 제주인들의 이어도 문화 형성에 밑바탕인 이어도의 역사적 연원들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도 전설의 모티브가 되는 원(대몽골)과 탐라의 만남, 탐라의 해상활동과 이어도 항로 등을 통해서 이어도의 역사적 연원들을 살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도는 신화로, 또는 전설로 우리의 가슴 속에 깃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환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도민에게 이어도는 수중 암초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웅장한 위용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우리 해양력의 상징이듯,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어도는 우리 해양영토의 상징입니다.

제주인들 마음의 고향이면서, 해양주권의 최전선인 이어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술적인 지식을 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성적으로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고충석**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청명한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에 (사)이어도연구회의 '이어도 전설과 실존의 탐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제1회 제주학대회 제주학 학술사업 지원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단체 및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점차 확대하여 제주학 연구단체들이 좋은 학술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간 (사)이어도연구회의 학술활동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학술사업 및 연구 활동들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도' 문제는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동북아시아 역학 관계 속에서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어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비롯하여 학술적 가치 등을 재 고찰하고 전문가들 및 도민들과 그 공감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 형성은 향후 '이어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사려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의미 있는 학술활동들이 모여서 향후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제주사회가 보존해야할 가치 및 현안 문제해결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사려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세션 1 ■ 발표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박원길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박 원 길*

목 차

머리말

1. 대몽골제국의 성격
 2. 대도(大都)와 해상루트
 3. 몽골과 탐라의 만남
 4. 탐라의 다로가치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맺는말

머리말

대몽골(원)제국은 제1차 지구촌제국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바다와 육지를 하나로 통합한 제국이다. 이 세계제국의 시대이념이 홍익인간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팍스-몽골리카(Pax Mongolica)이다. 팍스-몽골리카는 경제적으로 천호제(Minggan-u Noyan System)와 제색호계(諸色戶計)라는 기반을 통한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제이념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그들의 군사력은 전쟁에서 속도를 제공하는 말(馬)이 최초의 기반이 되고 있다.

탐라는 몽골의 두 가지 상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는 탐라가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 때 중앙정부가 경영하는 전국 14개 주요 국영목마장의 하나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아직 연구된바 없지만 탐라 역시 흑해 연안의 크림미아 반도와 같은 주요 상업항구의 기능도 했으리라고 보인다는 점이다.

본고는 바다와 육지를 이었던 세계제국 몽골이 바다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초원루트를 완성한 몽골이 코빌라이카간(Khubilai Khagan, A.D.1215년생, 재위:A.D.1260~1294) 때 바닷길을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바닷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탐라가 몽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무슨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밝혀 보고자 했다. 본고는 몽골사에서의 탐라의 이어도항로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대몽골제국의 성격, 大都와 해상루트, 몽골과 탐라의 만남, 탐라의 다로가치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로 나누어 간략해 보고자 한다.

*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Director, Research Center for Chinggis Khan Studies/History)

1. 대몽골제국의 성격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의 성격과 그들의 구축한 이념에 대해서는 삼산정명(杉山正明)이나 J. 웨드포드(Weatherford) 등의 논저에 개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¹ 필자 역시 이동문명과 정착문명과의 대립과 충돌, 융합이라는 시각에서 그것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² 그러나 팩스-몽골리카의 출현배경이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본 절에서는 대몽골제국의 성격, 팩스-몽골리카의 성립배경과 구체적인 이념의 항목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뒤, 그것이 현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간략히 기술했다.

1-1. 칭기스칸과 대몽골제국의 세계사적 의미

지구촌적인 관점에서 인류사를 바라보면 영토나 시대이념면에서 누구의 눈에도 확연히 드러날 만큼 주목받는 시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이다. 칭기스칸의 등장 이후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지역은 몽골의 지배 속에서 좋은 싫든 동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다. 동쪽으로는 동해에서 서쪽으로는 러시아, 아나톨리아, 동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지역이 몽골의 영토가 되었다. 몽골의 직접지배를 받지 않았던 서유럽, 이집트,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도 정치·경제·문화·기술·학술·과학·사상·종교 등 다방면에서 몽골과 접촉·교류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몽골의 영향을 받아야만 했다. 바야흐로 몽골의 시대였다.

대몽골제국은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바이니(Juvaini, A.D.1226~1283)의 『세계정복자사(Ta'rikh-i JabanGusba)』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세계(World)”를 인식한 제국이었다.³ 그 세계를 인식한 대몽골제국이 만들어 낸 인류통합의 시대이념이 바로 팩스-몽골리카(Pax Mongolica)이다.

팩스-몽골리카는 결코 문명의 파괴모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모든 사상과 이념을 끌어안았던 인류통합의 모델이었다. 이 모델에 따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스스로든 강제적이든 기존제도의 해체를 강요당했다. 그 해체를 강요한 실체가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어떤 제국에 속한 백성들의 눈이나 어느 종교집단의 눈에도 이들이 파괴자가 아닌 개혁자로 보였다는 사실이다.⁴

¹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の興亡』 2Vols, 東京, 1996 및 『世界史を變貌させたモンゴルー時代史のデッサン』, 東京: 角川書店, 2000 ; J.Weatherford,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Crown publisher and Three Rivers press(CA), 2004.

² 박원길, 『유라시아 대륙에 피어났던 야망의 바람 — 칭기스칸의 꿈과 길』, 서울: 민속원, 2003.

³ 역사학에서 지구촌 규모로 서술된 역사서는 기원전의 경우 헤로도투스(Herodotus, BC.484~BC.425)의 『역사(Historiae)』, 司馬遷(BC.145?~BC.85?)의 『史記』, A.D.13~14C의 경우 유라시아-알타이 지역의 『몽골비사(Monggol-un Nigucha Tobchiyan)』, 페르시아 지역의 주바이니(앞의 책), 라시드 알-딘(Rashid al-Din, A.D.1247~1318)의 『집사(Jāmi' al-Tawārikh)』이다. 이 다섯 권의 역사서들은 당시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해 주고 있다. 『몽골비사』의 경우 A.D.13C 때의 몽골과 그 밖의 세계지역을 고전문학적 필체로 묘사하고 있으며, 『집사』의 경우 A.D.14C 때 몽골을 중심으로 몽골에서 중국, 중앙 유라시아 스텝지역에서 페르시아, 이란, 유럽에 이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백과전서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세계 속에 모여 버린 것은 인류사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이로부터 지구인들은 정말로 지구인다운 진정한 교류를 시작했다.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잠시나마 종교와 인종을 불문하고 하나의 제국, 하나의 이상으로 통합하여 서로 어울려 살았다. 인류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진정한 지구촌의 시작(제1차 지구촌제국)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팩스-몽골리카라는 시대이념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 사상과 조직의 저수지로서 이후의 역사흐름을 결정짓는 모태가 되었다. 즉 세계사의 거대한 분수령이었다.

1-2. 팩스-몽골리카의 성립배경

(1) 사상적 배경

팩스-몽골리카가 탄생한 유라시아-알타이 문화권 지역은 오늘날 “중앙 유라시아 역사(History of Central Eurasia)”라는 독립된 역사학 분야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사의 중심 무대였다.⁵ 또 이 역사무대의 주인공들인 유라시아-알타이어족 계열의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상적으로 만물은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자연법적 인식체계(샤마니즘), 정치적으로 직접참여주의를 통한 권력분립(제천행사), 경제적으로 교역중시의 철학이 그것이다.⁶

북방문화원형은 팩스-몽골리카 이념의 기본구조		
항목	북방문화원형의 3대 이념	팩스-몽골리카
사상	자연법적 인식체계(샤마니즘)	역사상 종교문제가 없는 유일한 제국
정치	제천행사(직접참여 민주주의)	코릴타(열린 국회)
경제	교역중시(중상주의)	바다와 육지를 이은 제국(세계순환무역로 구축)

⁴ Juvaini(J.A.Boyle tr.),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I)*, Cambridge, Manchester, 1958, pp.61-178

⁵ “중앙 유라시아사”라는 명칭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山田信夫: 머나먼 유라시아 몽골의 땅을 향해』 『한국·중국·일본과 몽골 - 한중일의 초원을 향한 꿈 -』, 서울: 소나무, 2013, pp.99-106을 참조. 필자는 “중앙 유라시아사”란 명칭을 “유라시아-알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개념정립에 대해서는 줄고, 『한국사와 북방사』 『근대 100년 한국역사학 연구의 반성과 제언』(한민족학회 학술논문집, 2011.4) 『한국·중국·일본과 몽골 - 한중일의 초원을 향한 꿈-』에 재수록] 및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북방 역사관의 정립 -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신인류문화』2, 2013, pp.4-38를 참조.

⁶ 이들이 구축한 이념은 이후 대몽골제국의 세계통합이념인 팩스-몽골리카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북방문화원형을 이루는 자연법적 인식체계(샤마니즘)는 M.Eliade의 지적처럼(M.Eliade 지음, 이용주 옮김, 『세계종교사상사(3) - 무함마드에서부터 종교개혁의 시대까지(Histoire des croyances et des idées religieuses(III) De Mahomet à l'âge des Réformes)』, 서울: 이학사, 2005, p.14), 인류 최초의 종교융합구조로서 대몽골제국이 인류 역사상 종교문제가 없었던 유일한 제국이라는 찬사를 받는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하고 또 그 바탕위에서 집필된 논저가 필자의 『북방민족의 샤마니즘과 제사습속』(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8),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마니즘』(서울: 민속원, 2001), 『유라시아대륙에 피어났던 야망의 바람 - 칭기스칸의 꿈과 길 -』(서울: 민속원, 2003) 등이다.

이러한 이념을 지닌 유라시아-알타이 민족들의 DNA를 분석해 볼 경우 DNA자체가 비성조 언어 계열인 ASPM-D로 분류될 만큼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어학적 특징도 지니고 있다.⁷ 바로 팩스-몽골리카는 이 북방문화원형적 사고체계의 제도적인 완성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몽골제국에서 북방문화원형적 사고체계를 보여주는 법률이 칭기스칸의 예케-빌릭(Yeke Bilig: 격언)과 예케-자삭(Yeke Jasag: 법령)인데⁸, 『고려사』에도 다음과 같은 한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칭기스칸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진실로 조그마한 효심이라도 있으면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알 것이다”고 했다.⁹

위와 같은 칭기스칸의 법률은 오랜 관습의 깨달음에서 얻어진 고도의 도덕률에 바탕 한 것이다.¹⁰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그의 법률을 윤리적 규범이나 금기로 혼동하는 경우까지 있다. 사실 고도의 도덕률에 바탕 한 법률은 그것이 지도층에게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윤리적 규범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2) 역사적 배경

팩스-몽골리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내부구조와 동력이 필수적이다. 대몽골제국 지배력의 비밀은 혁신적인 내부 시스템과 혼혈문화라는 이상주의의 독특한 결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적인 내부 시스템이란 천호제(Minggan-u Noyan)와 케식텐(Keshigten)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과 코릴타(Khurita)라 불리는 철저한 참여민주주의이다.

천호제란 지역, 학연, 혈연 등 구성원들의 색깔과는 관계없이 개혁의 주체였던 자들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혁신적인 사회모델이다. 케식텐이란 창조적 리더십과 특성화된 전문분야를 집중 훈련시키는 교육·군사·행정을 통합한 일종의 간부훈련학교이다. 코릴타란 신성과 면책특권 속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이 행해지는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하는 대의기관이다.

역대 북방민족에서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혁신적인 사회구조를 지니게 된 근본 이유는 바로 몽골의 역사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칭기스칸이 대몽골제국의 건립과정에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부락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과

⁷ 이흥규, 『한국인의 기원』, 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0, p.212

⁸ 예케-빌릭(Yeke Bilig: 격언)과 예케-자삭(Yeke Jasag: 법령)에 대해서는 졸고, 「대몽골제국의 법전 예케-자삭(Yeke Jasag)의 성격에 대하여(A Study on the Character of Yeke Jasag as the Code of the Mongol Empire)」 『Mongolica Ulaanbaatarensia』2, 2012을 참조.

⁹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一(A.D.1278年條)」: “成吉思皇帝嘗曰,人苟小有孝心,天必知之.”

¹⁰ 이에 대해서는 졸고, 「고대 몽골의 금기에 대하여 - A.D.13C 동서양의 문헌을 중심으로 -」 『민속학연구』 11, 2003을 참조.

타협 및 미래에의 비전제시에 있었다. 그는 이 조직이 지니는 장점을 자신의 입보다는 부락민들의 머리로 판단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제도에 저항이 있을 수 없다. 이들은 현재의 제도보다 미래의 제도가 자기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자유를 주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3) 군사적 배경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군사력이다. 몽골이 세계통합의 경제·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월등한 군사력 때문이었다. 몽골의 가공할만한 군사력은 유럽인들이 몽골인들을 지옥의 군대나 인간을 뜻하는 타르타르(Tartar)니 타르타리(Tartary)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사실 A.D.13세기의 그 어느 나라도 군사나 무기 및 전술의 정교함 등에서 몽골의 맞수가 되지 못했다. 몽골의 군대는 그들의 시대이념(팍스-몽골리카)에 걸맞게 정보·심리전, 속도전, 보급전, 무기의 과학화, 군대의 다국적화 등에서 놀랄만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군사제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오로그(A'urug)이다.

전장을 따라 이동하는 후방 병참기지인 아오로그는 흉노, 돌궐, 거란 등 몽골이전의 유목민족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지만 그것이 일종의 군사조직체로 발전된 것은 칭기스칸 때부터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군대를 가지게 만드는 이 시스템은 어거데이카간 때 한군(漢軍)에게도 확대 시행되었으며, 이후 코빌라이카간의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에서는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A'urugchi(奧魯赤) 즉 오로관(奧魯官)을 둘만큼 군사조직의 일원으로 발전해 갔다.¹¹

1-3. 팍스-몽골리카의 이념

최근 세계적으로 인류발전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경향을 지닌 연구자들이 생물학, 역사학, 종교학, 경제학 방면에서 출간되고 있다.¹² 그들의 논지를 정리하면 인류

¹¹ 아오로그(A'urug)를 비롯한 몽골군의 전술 및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줄고, 「13~14세기 몽골군의 전술」 및 「13~14세기 몽골군의 무기와 보급체계의 연구」 『배반의 땅, 서약의 호수 — 21세기 한국에 몽골은 무엇인가—』, 서울: 민속원, 2008을 참조.

¹² 인류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은 21세기 역사학의 흐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합적 지구사(Global History, or World History or Transnational History)”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앤 커소이스(Ann Curthoys), 존 도커(John Docker) 지음, 김민수 옮김, 『역사, 진실에 대한 이야기의 이야기 :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에 이르기까지(Is history fiction?)』, 서울: 작가정신, 2013, pp.425~435를 참조. 오늘날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책들을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 철학방면으로는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지음, 이용주 옮김, 『세계종교사상사(A History of Religious Ideas)』 3vols, 서울: 이학사, 2005 ;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 지음,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1 : 원시 신화(The Masks of God 1: Primitive Mythology)』, 서울: 까치글방, 2003 ; 조지프 캠벨 지음,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2 : 동양 신화(The Masks of God 2: Oriental Mythology)』, 서울: 까치글방, 1999 ; 조지프 캠벨 지음, 정영목 옮김, 『신의 가면3 : 서양 신화(The Masks of God 3: Occidental Mythology)』, 서울: 까치글방, 1999 ; 조지프 캠벨 지음, 정영목 옮김, 『신의 가면4 : 창작 신화(The Masks of God 4: Creative Mythology)』, 서울: 까치글방, 2002 ; 나가

역사과정의 통일적 추세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온다.

	기본추세	대몽골제국	18~19C유럽	21C 반발	미래
종교영역	다신교>일신교	세계종교제시 (멍케-텅게리)	일신교 (기독교)	범신론	
경제영역	교환>화폐, 자본주의	무한경제체제의 자유무역, 단일지폐경제권	산업자본주의	보편경제학, 한정경제학 (경제민주화)	금융자본주의
정치영역	촌락>제국	제1차 지구촌제국	국민국가	국가연합	제2차 지구촌제국 (AI 통치)
과학영역	기술>과학	과학중시제국 (교통과 통신혁명, 무기군사물자혁신)	과학혁명 (지식과 영토의 점령시대)	생명윤리강조 (비유기적 생명체, AI의 등장)	생명공학, 사이보그, AI의 시대)

최근 정수일은 “문명의 힘은 정치, 경제, 종교, 가치관 등의 방면에서 조화와 질서”에 있다는 논지의 담론을 전개하고 있다.¹³ 바로 조화와 공존의 철학이나 역사관이 북방문명의 핵심이다.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 등 정착문명권의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유목문명을 경제적으로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문명이자 문명 간의 공존을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역할을 지닌 문명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경제나 정치, 사상 등의 방면에서 북방 유목문명에 대한 불명료한 이해는 비교적 북방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시각을 지닌 정수일의 글에도 보인다.¹⁴ 정수일의 사례는 아직 유목문명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와 신이치(中澤新一) 지음, 김옥희 옮김, 『카이에 소바주(Cahier Sauvage Series)』 전5권: ①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② 『꿈에서 왕으로 - 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③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 물신 숭배의 허구와 대안』, ④ 『신의 발명 - 인류의 지와 종교의 기원』, ⑤ 『대칭성인류학 - 무의식에서 발견하는 대안적 지성』, 서울: 동아시아, 2005 ; 나카자와 신이치(中澤新一) 지음, 김옥희 옮김, 『나카자와 신이치의 예술인류학』, 서울: 동아시아, 2009 ; 질 들뢰즈(G.Deleuze),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지음,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서울: 새물결, 2003 등이 있다. 역사 방면으로는 피터 터친(Peter Turchin) 지음, 윤길순 옮김, 『제국의 탄생 - 제국은 어떻게 태어나고 지배하며 몰락하는가(War and Peace and War: The Rise and Fall of Empires)』,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1 ;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지음, 김진준 옮김, 『총·균·쇠 :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Guns, germs, and steel :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서울: 문학사상, 2005 ; 피터 왓슨(Peter Watson) 지음, 조재희 옮김, 『거대한 단절 - 1만6500년 동안 신세계와 구세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The Great Divide: Nature and Human Nature in the Old World and the New)』, 서울: 글항아리, 2016 ;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지음,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Sapiens)』, 서울: 김영사, 2015 ;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지음, 이한음 옮김, 『만들어진 신 :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The God Delusion)』, 서울: 김영사, 2007 ; 에드워드 월슨(Edward O.Wilson) 지음, 이한음 옮김, 『지구의 정복자(The social conquest of earth)-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3 ; 에이미 추아(Amy Chua) 지음, 이순희 옮김, 『제국의 미래(Day of Empire)』, 서울: 비아북, 2008 등이 있다. 경제 및 정치방면으로는 마이클 샌델(Michael J.Sandel) 지음, 김명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서울: 와이즈베리, 2014 ; 케네스 포메란츠(Kenneth Pomeranz) 지음, 김규태 · 이남희 · 심은경 옮김, 『대분기: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서울: 에코리브르, 2016 ; 장미셸 카트르푸앵(Jean Michel Quatrepoint) 지음, 김수진 옮김, 『제국의 충돌 : 독일의 부상, 중국의 도전, 그리고 미국의 대응(Le choc des empires: États-Unis, Chine, Allemagne : qui dominera l'économie-monde?)』, 서울: 미래의창, 2015 ; 가브리엘 콜코(Gabriel Kolko) 지음, 지소철 옮김, 『제국의 몰락 :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World in Crisis: the End of the American Century)』, 서울: 비아북, 2009 등이 있다.

¹³ 정수일, 『문명담론과 문명교류』, 서울: 살림, 2009, p.15

¹⁴ 정수일, 앞의 책, pp.69-71

사실 한국학계에서 유목문명을 보는 시각의 정립은 금후의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피터 터친(Peter Turchin)은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에 대해 “국가가 내부의 결속을 유지하는 한 문명지대는 유목민에 맞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예외는 있다. 어느 누구도 칭기스칸의 몽골족은 당해내지 못했다.”¹⁵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그만큼 대몽골제국의 군사력과 내부구조가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선언과 같다. 누구도 당할 수 없었던 제국 즉 “역사의 예외”라고 평가된 대몽골(원)제국의 시대이념이 홍익인간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팍스-몽골리카”이다.

초원지대에서 발원한 팍스-몽골리카의 파워는 오늘날 흔히 “이동문명의 파괴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파괴력의 강도는 오늘날 정착적 사고(arboreal beings) 대신 유목민의 이동과 같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리조믹 노매드(rhizomic nomads)를 유행시킬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칭기스칸 시대의 이념 즉 핵심가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폐쇄적·정착적·수직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라도 칭기스칸의 확장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제국이 세력과 판도를 확대해 나갈 때마다 새롭게 편입된 지역과 집단은 다음 정복전쟁의 전진기지가 되고 또 군대와 물자의 보급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이 애초부터 사상과 인종에 구애받지 않은 열린사회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다민족공동체의 이념을 구현했다는 것을 뜻한다.

혼혈문화란 바로 개방과 다양성을 자랑하는 잡종문화이다. 잡종문화의 사회에서는 칸막이가 있을 수 없다. 칸막이가 없으면 제국은 살아있고 변화하게 된다. 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있다. 몽골이 주변문화에 대한 뛰어난 친화력을 발휘하며 세계통합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쩌면 그들의 군사력보다도 잡종문화의 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잡종문화는 사상적·종교적·정치적으로 상식을 존중하는 원칙을 만들어 낸다. 즉 자기의 입장에서가 아닌 다양한 인간집단에 있어서의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애당초 문화와 종교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다.¹⁷ 몽골이 제시한 잡종성 문화야말로 순수 이데올로

¹⁵ 피터 터친(Peter Turchin), 앞의 책, p.128

¹⁶ 팍스몽골리카의 시대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에 대해서는 졸저, 『유라시아대륙에 피어났던 야망의 바람 -칭기스칸의 꿈과 길』 pp.259-380 ; Park Won-Kil, "Mongolian Civilization and World Peace: The Core Values of the Mongolian Peoples and Their Relevance to World Peace", *Mongolian Peoples' Federation for World Peace*, New York & Seoul, 2007을 참조.

¹⁷ 몽골이 종교적으로 열린사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발견된다. 중국 광둥성 광주(廣州)시 이슬람교도 묘역인 청진선현고묘(清真先賢古墓) 부근에서 A.D.1985년 7월 도시 확장공사를 하던 중 고려인 라마단(Ramadan)의 묘비가 발견되었다. 묘비는 높이 62cm, 폭 42cm, 두께 6.2cm 크기로 정면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 제2장 255절을 인용한 아랍어가 크게 새겨져 있고, 좌우측에는 한자가 작게 새겨져 있다. 우측면의 한자에 “대도로(大都路) 완평현(宛平縣) 청현관(靑玄關)에 살았던 라마단(刺馬丹)은 고려사람(高麗人)이다. 나이 38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좌측면의 한자에는 “A.D.1312년(고려 충선왕 4년)에 알라웃딘의 아들로 태어난 라마단은 대도 남쪽의 청현관(靑玄關)이란 저택에 살다가 A.D.1349년 광서도(廣西道) 용주(容州) 육천현(陸川縣)을 다스리는 다로가치(達魯花赤, Darugachi)에 임명됐다. 그 해 3월 22일 숨졌다.” 그가 지방 행정관인 다로가치(Darugachi)로 임명된 점으로 보아 대원올로스에서 상당한 배경을 가진 고려 명문가 출신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가 이슬람교를 믿게 된 것은 대몽골의 종교적 개방성과 다양성 즉 혼혈문화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몽골이었다.

기 속에서 형성된 양극화의 논리, 대립과 갈등의 세계, 폐쇄적인 편가름과 다른 자에 대한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봇물 터지듯 서민문화가 만개하기 시작했다.

잡종문화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이었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제국의 품에 들어와 제국의 꿈을 공유할 수가 있었다. 제국의 중앙정부가 오늘날의 유엔을 연상케 할 만큼 국제혼혈조직을 가지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은 열린사회(수평마인드)와 다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무제한 경쟁체제의 자유무역, 단일지폐 경제권, 한 분야의 전문가를 존중한 전문 계약직의 사회, 교통과 통신혁명(Jamchi), 바다와 육지를 이은 물류 기지의 제국, 다국어룰 바탕으로 한 연회와 계약서의 제국, 종교문제가 없었던 유일의 제국¹⁸, 정보·과학 인프라를 생명처럼 여긴 제국 등 팩스-몽골리카의 구체적인 이념들을 만들어냈다. 만약 팩스-몽골리카를 오늘날의 대표적인 시대이념인 팩스-아메리카와 비교할 경우 두 이념 사이의 깊이와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인류는 역사상 많은 시대이념을 만들어 냈다. 그 중에 조화와 융합의 사상으로 주목받은 것이 헬레니즘(Hellenism)과 팩스-몽골리카이다.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사상을 주창한 헬레니즘의 확대판이 팩스-몽골리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역사에서 효용성이 검증된 성공된 이념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대몽골제국과 같은 지구촌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전제조건인 종교나 인종, 경제문제 등을 해결할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합의 걸림돌이자 지역별로 심각한 대립이나 갈등이 원인이 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예술가나 철학자들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에 있는데, 현대의 예술 및 철학사상을 대표하는 백남준과 G.데리즈가 A.D.21세기 인류의 시대이념으로 제시한 것이 팩스-몽골리카의 현대적 부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

2. 大都와 해상루트²⁰

대몽골제국은 무역과 교류를 통해 망한 나라는 없다는 중상주의 정책을 고수했던 세계통합 제국이다. 또 이를 위해 잠치(Jamchi)라 불리는 통신·교통의 정보·군사고속도로를 건설했

¹⁸ 종교학자인 M.엘리아데(Eliade)는 인류역사에서 종교문제에 관용적인 대몽골제국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인류사의 기적이라 하면서 그 원천을 그들이 지닌 자연법적 인식체계(샤머니즘)에서 유래한 종교 융합의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M.Eliade 지음, 이용주 옮김, 『세계종교사상사 3(Histoire des croyances et des idées religieuses III)』 p.14).

¹⁹ A.D.21세기의 예술 사상 및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白南準, A.D.1932~2006)은 A.D.1970년대에 북방문화원형적 사고패턴이 강하게 반영된 경주-유목민(Sationary Nomad)이란 개념을 만들어 A.D.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될 이념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그의 철학과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 “칭기스칸의 복권(A.D.1993)”과 “몽골 게르(A.D.1993)”이다. 그와 함께 현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의 하나인 G.데리즈(Deleuze)는 A.D.1980년에 출판된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에서 「1227년 - 유목론 또는 전쟁기계」라는 항목을 통해 유라시아-알타이 문화의 특징을 리조믹 노매드로 요약하면서, 이 이념이 A.D.21세기 현대의 인류가 열어나가야 할 정신적 지도와 그를 뒷받침해 주는 시대의 철학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²⁰ 본고의 제2절인 「大都와 해상루트」부분은 줄고, 「몽골과 바다」(『몽골학』26, 2009)에 수록된 “육지와 바다를 이은 제국”(pp.115-124)을 보강한 것이다.

다. 잠치란 몽골어로 “길을 관리하는 자”란 뜻을 지니고 있다. 몽골이 건설한 잠치는 제국의 확장에 따라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서로는 흑해, 동으로는 북경과 운남, 남으로는 이란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다. 마치 부채꼴 모양을 연상시키는 내륙의 길은 코빌라이카간 때에 이르러 바닷길이라는 테두리를 씌움으로서 세계 순환무역루트로서의 기능이 완비되었다. 그 상징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이은 도시 대도(大都: 북경)이다.

2-1. 대몽골의 길과 대도(大都)

대몽골제국은 아랍이나 페르시아, 위구르 등 서역상인들의 합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처음부터 중상주의제국으로 기획되고 시작된 제국이다. 중상주의 제국으로의 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잠치이며 그 잠치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이은 대도(大都)이다. 그러면 대도는 어떻게 건립되었던 것일까.

A.D.1227년 칭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국의 통치집단들은 그의 유언대로 3남인 어거데이(Ögödei, A.D.1186?년생, 1229~1241)를 제국의 대칸으로 추대했다. 어거데이(Ögödei, A.D.1186?년생, 1229~1241)는 대칸에 등극한 후 몽골연방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의 이해를 하나로 일치시키며 본격적인 세계경영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시대의 상징이 바로 칭기스칸이 구상한 잠치라는 통신망의 완벽한 구축이었다. 이로 인해 제국의 의지는 유라시아대륙의 동과 서를 관통해 세밀한 구석까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인류사상 최초로 등장한 광속의 통합망이었다. 대몽골제국은 이제 세계의 동심원이 되었다. 그는 이 세계의 동심원을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재정 등 중앙정부의 조직도 정비해 나갔다.

대몽골제국은 어거데이카간을 이은 구유그카간(Güyük Khagan, A.D.1206년생, 1246~1248), 명케카간(Möngke Khagan, A.D.1209년생, 1251~1259) 때에 이르러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확고한 원칙제시와 뛰어난 기획력을 겸비한 명케카간은 칭기스칸 이래의 소원이었던 초원과 바다를 하나로 엮는 대통합을 시도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 A.D.1252년 코빌라이(Khubilai, A.D.1215~1294)의 대리(大理)국을 정벌과 사아리 - 노얀(Sa'ari-Noyan)이 이끄는 별동대의 아프카니스탄 파견이다. A.D.1252년에 행해진 이 두 원정은 서역상인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자 및 바닷길의 확보를 위한 성격이 농후했다.

은을 국제통화로 삼고 있었던 서역상인들의 눈으로 볼 경우 운남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방이었다. 세계무역의 통합을 꿈꾸는 명케카간 역시 세계통합제국의 기본 화폐를 은으로 삼고자 했다. 코빌라이는 8만 명에 이르는 군대와 4백만 마리에 이르는 말을 희생한 끝에 A.D.1253년 12월 대리의 수도인 태화성(太和城)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이 대리의 원정은 대몽골제국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²¹

²¹ 코빌라이의 원정 후 이곳에는 많은 이슬람상인들이 거주했다. 또 그에 따라 이슬람교 및 이슬람문화도 전파되었다. 오늘날 운남성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심심찮게 회교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들이다. 이후 코빌라이에 의해 바닷길이 열렸을 때 이 지방은 큰 번영을 누렸다. 그리고 바닷길을 따라 동남아시아의 요충에는 서역상인들에 의해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대몽골제국이 붕괴한 후 이곳의 사람들은 그 옛날의 영광을 그리며 바닷길의 부활을 원했다. 명나라 영

운남을 거의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멍케카간은 A.D.1253년 10월 동생인 홀레구(Külregü, A.D.1218~1265)에게 원정준비를 끝낸 대군을 이끌고 이란의 바그다드로 출발할 것을 명했다. 이란에 진입한 홀레구는 암살자의 교단이라는 명성을 들으며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었던 이스마일리파(Ismailism)를 완벽히 제압했다. 이스마일리파를 진압한 홀레구의 서정군은 A.D.1258년 2월 10일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압바스조(A.D.750~1258)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A.D.1259년 9월에는 시리아(Syria)로 진군하여 다마스커스를 점령했다. 곽간(郭侃)이 이끄는 선발대는 소아시아반도를 넘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섬인 키프로스도 점령했다.

멍케카간은 운남의 공략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또 서아시아 원정군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자 A.D.1256년 6월 다이르 - 아타(Dayir-Ataga)에서 코릴타를 개최한 뒤 정식으로 남송정벌을 결의했다. 이제 인류대통합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멍케카간의 야망은 A.D.1259년 8월 18일 조어성(釣魚城)에서 장티푸스로 돌연 사망함으로써 꿈의 종말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리고 그 임무는 고려의 왕자(태자 僣 = 원종)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킨 코빌라이에게 맡겨졌다. 코빌라이는 몽골의 위대한 코릴타(Khurilta)의 전통을 파기하고 대몽골제국의 동방세력을 주축으로 A.D.1260년 3월 상도(上都)에서 스스로 대칸에 올랐다. 이로 인해 혼란과 분열이 일시 제국에 휘몰아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즉위 후 형 멍케카간의 뒤를 이어 제국의 야망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쿠데타로 대칸에 오른 코빌라이는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의 대칸들이 기획했던 제국의 야망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A.D.1260년부터 4~5년간 제국의 통치 집단들과 대칸 계승의 정통성을 둘러싼 내전을 벌였다. 그리고 군사적인 절대우세가 결정되자 만주지역의 타차르(Tachar), 중앙아시아의 아르곤(Argun), 페르시아의 홀레구(Külregü), 러시아의 베르케(Berke) 등을 설득했다. 그리고 제국의 모든 통치집단들이 A.D.1266년 코빌라이의 근거지에 모여 그의 대칸 즉위를 공식화하고 제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코빌라이에게는 이 A.D.1266년이 바로 꿈의 해였다. 그는 이들에게 자기의 야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계통합의 수도를 건설하기를 원했다. 대도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A.D.1266년부터 건설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A.D.1283년에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코빌라이가 생전에 완성한 대도는 그야말로 하나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획된 도시였다. 세계제국의 수도이자 기획된 도시로서의 성격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 한 가운데에 인공적으로 조

락제(永樂帝, A.D.1360~1424) 때 행해진 정화(鄭和, A.D.1371~1435?)의 대원정은 바로 그 열망의 산물이다. 영락제는 명나라의 황제 중 몽골의 꿈을 유일하게 계승했던 인물이었다고 정화는 운남성의 회교도였다. 정화의 원정에 대해서는 山本達郎, 『鄭和西征考』 『文哲季刊』 4-2, 4, 1935 ; 馮承鈞 譯(P.Pelliot著) 『鄭和下西洋考』 上海: 商務印書館, 1935 ; 家島彦一, 『イスラーム史料中にみる鄭和遠征記事について』 『史學』 38-4, 1966 ; 寺田隆信, 『鄭和—中國とイスラーム世界と結んだ航海者—』, 東京: 現代書館, 1981 ; 高榮盛, 『鄭和航海圖』三議 『元史淺識』, 南京: 鳳凰出版社, 2010 ; 鄭鶴聲, 鄭一鈞, 『鄭和下西洋資料匯編(上·下)』, 濟南: 齊魯書社, 1984 ; 陳得芝, 『明代海外交通的發展與明初鄭和下西洋』 『蒙元史研究叢稿』, 北京: 人民出版社, 2005 ; 발로스 지음, 홍영분 옮김, 『지도를 만든 사람들』, 서울: 아침이슬, 2007, pp.38-52를 참조.

성된 적수담(積水潭)이란 호수이다.

이 인공호수는 오늘날 북경의 관문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계획도시 천진(天津)과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운하는 A.D.1293년에 완성되었다. 바로 이 인공호수는 바닷길의 종착역이었다. 적수담의 동북 기슭에는 국제시장과 경제관청들이 줄지어 늘어선 거대한 경제특구가 조성되었다. 이 인공호수의 아래쪽에는 몽골초원을 상징하는 인공초지와 수림이 조성되었다. 자연 호수인 태액지(太液池) 옆에 조성된 이 초지와 수림에는 고정식 궁궐과 이동식 궁전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세계 인류의 화합을 염원하듯 각 종교를 대변하는 거대한 성전들이 이 주위를 빙 둘러 건립되었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뉴욕 월가와 워싱턴 및 바티칸을 한곳에 집중시켜 놓은 모양과 같았다.

대도는 초원과 바다를 잇는 상징이었다. 또 성 자체와 그 안에 들어선 모든 건물들도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지어졌다.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이 꿈꾸어 왔던 지구촌 통합제국의 꿈은 대도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다. 오늘 날 북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북해공원(北海公園)과 고위관리들이 모여 사는 중남해(中南海)가 바로 몽골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와 숲의 유적들이다. 대도에서 처음 선보인 초지와 숲은 이후 세계 각국 도시공원의 모델이 되어 역사에 그 맥을 이어갔다.

대도는 몽골인들에게는 예케-호타(Yeke Khota: 큰 도시), 서역인들에게는 돌궐어로 대칸이 사는 도성이라는 의미의 칸 - 발릭(Khan-Balig)라고 불려졌다. 대도는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해 흐르는 잠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다.²² 코빌라이는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해 흘러 들어오는 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대도와 상도에 이르는 지역을 대규모의 물류기지로 만들었다. 중앙아시아와 초원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은 모두 이곳에 보관되었다.

이제는 바닷길만 트면 완벽한 구도가 갖추어지는 셈이다. 페르시아와 아라비아반도를 떠난 서역의 상인들이 거대한 물자를 싣고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주(杭州), 천주(泉州), 광주(廣州) 등 남송의 항구도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도의 인공호수인 적수담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코빌라이가 대도의 건설에 착공한 A.D.1266년부터 이미 남송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뜻한다.

코빌라이의 시대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은 사실 남송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겉가지에 불과하다. 물자대국인 남송은 세계 순환교역에 있어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존재였다. 코빌라이가 인류사상 최초로 농업세를 폐지한 꿈의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는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지인 남송을 파괴시키지 않고 접수하기를 원했다.

코빌라이는 A.D.1267년 8월부터 남송의 요충인 양양(襄陽)·번성(樊城) 포위작전을 통해 장장 6년에 걸쳐 남송의 정예군단인 여문환(呂文煥)을 설득했다. 여문환이 투항하자 코빌라이는

²² 오늘날의 북경은 명나라 영락제 때 건설한 도성의 모습이 계승된 것이다. 영락제는 A.D.1406년부터 대도의 폐허에 수도를 정하고 13년의 건설기간 끝에 A.D.1420년에 완공했다. 북경이란 명칭도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는 순치제 때인 A.D.1644년 10월에 북경을 수도로 선포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근거가 되었던 대도는 A.D.1368년 주원장(朱元璋, A.D.1328~1398)의 대도 진입 때 크게 파괴되어 현재는 유적의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는 인류역사상 주목받는 도시의 하나에 속한다. 대도에 관한 연구논저는 줄고, 「몽골과 바다」 p.119 주(15)를 참조.

A.D.1274년 6월 정식으로 남송을 공격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여문환의 군대가 앞장을 섰고 바얀(Bayan)이 이끄는 몽골군은 그 뒤를 따라 남송의 수도인 임안(臨安)까지 이르렀다. A.D.1276년 1월 18일 남송은 항복했고 코빌라이의 꿈은 실현되었다.

2-2. 코빌라이카간과 포수경(蒲壽庚)

A.D.1276년 1월 남송이 항복한 후에도 문천상(文天祥, A.D.1236~1282)과 육수부(陸秀夫) 등을 위시한 일부 군대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당시 남송과 무역을 하면서 바닷길을 장악한 이슬람의 거대한 해양세력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상인들은 아무도 이들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지원세력이 없는 저항군은 A.D.1279년 2월 다국적군인 서하와 한인군단에게 몰려 오늘날 광둥성 남부 주강(珠江) 삼각주에서 최후를 맞았다. 최후의 항장이었던 육수부는 9살에 불과한 어린 황제 조병(趙昺)을 등에 업고 애산(厓山)의 섬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왜 서역상인들은 남송을 지원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당시 바닷길을 장악한 서역상인의 대표주자 포수경(蒲壽庚)의 길을 따라서 추적해 보기로 하자.

코빌라이카간은 동아시아전체와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중앙아시아, 인도, 이슬람제국을 엮는 방대한 순환 무역루트의 구축을 꿈꾸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자신의 본거지인 상도(上都)와 북경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물자기지 건설에 나섰다. 코빌라이는 상도를 여름수도, 북경인 대도를 겨울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상도와 북경 사이의 350k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물류기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일대의 곳곳에 관영공장이나 군사기지, 곡물비축시설, 궁전 등 군사·정치·경제의 모든 기능을 집중시켰다.²³

소위 오늘날의 말로 하면 대형 수도권의 개념과 같다. 유라시아의 초원세계와 중앙아시아 및 이란에서 오는 물자는 이 수도권 일대에 포진된 창고에 차곡차곡 보관되었다. 중원과 티베트 및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올라온 물자들도 역시 이곳에 보관되었다. 이 물자들은 상도와 북경에 위치한 무역사무소의 문서로 결제·교환되었고 그대로 세계각지로 실려 나갔다. 수도권이 보존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는 한 코빌라이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았다.

코빌라이의 의도는 당시 남송과 바닷길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었던 사우디·이란계 이슬람상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역상인들과 매우 닮은꼴인 사람들이다. 당시 국제무역항인 천주(泉州)와 광주(廣州) 일대에서 남송과 무역을 하고 있었던 그들은 코빌라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전부터 서역상인들을 통해 대몽골제국의 구상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몽골제국의 길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남송의 구원 대신에 멸망을 기다렸다. 남송이 멸망하자 바닷길이 뚫렸다. 그리고 바닷길의 마피아와 같은 존재였던 이슬람 해상상인들도 몽

²³ 상도와 북경 사이의 물류기지 구축에 대해서는 杉山正明, 『大モンゴルの世界 — 陸と海の巨大帝國 —』, 東京: 角川書店, 1992, p.259를 참조.

곶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당시 코빌라이와 연합한 대표적인 상인이 아랍 혹은 이란계 출신의 포수경(蒲壽庚)이다. 그는 천주(泉州)와 광주(廣州)를 근거지로 아라비아와 인도, 동남아시아 및 남송에 이르는 바닷길을 3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다. 국제무역을 무시했던 남송정부도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어 천주항의 선박출항과 통상을 관리하는 제거시박(提舉市舶)으로 임명할 정도였다. 몇 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는 해양상인이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 책임자이기도 한 묘한 수수께끼의 인물이었다.²⁴

포수경의 휘하에는 수천 척의 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몽골과 남송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킨 채 몽골의 길을 기다렸다. 사실 포수경은 남송의 저항 세력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포수경의 아래에는 전쟁의 발발 전부터 운남에서 파견된 몽골측 서역상인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임안이 함락된 후 포수경은 대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코빌라이에게 투항했다. 그리고 코빌라이의 꿈대로 남해원정을 기획하고 실행했다.²⁵

포수경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해원정은 결코 군사작전이 아니다.²⁶ 원정에 참가하는 군대들은 모두 자원부대들이었다. 중앙정부는 어떤 계획이나 지시를 내려 보내지 않았다. 원정자체가 처음부터 해상상인들의 이권을 노린 경제전쟁이었다. 베트남으로부터 태국, 버마, 자바에 걸치는 이 원정은 군사함대가 아닌 무역선단이 주축이 된 경제함대였다. 이 함대는 현지 정권의 전복이나 섬멸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교류를 강제하는 일종의 선전부대였다. 미래의 이익을 설파하는 이 선전부대에 각국이 호응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이슬람 해양 상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원정 결과 몽골은 천주(泉州)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이란의 호르무즈(Hormuz) 등과 이어지는 해상루트를 장악할 수 있었다.²⁷

杉山正明은 몽골주도로 형성된 이 세계규모의 통합 바닷길 무역로를 '유라시아 대교역권'이

²⁴ 蒲壽庚에 대해서는 桑原隲藏, 『宋末の提舉市舶西域人蒲壽庚の事蹟』 上海, 1923 ; 杉本直治郎, 「蒲壽庚の國籍問題」 『東洋史研究』 11-56, 1952 ; 前嶋信次, 「泉州の蒲氏勃興の年代について」 『史學雜誌』 61-12, 1952 ; 上同, 「泉州の波斯人と蒲壽庚」 『史學』 25-3, 1952 ; 上同, 「元末の泉州と回教徒」 『史學』 27-1, 1953 ; 川越泰博, 「泉州回教徒蒲氏系譜考—『蒲壽庚家譜』先世記事の再檢討—」 『東方宗教』 43, 1974 ; 張秀民, 「蒲壽庚爲占城人非阿拉伯人說」 『蘭州大學學報』 1979-1 등의 논저를 참조.

²⁵ 杉山正明, 『クビライの挑戰』, 東京: 講談社, 1995, p.205

²⁶ 남해원정에 대해서는 山本達郎, 「元の南方經略」 『日本諸學振興委員會研究報告第十一篇(第二歷史學)』 1940 ; 丹羽友三郎, 「元世祖ジャバ遠征雜考—特に軍士ならびに海船の數について—」 『史學研究』 61, 1956 ; 王頌, 「元王朝與爪哇의戰爭과來往」 『史林』 2006-4를 참조.

²⁷ 대몽골(원)제국과 해양교역에 대해서는 陳高華, 吳泰, 『宋元時期的海外貿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1 ; 喻常森, 『元代海外貿易』, 陝西: 西北大學出版社, 1994 ; 高榮盛, 『元代海外貿易研究』,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8 ; 白曉霞, 張其凡, 「元朝與印度的海上貿易」 『內蒙古大學學報』 2004-6 ; 劉文波, 「宋元時期泉州社會經濟變遷與海外貿易—兼析泉州古代經濟發展之路」 『泉州師範學院學報』 2010-5 ; 烏云高娃, 「忽必烈的東亞海外政策及禪宗影響」 『海交史研究』 2015-2 ; 四日市康博, 「몽골제국과 해역아시아」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서울: 민속원, 2012, pp.39-48 ; 深見純生, 「宋元대의 해역동남아시아」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pp.49-61 ; 佐藤貴保, 向正樹, 「해상과 육상의 互市 무역과 국가 — 송원시대를 중심으로 —」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pp.237-242를 참조. 아울러 高麗와의 무역에 대해서는 陳高華, 「元朝與高麗의海上交通」 『진단학보』 제71·72호, 1991 ; 張雪慧, 「試論元代中國與高麗의貿易」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3-3 ; 樊文禮, 「唐代“登州海行人高麗道”的變遷與赤山法華院의形成」 『中國歷史地理論叢』 2005-2 ; 袁曉春, 「高麗使節鄭夢周登州史迹考」 『延邊大學學報』 2010-1 ; 周霞, 「元朝時期的山東半島在與高麗海上商貿交往中的重要作用」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5 ; 崔菊華, 「元代山東與高麗의貿易」 『滄桑』 2011-1을 참조.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가 묘사한 '유라시아 대교역권'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30년(A.D.1293) 전후에는 남중국해-자바해-인도양을 잇는 남쪽의 해양 루트가 몽골의 세력권내로 들어왔던 다시없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이 해 『바사프史(Tarikh-i Vassaf)』와 『백만의 서(동방견문록)』가 일치하게 말하듯이 '마르코 폴로' 일가도 함께 탄 대원올로스의 사절단 함대가 홀레구 올로스(Külegü Ulus) 왕실로 시집가는 몽골의 공녀(公女)를 태우고 천주(泉州)를 출발하여 연안 각 도시를 기항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항까지 나아간 것이다....13세기말 무렵, 몽골의 보호아래, 내륙과 해양의 두 세계, 그리고 그것을 꿰뚫는 무역로는 하나의 큰 순환하는 체계로써 연결된 것이다. 여기에 유라시아세계는 동쪽의 일본열도에서 서쪽의 브리튼(Britain) 섬까지 널리 연쇄의 고리 속에 연결되었다. 확실한 기록으로 확인된 사상 초유의 것이었다. ... 동쪽에서는 천주(泉州).광주(廣州) 등 서쪽에서는 페르시아만에 임한 호르무즈, 그 사이에 남쪽에서는 수마트라(Sumatra)섬의 팔렘방(Palembang)이나 보르네오(Borneo)섬의 브루나이(Brunei), 인도 남단에 가까운 말라바르(Malabar)나 마아바르(Maabar) 해안의 여러 항구,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연안의 수다크(Sudak), 아조프(Azov)해에 면한 타나(Tana) 등의 항구도시가 번영했다. 몽골로서는 적이었던 된 이집트의 맘루크(Mamluk) 왕조 치하에 있어서도 '카리미 상인(Karimi Merchants)'들의 활동에 동방무역은 불가결한 요소였다. 물론 지중해의 베네치아(Venezia), 제노바(Genova) 등의 항구도시국가 는 말할 것도 없다.²⁸

강정영홍(岡田英弘)이 "세계사는 몽골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²⁹고 말하는 것도 칭기스칸 이래 대몽골(원)제국이 수행했던 이러한 지구촌규모의 유라시아 대교역권의 형성 때문이었다. 바닷길의 확보는 물류기지로써의 수도권의 개념을 그야말로 확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라시아루트와 바닷길을 장악한 몽골은 그야말로 꿈의 나라였다. 이 순간 대원올로스는 내부의 사정은 어떻든 정말 육지와 바다의 정점에 선 세계국가가 되었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라 불리는 베네치아에는 오늘날까지 대몽골제국 때 맺은 통상협정서가

²⁸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の興亡(下:世界經營の時代)』, 東京: 講談社, 1996, pp.141-142. 참고로 흑해 연안의 크림리아(Crimea) 반도에 위치한 동서교역의 항구도시 수다크(Sudak)는 A.D.1223년과 A.D.1239년 몽골군의 침공을 받았다. 특히 이 항구도시가 칭기스칸의 서아시아 원정(A.D.1219~1225)에서 주목을 받은 그 이유는 이후 알탄-오르도나 대원올로스의 바닷길 연결항로 구축망에서도 드러나듯이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역항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이는 최초부터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이 중상주의적 성격의 세계 순환무역망을 구상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추론은 카라코룸이나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발행된 몽골 대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금화와 은화의 존재에서도 입증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칭기스칸의 금화만해도 100여점에 이르는데, 대몽골제국이나 그 후계제국 대칸들의 금화나 은화에 대해서는 B.Nyamaa, *The coins of Mongol Empire and Clan Tamgha of Khans(XIII-XIV)*, Ulaanbaatar, 2005를 참조. 이후 이 항구와 함께 그 주변에 위치한 카파(Kaffa) 및 아조프해의 타나(Tana)도 알탄 오르도(Altan Ordo, Golden Horde, A.D.1243~1502)의 통제를 받았으며, 이들의 주요 상대는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상인들이었다. 당시 알탄 오르도와 이탈리아 상인들인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의 흑해 및 유라시아 무역에 대해서는 로저 크롤리 지음, 우태영 옮김, 『500년 무역대국: 부의 도시 베네치아』, 서울: 다룬세상, pp.218-244를 참조.

²⁹ 岡田英弘의 주장에 대해서는 岡田英弘, 「世界史はモンゴル帝国からはじまった」 『べるそーな』 21, 2004年2月號, pp.64-65 및 『世界史の誕生 - モンゴルの発展と伝統 -』, 東京: 筑摩書房, 1999를 참조.

보존되어 남아 있다. 이 협정서에는 베네치아상인들도 동방의 예에 따라 극히 낮은 상세를 부과 받으며 또 상품 운반도중에 해를 입을 경우에는 몽골이 보증한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³⁰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무역도시 피렌체에는 오늘날까지 몽골제국 시대의 『상업안내서(Practica della Mercatura)』란 책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1315~40년에 피렌체에서 활동한 페골로티(Francesco Balducci Pegolotti)가 1340년에 지은 이 책에는 흑해에서 남러시아 초원까지만 도착하면 몽골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대로 아득한 동방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¹

이 두 개의 무역항구가 이후 유럽을 깨운 르네상스의 발원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경제의 통합교류를 꿈꾸었던 칭기스칸의 꿈은 머나먼 서방에서 다시 생명을 얻듯 꽃피어난 것이다. 유럽인들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중상주의 제국 몽골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사라져버린 이 제국의 행방을 매우 궁금해 했다. 그리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훗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여 유럽의 세기를 열은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는 몽골의 대칸인 코빌라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연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³² 그때가 A.D.15세기 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역사는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3. 몽골과 탐라의 만남

탐라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또 그에 따라 격동에 휩싸인 시기는 탐라성주 양호(梁浩)가 코빌라이카간을 만나는 A.D.1267년 1월부터 법화사의 아미타삼존불이 명나라로 떠나는 A.D.1406년 4월까지이다. 이 139년의 기간 동안 탐라인들은 고려(조선)와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 명나라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속(타협과 공존), 저항과 토벌 등의 방식으로 생을 도모했다. 탐라의 법화사는 탐라 몽골세력의 정치적·정신적 중심지였다. 탐라의 몽골세력은 A.D.1374년 9월 최영이 이끄는 고려군의 공격을 받아 주력이 붕괴되었다. 법화사 아미타삼존불의 조성고 명나라 회수는 탐라 몽골세력의 흥기 및 소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³³

3-1. 탐라의 근원과 가치

대몽골(원)제국의 외교정책입안은 정확한 정보에 의거하여 명분과 최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새로운 세력(외국인)을 만날 때 먼저 그들에게 자신들의 근원

³⁰ 杉山正明, 『大モンゴルの世界 — 陸と海の巨大帝國 —』p.286

³¹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서울: 돌베개, 2010, pp.147-148; A.J.Silverstein, Postal Systems in the Pre-Modern Islamic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161

³²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の興亡(上:軍事擴大の時代)』東京: 講談社, 1996, pp.15-16

³³ 법화사에 대해 자세한 것은 줄고, 「영락제와 제주도」 pp.9-25를 참조.

과 가치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3세기 탐라와 몽골의 만남을 역사서에 의거해 기록을 재구성 해볼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高麗史』: [1266년]제주 성주(星主) [양호(梁浩)]가 와서 왕을 알현했다. 갑자일에 정언(正言) 현석(玄錫)을 보내 성주를 데리고 몽골로 가도록 했다.³⁴

② 『元史』: [1267년 1월]백제가 신하 양호(梁浩)를 보내 알현하자 아름다운 비단옷을 하사했는데 [같이 온 탐라사람들과는] 차등이 있었다.³⁵

③ 『元史』: [1269년 7월]황제가 명위장군(明威將軍) 도통령(都統領) 토틀아(Togtoga, 脫朵兒), 무덕장군(武德將軍) 통령(統領) 왕국창(王國昌), 무략장군(武略將軍) 부통령(副統領) 유걸(劉傑)을 [고려에] 보내 탐라에 이르는 길들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고려왕 식(원종)에게 관리를 선발해 이들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탐라에서 바닷길로 남송이나 일본에 가는 것이 아주 쉽다”고 했기 때문이다.³⁶

④ 『元高麗記事』: [1272년 11월 15일]또 겸하여 탐라국왕이 일찍이 내조하였는데, 지금 [고려에서] 반란을 일으킨 도적이 그 주인을 몰아내고 성곽을 점거하였으니 의리상 먼저 평정해야 합니다.³⁷

⑤ 『元史』: [1293년 2월]연해에 수역(Usun-u Jam, 水驛)을 둘 것을 명한다. 탐라에서 압록강 하구에 이르는 11개 수역 [설치]는 홍군상(洪君祥)이 관장하도록 하라.³⁸

³⁴ 『高麗史』卷26 「世家·元宗」: “[A.D.1266]濟州星主來見, 甲子遣正言玄錫, 以星主如蒙古”

³⁵ 『元史』卷6 「世祖本紀」4年(A.D.1267)正月條: “[四年春正月]乙巳, 百濟遣其臣梁浩來朝, 賜以錦繡有差.”

³⁶ 『元史』卷208 「外夷一, 高麗」: “[至元]六年(A.D.1269)七月, 帝遣明威將軍都統領脫朵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 相視耽羅等處道路, 詔植[元宗]選官引達, 以人言耽羅海道往南宋·日本甚易故也”. 같은 내용이 『元高麗記事』 「耽羅」條에도 “세조황제 지원 6년(A.D.1269, 고려 원종 10) 7월 5일, 추밀관이 성지(詔: Jarlig)를 받들어 천호 토틀아(Togtoga, 脫朵兒)와 왕국창(王國昌), 유걸(劉傑)을 고려 땅에 보내 탐라 등지의 길을 자세히 살피고 군병과 배를 점검하고 조사하게 하였다. 고려왕에게는 바닷길과 지리에 능숙한 관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성지에 이르기를, “고려국왕 왕식(王植)에게 유시한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탐라에 이르러서, 남송이나 일본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길이 아주 쉽다.’고 하였다. 지금 다시 명위장군(明威將軍) 도통(都統) 토틀아(Togtoga), 무덕장군(武德將軍) 통령(統領) 왕국창(王國昌), 무략장군(武略將軍) 부통령(副統領) 유걸(劉傑)을 보내 경이 준비한 군사와 배를 점검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먼저 탐라 등지의 길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으니, 경은 마땅히 큰 배로 돕도록 하라. 가히 말길만한 현직 관리를 선발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그곳까지] 도달하도록 힘써서 짐의 뜻을 돕도록 하라.”라고 하였다(世祖皇帝至元六年(A.D.1269)七月五日, 樞密官奉旨差千戶脫朵兒、王國昌、劉傑赴高麗地界, 相視耽羅等處道路, 整點軍兵船艦, 令高麗王選差知識海道地面好官, 領引前去, 詔曰, 諭高麗國王王植, 以其曾有人云, 若至耽羅, 欲往南宋並日本, 道路甚易, 今復遣明威將軍、都統脫朵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 就彼點整卿所備軍兵船隻, 並先行相視耽羅等處道路, 卿當應副大船, 可選堪委見職正官, 務要引送道達, 以副朕懷).”처럼 수록되어 있으며, 대략 같은 내용이 『高麗史』卷26 「世家·元宗」9년(A.D.1268)冬十月條에도 수록되어 있다. 『高麗史』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들을 도와준 고려 관리의 낭장 박신보(朴臣甫)와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 우천석(禹天錫)로 나타난다(『高麗史』卷26 「世家·元宗」: “己亥, 遣郎將朴臣甫, 都兵馬錄事禹天錫, 從國昌劉傑等, 往視黑山島…十二月丁丑, 王國昌劉傑等還自黑山”).

³⁷ 『元高麗記事』 「耽羅」至元 9年(A.D.1272) 11월 15日條: “又兼耽羅國會來朝, 見今叛賊逐其主, 占據城郭, 義當先平.”

³⁸ 『元史』卷17 「世祖本紀」30年(A.D.1293) 2月條: “詔沿海置水驛, 自耽羅至鴨綠江口凡十一所, 令洪君祥董之.”

①과 ②의 기록은 탐라와 몽골인들의 첫 만남에 해당한다. 몽골인들은 『몽골비사(Monggol-un Nigucha Tobchiyan)』의 첫 구절이 칭기스칸의 근원(Chinggis Khagan-u hujagur)으로 시작되는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근원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이며, 최초의 민족을 만날 때도 그들의 기원부터 파악한다. 따라서 ②의 기록 즉『元史』의 百濟 운운 기록은 1267년 1월 梁浩 등의 탐라인들이 코빌리카간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기원(Tamra irgen-ü hujagur)을 高麗가 아닌 百濟와 연관 지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당시의 몽골인들이 탐라를 고려와 기원이 다른 민족계열로 판단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을 폈을 가능성도 제시해 주고 있다.

③의 기록은 탐라의 가치가 최초 말이 아닌 교통요충에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말의 가치는 이후 답사결과 생겨난 것임을 보여준다. 당시 코빌리카간의 현안과제 중의 하나가 일본 및 남송정벌이다. 따라서 일본과 남송으로 가는 바닷길의 중간에 위치한 탐라는 몽골로서는 매우 주목되는 섬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바닷길의 요충으로서의 탐라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역사기록들은 ③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㉑ 『高麗史』: [A.D.1260]2월 경자일. 제주부사(副使) 판 예빈성사(判禮賓省事) 나득황(羅得璜)에게 방호사(防護使)를 겸임시켰다.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제주는 해외거진(海外巨鎮)으로 송나라 상인들과 왜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니 특별히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⁰

㉒ 『元高麗記事』: [A.D.1268]상께서 또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온 사람이 바다에 관한 일을 말했는데, 송나라에서 순풍을 얻을 경우 2~3일 만에 이를 수 있고, 일본에서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닿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한 자는 고려인과 남인이다.”⁴¹

㉓ 『元高麗記事』: [A.D.1272]11월 15일 중서성이 아뢰었다. 앞서 선지를 받들어 탐라와 일본의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신 등이 추밀원의 관리에게 물어보니, “남국으로부터 일본을 경유해 온 탐라인 세 명이 있는데 지도를 그려 왔습니다. 말하기를 ‘일본 태재부 등의 지역은 모두 해안에 배를 댈 수 있으며, 대략 군사 2~3만 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⁴²

이 기록들은 모두 탐라가 송나라와 일본의 상선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중요한 기항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즉 몽골측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탐라는 바닷길로 일본과 남송을 공략하는데

³⁹ 고대 탐라와 백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pp.219-223을 참조.

⁴⁰ 『高麗史』 卷25 「世家·元宗」: “[A.D.1260]二月庚子, 以濟州副使判禮賓省事羅得璜兼防護使, 朝議, 濟州海外巨鎮, 宋商島倭無時往來, 宜特遣防護別監, 以備非常”

⁴¹ 『元高麗記事』 「世祖 5年(A.D.1268) 5月 29日」條: “上又曰, 自爾國來者, 言海中之事, 宋則如得順風, 可兩三日而至, 日本則朝發而暮至, 言是者乃高麗人與南人也”

⁴² 『元高麗記事』 「耽羅」: “[A.D.1272]十一月十五日, 中書省奏, 先奉聖旨議耽羅、日本事, 臣等同樞密院官詢問, 有自南國經由日本來者耽羅人三名, 畫到圖本, 稱日本太宰府等處下船之地俱可下岸, 約用軍二三萬”

가장 적합한 지리적인 요충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섬의 규모도 그다지 작지 않아 목마장까지 갖춘 천혜의 자연조건까지도 구비하고 있다. 탐라가 일본과 중국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이라는 관점은 고창석의 지적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데,⁴³ 몽골로서는 바로 그 자체가 탐라의 가치인 것이다. 몽골은 고려의 서해안 섬들을 유배지로 사용했는데, 탐라의 경우 거기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⁴⁴

A.D.1293년을 기점으로 대원올로스의 정책이 평화공존의 바닷길 무역으로 전변되는데, 이 이후 탐라의 상황은 마치 섬과 유사한 크림미아 반도의 수다크(Sudak)와 카파(Kaffa) 및 아조프 해의 타나(Tana)를 연상케 한다. 실제 크림미아와 탐라는 동서바닷길의 요충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자연조건 역시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 목축과 바닷길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크림미아와 탐라에는 몽골인들이 이주하여 목축과 상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대몽골(알탄오르도)제국의 붕괴 후에도 크림미아의 몽골인들은 크림칸국(Khanate of the Crimea, A.D.1430~1783)을 세워 무려 353년 동안 존속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필자는 이후 탐라의 상업적 성격을 연구할 때 크림미아는 비교대상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⁴⁵

④의 기록은 당시 탐라의 정치적 위상이 금나라의 기미(羈縻) 하에 있었던 알라코시-디기드-코리(Alakhushi-Digid-Khuri)의 옹구드(Önggüd)부⁴⁶와 유사함을 보여주는데, 의리상 먼저 평정해야 한다는 기록은 대몽골(원)제국의 정치적 이념과 원칙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또 몽골이 고려와 탐라를 분리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⑤의 기록은 탐라에서 중국, 일본, 고려로 이어지는 해로 중 고려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탐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전통적인 뱃길은 탐진(耽津)과 나주(羅州)이다.⁴⁷

이상 ①~⑤에 이르는 기록은 탐라에 진주한 목호의 해석에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목호의 탐라 지배와 거주를 수탈의 공식으로 보지 말고 몽골이 거주했던 기타지역처럼 공존의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목호를 위시한 탐라민들이 고려의 기미(羈縻)를 받

43 고창석, 「『元高麗記事』耽羅關係 記事의 檢討 : 13세기 耽羅와 元과의 關係」 『경북사학』 21, 1998, p.455. 이후에 발표된 윤명철,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 『東國史學』 37, 2002 ; 오상학, 「한·중·일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인식」 『국토지리학회지』 제5권 1호, 2011 ; 배숙희, 「원대(元代) 경원(慶元)지역과 남방항로(南方航路) -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학보』 65, 2012 등의 논문도 모두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4 이 같은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코빌라이카간 때이다. 코빌라이카간 이후 탐라로 유배 온 사례로 魏王 阿木哥(처음에는 耽羅, 이후 大靑島, 유배기간: A.D.1317.1-1323.11)와 孛蘭奚 大王(A.D.1340.2-종신)이 있다. 몽골의 고려 서해안 섬들의 유배지 사용에 대해서는 졸고, 「몽골과 바다」 pp.124-138을 참조.

45 예컨대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요로 “이어도”가 있다. 이 민요에 등장하는 “이어도 흐라, 이어도 스나”의 뜻에 대해서는 김진하의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김진하, 「이어도 전설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 2006, pp.33-57). 이어도의 해석과 관련해 1989년 8월 제주도를 방문한 臺灣 政治大學 邊政研究所 하칸출로 교수는 이 노래를 처음 들은 뒤, 노래의 후렴구절인 “이어도 흐라”나 “이어도 스나”가 마치 중세 몽골어의 “Yeketu khara-a, Yeketu sana-a(대본영을 파수하라! 대본영을 생각하라!)”란 뜻을 지닌 군가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을 필자에게 말한 바 있다. 현재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도 중세 몽골어의 “승리하자”나 “죽이자”라는 뜻을 지닌 중세몽골어로 보는 논문이 제출된 상태를 감안할 때(최기호, 「〈청산별곡〉의 형성 배경과 몽골 요소」 『문학한글』 14, 2000, pp.5-38 ; 상동, 「〈청산별곡〉의 형성과 몽골 요소」 『몽골학』 13, 2002, pp.1-31), 이후 이어도 해석에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해 본다.

46 옹구드(Önggüd)부에 대해서는 졸지, 『몽골 古代史 研究』, 서울: 해안, pp.221-227을 참조.

47 탐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뱃길에 대해서는 황경수,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탐라문화』 23, 2003을 참조.

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⁴⁸ 사실 목호를 왜구의 주력세력 하나로 보는 견해⁴⁹도 탐라가 지닌 상업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탐라의 위상은 『원사』 「탐라전」이 상징하고 있듯 대원올로스 때 가장 분명하고 독자적인 면이 강했다고 보인다.

3-2. 몽골의 14대 목마장 탐라

『원사』에도 대몽골(원)제국의 흥기는 “원나라는 삭방에서 일어났는데, 풍습이 말 타고 활 쏘는데 능하다. 그래서 활과 말의 힘으로 천하를 차지했다. 이는 만고에 없는 일이다.”⁵⁰라고 언급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원올로스 때 일본이나 남쪽으로 나가는 요충에 위치한 탐라는 제국의 14대 목장의 하나로 지정될 만큼 주요 전투마 생산기지이다.⁵¹ 따라서 몽골과 탐라의 관계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탐라의 조랑말에 대한 연구이다.

탐라에는 말의 사육과 관련된 고유한 어휘가 존재한다. 그것이 카치(Khachi, 哈赤)와 몰테우리이다. 필자는 카치(Khachi, 哈赤)란 “태정제 원년(A.D.1324) 10월 13일 태복경(太僕卿) 혼단사승(渾丹寺丞) 타카이(塔海, Takhai) 등이 상주하기를 탐라(耽羅)로부터 소 83마리가 이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곳의] 땅과 물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먼저] 카치(哈赤)에게 인도한 뒤 이들을 3살 난 암소로 바꾸어 낙인을 찍고 관아에 들이기를 허락하기를 바라나이다.”⁵², “哈赤牧放官羊...哈赤羊群”⁵³ 등의 기록을 참조할 때 말이나 소, 양에 이르기까지 목축을 전업으로 다루는 자란 총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오늘날 목동이나 목민, 목축업자를 뜻하는 말치(malchi, малч)나 말친(malchin, малчин)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선에서 『고려사』를 편찬할 때 탐라의 몽골 목인(牧人)들을 특정한 명칭 없이 목호(牧胡)라 표기한 것도 그 때문

⁴⁸ 이 같은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의 사례가 高橋公明의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과 고려」 『도서문화』 20, 2002, pp. 245-262 및 「日本における済州島史についての研究動向(16世紀以前)」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歴史的前提に関する学際的研究』 2003년 8월이다.

⁴⁹ 최영의 탐라 토벌 후 6년이 지난 다음 A.D.1380년 9월에 남원에서 벌어진 황산전투에 대해 高橋公明은 “황산벌의 왜구는 제주도의 목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高橋公明, 「中世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済州島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1987, p.191), 필자 역시 황산전투의 주력은 탐라목호의 잔존세력이라고 보이며, 그 지도자인 아기-바야토르는 A.D.1374년 갑인의 학살(甲寅之虐殺)을 목격한 어린 목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줄고, 「영락제와 제주도」 『제주도연구』 40, 2013, p.35). 왜구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秦野裕介, 「倭寇と海洋史観 -「倭寇」は「日本人」だったのか-」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紀要』 81, 2002, pp.77-102 ; 사에키고지(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위원회, 2009, pp.23-29 ; 近藤浩一, 「東アジア海域と倭寇 : 9世紀末の新羅海賊との比較史的考察を通して」 (京都産業大学論集人文科学系系列(Kyoto Sangyo University essays. Humanities series) 47, 2014, pp.130-136을 참조.

⁵⁰ 『元史』 卷100 「兵志·馬政」: “元起朔方, 俗善騎射, 因以弓馬之利取天下, 古或未有之”

⁵¹ 대몽골(원)제국의 馬政과 기마장비에 대해서는 吉原公平, 『蒙古馬政史』, 東京: 東學社, 1938 ; 郭庆昌, 「關於元代的馬政」 『历史教學』 1960-5 ; 札奇斯欽(Jagchid-Sechin), 「說元代的馬政」 『蒙古史論叢(下)』, 台北: 學海出版社, 1980 ; 波·少布, 「元朝の馬政制度」 『黑龍江民族叢刊』 1995-3 ; 王磊, 張法瑞, 「略論元代的馬政」 『古今農業』 2011-1 ; 줄고, 「대몽골(원)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 『제주도연구』 43, 2015를 참조.

⁵² 失名, 『大元馬政記』(台北廣文書局 1972年本): “泰定元年(A.D.1324)十月十三日, 太僕卿渾丹寺丞塔海等奏, 自耽羅起至牛八十三頭至此, 不伏水土, 乞以付哈赤, 令變換作三歲乳牛, 印烙入官, 奉旨准”

⁵³ 上同書

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제주도에서 말치기를 뜻하는 몰테우리는 A.D.13세기 탐라 몽골인들이 카치(哈赤) 가운데 말을 다루는 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보인다. 필자는 몰테우리가 ① 현대 몽골어에서 가축무리를 뜻하거나 모는 일을 토오바르(taguburi, туувар)라고 하고, ② 그것에 종사하는 목동을 토오바르치(taguburichi, тууварчин)나 토오바르친(taguburichi, тууварчин)라고 부른다는 것, ③ “몰리고 있는 가축”이란 뜻의 토오바린 말(тууварын мал), “내모는 길”을 뜻하는 토오바린 잠(тууварын зам) 등의 단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중세 몽골어인 “모리 타오오리(mori taguburi)”의 음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탐라의 조랑말에 대해서는 몽골말과의 유전적 혈통만이 비교 연구되어 있을 뿐 기마장비나 그에 따르는 어휘 등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하칸츨루(Hakanchuluu, 哈勘楚倫)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방언은 A.D.13세기 몽골 동부방언이며, 어휘도 고전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⁵⁴ 필자도 지게와 물항아리 사이에 두는 호야그(huyag: Mo.kuyag>хуяг)란 말처럼 그러한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필자는 탐라의 방언이나 말의 사육에 대해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조랑말의 뜻과 제주방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제주도연구』 28, 2005), 「대몽골(원)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제주도연구』 43, 2015)라는 논문을 통해 그 일면을 다룬 적이 있다. 이 결과 탐라에는 A.D.13~14세기 몽골의 어휘와 습속이 일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필자는 탐라 목장은 그 크기나 목초지의 성격에서 대량으로 말을 키우는 용도보다는 일종의 말 교배 등의 성격을 지닌 실험장과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탐라의 말을 일컫는 “조랑말(Jiruga mori>жороо морь)” 자체가 대몽골(원)제국 당시 명마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 바다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목마장이라는 점에서 해상무역에 필요한 마필을 제공받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아마 당시 14개 목마장의 크기나 그곳에서 전해지는 특산 말들을 세밀하게 비교연구하면 탐라목마장의 운영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4. 탐라의 다로가치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바다의 제패를 꿈꾼 코빌리카간은 탐라를 매우 중시했다. 탐라는 태평양에 뜬 유라시아의 대륙의 향기라고 불릴 만큼 코빌리카간의 섬이었다. 탐라는 A.D.1273년 6월 탐라국초토사가 설립된 직후에 행해진 인구조사에서 총수가 10,223명이란 사실⁵⁵에서도 입증되듯이 대원율로스의 직할지로 편제되었던 만큼 인구조사와 함께 각호마다 직업을 주어 세습시키는 제색호계(諸

⁵⁴ 哈勘楚倫, 「「HARA-BANG」의第二故郷」 『蒙古文化通訊(台北)』 8, 1990. 강영봉 교수는 제주어 가운데 “고렘, 고적, 구덕, 도곰, 도사리, 복닥, 수룩, 술, 우룩, 주레, 허벅, 호랑(가지)” 등 12개의 단어를 추출하고 있는데(강영봉,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 『탐라문화』 20, 1999, pp.1-16), 이 단어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중세 古形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⁵⁵ 『高麗史』 卷25 「世家·元宗」 15년(A.D.1274) 2월조: “又於至元十年十二月奉省旨, 濟州百姓一萬二百二十三人, 悉行供給”

色戶計)라는 경제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던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A.D.1374년 최영의 탐라 몽골세력 공격 때 획득한 금패(金牌)가 9개라는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탐라의 몽골지배층은 누구였고 또 그들은 바다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4-1. 탐라 다로가치(Darugachi)의 계보와 금패(金牌, Gergei)

대몽골(원)제국의 한 특징은 중상주의적 경제관에 따른 제색호계(諸色戶計)란 호적제도이다.⁵⁶ 세계 역사상 온 나라의 백성들을 민족, 종교, 직업을 기준으로 호적과 세금 및 부역제도를 만든 나라는 대몽골제국과 대원올로스가 유일하다. 제색호계란 몽골의 케식텐(Keshigten) 조직처럼 어떠한 호계(戶計)를 불문하고 일단 호적에 기입되면 대대로 상속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탈퇴할 수 없는 세습호계(世襲戶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색호계는 정복지역의 확장과 통치의 안정에 따라 서서히 구축되고 정비되어 나갔다.

탐라에 몽골의 통치기구가 처음 들어선 것은 삼별초(三別抄) 진압 이후인 A.D.1273년 6월에 설치된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이다. 그리고 A.D.1275년 탐라국군민도다로가치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耽羅總管府), A.D.1284년 탐라국군민안무사(耽羅國軍民安撫司), 1300년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 A.D.1301년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 A.D.1333년 탐라국군민안무사(耽羅國軍民安撫司), A.D.1362년 탐라만호부(耽羅萬戶府)로 명칭을 바꾸면서 다로가치를 파견해 통치했다.⁵⁷

탐라의 다로가치(Darugachi)⁵⁸는 군정과 민정을 동시에 장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다로가치[의 기록을]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⁵⁶ 諸色戶計에 대해서는 黃清連, 「元代戶計의劃分及其政治社會地位」 『台灣大學歷史學報』 2, 1974 ; 上同, 「元代諸色戶計의經濟地位」 『食貨』 6-3, 1976 ; 上同, 「元代戶計制度研究」(1977年 台灣大 碩士學位論文) ; 高樹林, 「元朝民戶計研究: 元朝「諸色戶計」研究之一」 『河北學刊』 1993-2 ; 上同, 「元朝民戶計研究: 元朝「諸色戶計」研究之二」 『河北學刊』 1993-5 ; 上同, 「元朝治煉戶計研究: 元朝「諸色戶計」研究之三」 『中國經濟史研究』 1994-3 ; 吳偉, 姜茂發, 「我國元代戶籍分類制度研究」 『寧夏社會科學』 2009-6 ; 趙龍, 「대몽골(원)제국의 백성분류체계」 『몽골학』 41, 2015를 참조.

⁵⁷ 탐라에 설치된 대원올로스의 통치기구에 대해서는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서울: 신서원, 2007, pp.288-292 및 배숙희, 「나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76, 2012, pp.97-105를 참조.

⁵⁸ 達魯花赤은 중세몽골어 Darugachi의 음역이지만 실제 몽골어에서 책임자를 부를 때 Daruga(да руга)라고 부른다. 達魯花赤이란 말은 『元史』나 元代의 碑文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高麗史』이다. 이에 반해 당대의 러시아에서는 다로가(Daruga)라든가 같은 뜻을 지닌 돌궐어 바스카(Baskak)이라고 불렀다(게오르기 베르나츠키(George Vernadsky) 지음, 김세웅 옮김, 『몽골제국과 러시아(The Mongols and Russia)』,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6, p.317). Daruga라는 표현은 실제 元代文獻에서도 적잖게 나온다. 기존의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耿世民, 「『大元肅州路也可達魯花赤世襲之碑』回鶻文部分譯釋」 『民族研究』 1979-1 ; 景愛, 「跋出土元代管水達達民戶達魯花赤之印」 『南開大學學報』 1979-2 ; 金太順, 「元代“管水達達民戶達魯花赤之印”」 『求是學刊』 1981-3 ; 潘修人, 「元代達魯花赤的職掌及爲政述論」 『內蒙古社會科學』 1993-6 ; 白濱, 史金波, 「『大元肅州路也可達魯花赤世襲之碑』考釋」 『民族研究』 1979-1 ; 楊志玖, 「釋“達魯花赤”」 『文史知識』 1985-8 ; 姚從吾, 「舊元史中達魯花赤初期的本義爲“宣差”說」 『姚從吾先生全集(5)』, 台北: 正中書局, 1981 ; 齊覺生, 「元代縣的“達魯花赤”與“縣尹”」 『國立政治大學學報』 23, 1971 ; 札奇斯欽, 「說元史中的“達魯花赤”」 『蒙古史論叢(上)』, 台北: 學海出版社, 1980 ; 湯開建, 「『大元肅州路也可達魯花赤世襲之碑』補釋」 『中國史研究』 1983-4 ; 羽友三郎, 「達魯花赤雜考」 『史學研究』 61, 1956 ; 原山仁子, 「元朝の達魯花赤について」 『史窓』 29, 1971 ; 池內功,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 『東洋學報』 18-2, 1929 ; 青山公亮, 「元朝の地方行政機構に關する一考察—とくに路・府・州縣の達魯花赤について—」 『台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研究年報』 6, 1940 ; 村上正二, 「元朝の達魯花赤に關する一考察」 『史學雜誌』 53-7, 1942를 참조.

년대(A.D)	이름	해당기록 및 출처
A.D.1273년 6월에 설치된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		
1273	失里伯(Silbi) ⁵⁹	지원 10년(1273) 失里伯을 소용대장군(昭勇大將軍)으로 삼고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使)로 임명했다. ⁶⁰
1273.6	불명	원나라가 탐라에 다로가치를 설치했다. ⁶¹
A.D.1275년 탐라국군민도다로가치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耽羅總管府)		
1275.8	遜攤(Suntan) ⁶²	제주 다로가치가 사자를 파견해 수졸(戍卒)을 보내달라고 독촉하자 왕이 김광원(金光遠) 등에게 명하여 4령(領)의 병력을 징발하게 했다. ⁶³
1276.8	塔刺赤(Tarchi, Tarachi)	원나라가 塔刺赤를 탐라의 다로가치로 임명해 보내면서 말 160필을 들여와 방목했다. ⁶⁴
1277.10	塔刺赤	탐라 다로가치인 塔刺赤가 원나라에 갔다. ⁶⁵
1278.2	塔刺赤	탐라 다로가치인 塔刺赤가 원나라에서 돌아오는 편에 황제가 왕에게 해동청(海東靑)을 내려주었다. ⁶⁶
1278.7	塔刺赤	또 탐라의 다로가치가 나주(羅州)·해남(海南) 등지에 잠치(Jamchi, 站赤)를 제멋대로 설치했는데 이는 어떤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황제께 잘 아뢰어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⁶⁷
1278.9	塔刺赤	탐라의 다로가치인 塔刺赤 ⁶⁸
1278.11	塔刺赤	무자일, 제주의 다로가치가 왕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⁶⁹
1279.11	塔刺赤	계해일, 제주의 다로가치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⁷⁰
1280.8	塔刺赤	계유일, 원경(元卿)이 원나라 중서성에서 보낸 지시공문을 휴대하고 귀국했는데, 그 내용은 탐라의 다로가치가 책임을 지고 소속 주철(鑄鐵)기술자를 시켜 전함을 건조하라는 것이었다. ⁷¹
1283.9	塔刺赤	을축일. 탐라의 다로가치인 塔刺赤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⁷²
A.D.1284년 탐라국군민안무사(耽羅國軍民安撫司)		
1284.2		원나라에서 제주의 다로가치를 [임명해] 보냈다. ⁷³
1284.6		원나라에서 闊梨帖木兒(Toli-Temör)로 하여금 군사를 인솔해 제주를 지키게 했다. ⁷⁴
1285.2		2월 무신일, 정전(正殿)에서 제주의 다로가치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⁷⁵
1287.11	塔刺兒(Talar)	11월 계사일, 원나라에서 塔刺兒를 보내 탐라의 다로가치로 삼았다. ⁷⁶
1289.8	塔刺兒	중서성(中書省)에서 [고려로] 공문을 보내 탐라안무사(耽羅安撫使) 코토타르(Khututar, 忽都塔兒)가 원나라로부터 귀국하는 편에, 청사(靑砂) 항아리와 분(盆)·병(瓶)을 [보내줄 것을]요구했다. ⁷⁷
1292.3	塔刺兒	우승(右丞) 아살(阿撒)이 와서 탐라 다로가치의 죄상을 조사했다. ⁷⁸
1293.9	阿撒(Asar)	원나라에서 탐라의 다로가치를 교지(交趾)로 유배 보내고, 우승(右丞) 아살(阿撒)로 [다로가치를] 대체했다. ⁷⁹
1294.11	阿撒	탐라의 다로가치에게 금실로 수놓은 옷 두 벌을 내려주었다. ⁸⁰
1296.2	阿撒	원나라에서 탐라의 목축에 관한 일로 단사관(斷事官, Jarguchi) 木兀赤(Mogulchi)를 보내 왔다. ⁸¹
1300년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		
A.D.1301년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		
1308.3	불명	원나라에서 제주에 다로가치를 파견했다. ⁸²
?	朴景亮(?~1320)	嘉義大夫・耽羅軍民萬戶府達魯花赤・高麗匡靖大夫・都僉議評理・上護軍, 朴景亮 ⁸³

1323.1	林淑(?~?)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이 제멋대로 임지를 이탈하므로 행정(行省)에 수감시켰다가 석방해 다시 임지로 가게 했다. ⁸⁴
?	李莊(?~?)	이름(諱)은 장(莊)이고 성은 이씨이며 본적은 태안이다. 대원(大元)에 들어가 탐라군민상만호(耽羅軍民上萬戶)를 제수 받았다. ⁸⁵
?	李英秀(?~?)	아들의 이름은 영수(英秀)인데 그 직책을 물려받았다. ⁸⁶
A.D.1333년 탐라국군민안무사(耽羅國軍民安撫司)		
1338.12	奴列你他 (Nigülesültei)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奴列你他(Nigülesültei)를 탐라국군민안무사사다로가치로 삼고 주석으로 만든 삼주호부(三珠虎符)를 내려주었다. ⁸⁷
A.D.1362년 탐라만호부(耽羅萬戶府)		
1362.10	文阿但不花 (文Adam Bukha, 혹 文Aadangga Bukha)	제주 사람들이 원나라에 예속되겠다고 요청하자 원나라에서 부추(副樞) 문아단불화(文阿但不花)를 탐라만호(耽羅萬戶)로 임명하였다. ⁸⁸

59 이 인명들의 라틴어 표기는 『몽골비사』의 한자음 표기법에 근거하여 복원한 것이다.

60 『元史』 卷133 「失里伯傳」: “十年(A.D.1273), 遷昭勇大將軍, 爲耽羅國招討使”

61 『高麗史』 卷27 「世家·元宗」14년(A.D.1273) 윤6월조: “(閏六月)元置達魯花赤于耽羅”

62 『元史』 卷8 「世祖本紀」 至元 12년(A.D.1295) 6월 戊辰條에 “以遜攤爲耽羅國達魯花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당시의 탐라다로가치는 손탄(遜攤)이며, 字體로 보아 몽골인으로 보인다.

63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1년(A.D.1275) 8월조: “[丁未]濟州達魯花赤遣使, 來督戍卒, 王令金光遠等, 調四領兵, 雖兼近侍, 悉皆僉發, 使將軍梁公勛等, 領行”

64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2년(A.D.1276) 8월조: “[八月]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匹來牧”

65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3년(A.D.1277) 冬10월조: “[冬十月 甲戌] 耽羅達魯花赤塔刺赤如元”

66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4년(A.D.1278) 2월조: “[庚午]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 帝賜王海東青”

67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4년(A.D.1278) 7월조: “又有耽羅達魯花赤, 於羅州·海南地面, 擅置站赤, 是何体例, 伏望善奏明降”

68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4년(A.D.1278) 9월조: “耽羅達魯花赤塔刺赤”

69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4년(A.D.1278) 11월조: “戊子, 濟州達魯花赤享王”

70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5년(A.D.1279) 11월조: “癸亥, 濟州達魯花赤享王”

71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6년(A.D.1280) 8월조: “癸酉, 元卿自元, 賫省旨來, 令耽羅達魯花赤, 自以其鐵匠, 修戰艦”

72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9년(A.D.1283) 9월조: “[乙丑]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

73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10년(A.D.1284) 2월조: “[己亥]元遣濟州達魯花赤來”

74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10년(A.D.1284) 6월조: “[六月庚午]元遣閭梨帖木兒領兵來, 戍濟州”

75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11년(A.D.1285) 2월조: “二月戊申, 宴濟州達魯花赤于正殿”

76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13년(A.D.1287) 11월조: “十一月癸巳, 元遣塔刺兒來, 爲耽羅達魯花赤”

77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15년(A.D.1289) 8월조: “[戊午]耽羅安撫使忽都塔兒還自元, 中書省牒求青砂甕·盆·瓶”

78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18년(A.D.1292) 3월조: “[壬戌]右丞阿撒來, 按耽羅達魯花赤罪”

79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19년(A.D.1293) 9월조: “[乙丑]元流耽羅達魯花赤於交趾, 以右丞阿撒代之”

80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20년(A.D.1294) 11월조: “[乙卯]賜耽羅達魯花赤, 織金衣二襲”

81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22년(A.D.1296) 2월조: “[乙丑]元以耽羅牧畜事, 遣斷事官木兀赤來”

82 『高麗史』 卷28 「世家·忠烈王」 34년(A.D.1308) 3월조: “[壬戌]元遣濟州達魯花赤來”

83 이 명칭은 島田翰의 “刻宋本寒山寺詩集序”에 수록된 것으로 해당부분을 전사하면 다음과 같다. 『刻宋本寒山寺詩集序(島田翰)』: “又以拾得加於豐干上元時, 有高麗覆宋本, 蓋據宋本東阜寺本, 所改行上梓, 卷尾題云, 嘉議大夫, 耽羅軍民萬戶府達魯花赤, 高麗巨淸大夫, 都僉議評理, 上護軍朴景亮刊行”(杜浩祥 主編, 『寒山寺志』(中国佛史志汇刊 第一輯 第43-1册), 台北: 明文書局, 1980, p.213).

84 『高麗史』 卷28 「世家·忠肅王」 10년(A.D.1323) 1월조: “[十年春正月]濟州萬戶林淑擅自離任, 囚于行省, 有復之任”

위의 도표는 대원올로스가 A.D.1273년 윤6월 삼별초의 진압 직후 탐라에 다로가치를 파견하여 직접통치에 임했고 그것이 제국의 말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몽골(원)제국의 직제나 호적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습이 원칙이다. 또 대원올로스는 역사상 마필의 관리에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왕조이며 탐라의 경우 A.D.1296년 2월 목축에 관한 일로 단사관(斷事官, Jarguchi)이 파견될 정도이다. 따라서 말의 사육에 관련된 양마호(養馬戶)도 세밀하게 조직되었고, “천호와 백호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직을 이어간다.”⁸⁹처럼 세습되었다.

다로가치 역시 알동천호소(幹東千戶所) 금패천호(金牌千戶) 겸 다로가치(達魯花赤)를 겸하고 있는 태조 이성계의 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세습이 원칙이다.⁹⁰ 탐라의 역대 다로가치에서 각 송본한산사시집서(刻宋本寒山寺詩集序)나 이승소(李承召, A.D.1422~1484)의 『삼탄집(三灘集)』에 “嘉義大夫、耽羅軍民萬戶府達魯花赤、高麗匡靖大夫、都僉議評理、上護軍、朴景亮”이나 “耽羅軍民上萬戶 李莊”이란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탐라군민만호부와 연관된 인물들로 보인다. 이 가운데 박경량(朴景亮, ?-A.D.1320)⁹¹은 고려인임이 분명하지만 이장(李莊)은 고려인인지 몽골인인지 판명할 수 없다.

탐라의 다로가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장(李莊)과 실리백(失里伯, Silbi)이란 두 가계(家系)인데 기록상으로 미루어 실리백의 가계가 탐라 다로가치의 적통(嫡統)이라고 보인다. 또 『고려사』나 『원사』의 기록을 종합할 경우 탐라의 마정(馬政)이나 군정, 바닷길 등을 책임지는 인물의 가계가 ① 怯古里禿(Kegültü), ② 莫刺合(Murakha), ③ 失里伯(Silbi), ④ 塔刺赤(Tarchi), ⑤ 奴列你他(Nigülesültei)처럼 나타나고 있다.⁹² 그리고 니굴레수테이(Nigülesültei)의 경우 그 어머니가

85 李承召, 『三灘集』 卷4 「次泰安東軒韻」: “(自註)有諱莊, 姓李氏, 籍泰安, 入大元, 授耽羅軍民上萬戶”. 배숙희는 尹昌鉉의 『朝鮮氏族統譜』(漢城圖書株式會社, 1924)에 수록된 “泰安 이씨의 시조” 항목의 내용을 근거로 李莊을 成宗 大德 5年(1301)의 탐라군민만호부 혹은 탐라군민총관부의 만호로 간주하고 있다(배숙희, 「元나라의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p.106).

86 李承召, 『三灘集』 卷4 「次泰安東軒韻」: “子諱英秀嗣職”

87 『元史』 卷38 「順帝本紀」: “[四年(A.D.1338) 十二月]以奴列你他(Nigülesültei)代其父塔刺赤爲耽羅國軍民安撫使司達魯花赤, 錫三珠虎符”

88 『高麗史』 卷40 「世家·恭愍王」 11년(A.D.1362) 10월조: “[冬十月]濟州請隸于元, 元以副樞文阿但不花爲耽羅萬戶”

89 『元史』 卷100 「馬政」: “有千戶·百戶, 父子相承任事”

90 이성계의 가계의 천호 및 다로가치의 승계에 대해서는 『太祖實錄』 卷1 「總序」를 참조. 참고로 이성계와 연합한 여진인 李豆蘭도 여진의 세습 금패천호(女直金牌) 집안이다(『高麗史』 卷116 「李豆蘭傳」: “李豆蘭初名豆蘭帖木兒女直金牌千戶阿羅不花之子, 襲世職爲千戶”).

91 박경량은 抄軍奴인 祿大의 아들이며, 충선왕비인 趙妃의 妹壻이다. 충선왕이 즉위하자, A.D.1303년(충렬왕 29) 충선왕이 모함을 받았을 때 이를 지지한 공으로 특별히 등용되었고, 이때 일가친척까지 모두 양민이 되었다. 보다시리-베키(Buddha-Shiri Beki, 薊國大長公主)가 趙妃를 질투, 대원올로스에 모함함으로써 대원올로스에서 사신을 보내 趙妃를 징계할 때 함께 대원올로스에 잡혀가고 재산도 몰수되었다. 뒤에 대원올로스에서 돌아와 軍簿判書密直副使가 되었다. A.D.1310년(충선왕 2) 僉議評理로서 왕을 따라 대원올로스로 갔다. 이때 충선왕은 대원올로스에 있으면서 傳旨로 정치를 하였는데, 당시 燕京에 있던 金深李思溫 등이 왕이 오랫동안 대원올로스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박경량崔誠之權漢功 등의 심복 때문이라고 徽政院에 무고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 충선왕 때 富春君에 봉하여졌고, 충숙왕 때 다시 興禮君에 봉하여졌다. 충숙왕 7년인 A.D.1320년 上王(忠宣王)이 江南에 유배되자 遂安君 李連松 등과 함께 시종하였다. 일행이 金山寺에 이르렀을 때 충선왕을 모함하던 伯顔禿古思(Bayan Tögüs)의 간계로 뒤쫓아 온 대간의 사신에 의하여 왕이 다시 소환되었다. 이때 시종하던 대부분의 신하가 도망쳐버리자 그는 충선왕이 무사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李連松과 함께 자살하였다.

92 관련기록을 모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 「世家·忠烈王」의 기록: ① “(A.D.1276.8)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來牧”, ② “(A.D.1277.10)耽羅達魯花赤塔刺赤如元”, ③ “(A.D.1278.2)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 ④ “(A.D.1278.9)耽羅達魯花赤塔刺赤奏”, ⑤ “(A.D.1281.9)塔刺赤於全羅…皆爲脫脫禾孫”, ⑥ “(A.D.1283.9)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塔刺赤享王, 獻二馬, 求婚, 以內侍鄭孚女妻之”; 『元史』의 기록: ① “失里伯(Silbi), 蒙古人, 祖怯古里禿(Kegültü),

정부(鄭孚)의 딸이라고 보이지만,⁹³ 이 인물과 탐라상군만호 이장(李莊)과의 관계는 기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

『고려사』에는 대원올로스에서 고려의 군신들에게 내려준 금패(金牌)와 은패(銀牌)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사』는 세계에서 몽골의 금패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을 수록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 금패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려사』에 수록된 금패 관련 기록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연대	수여자 이름	패의종류	출전
명케카간(Möngke Khagan, A.D.1251~1259)				
1		李峴	金牌	高麗史 ⁹⁴
2		閔僞	金牌	高麗史 ⁹⁵
코빌라이카간(Khubilai Khagan, A.D.1260~1294)				
3	1270.2	崔坦·李延齡	金牌	高麗史 ⁹⁶
		玄孝哲·韓愼	銀牌	
4	1276.10	金方慶	虎頭金牌	高麗史 ⁹⁷
5	1279.2	鄭公	海青圓牌	高麗史 ⁹⁸
6	1280.12	충렬왕	虎頭金牌와 印信	高麗史 ⁹⁹
		金方慶, 朴球, 金周鼎	虎頭金牌와 印信	
		趙仁規	金牌 및 印	
		朴之亮 等 10人,	金牌 및 印	
		趙朴 等 10人,	銀牌 및 印	
7	1282.8	高宗秀	金牌	高麗史 ¹⁰⁰
8	1287.6	韓希愈	虎頭牌, 雙珠金牌	高麗史 ¹⁰¹
9	1288.1	朴之亮·羅裕·韓希愈·張舜龍	雙珠金牌	高麗史 ¹⁰²
		百戶 以下の 軍士	銀牌	
10	1288	羅裕	金牌, 虎頭牌, 雙珠金牌	高麗史 ¹⁰³
11	1291.9	印候, 宋玠	金牌	高麗史 ¹⁰⁴
12	1293	高宗秀	金牌	高麗史 ¹⁰⁵

從太祖經略西夏有功，又隸諸王朮赤台(Jürchedei)，領寶兒赤(Ba'urchi)，與金人戰，歿于陣，父莫刺合(Murakha)嗣，從征阿藍答兒(Anandar)亦有功，世祖賜以白金五十兩，失里伯世其職，由樞密院斷事官爲河南行中書省斷事官，至元七年(A.D.1270)，佩金虎符，引水軍四萬攻襄陽，八年(A.D.1271)七月，宋將范文虎來援，失里伯敗其軍，進圍樊城，先登，戰于鹿門，與諸軍擒其將張貴，十年(A.D.1273)，遷昭勇大將軍，爲耽羅國招討使，奉旨入見上都，改管軍萬戶，領襄陽諸路新軍，從丞相伯顏(Bayan)等渡江，破獨松關，下長興，取湖州，行安撫司事，十四年(A.D.1277)，授湖州總管，進鎮國上將軍，淮西道宣慰使，十八年(A.D.1281)卒，子塔刺赤(Tarchi)，曲靖等路宣慰使(『元史』卷133「失里伯傳」)，② “[二十一年(A.D.1284)春正月]立耽羅國安撫司…[秋七月]江淮行省以占城所遣太半達連紮赴闕，及其地圖來上，塔刺赤言，“頭輦哥國王出戍高麗，調旺速等所部軍四百以往，今頭輦哥(Terigüleggi)已回，留軍耽羅，去其妻子已久，宜令他軍更戍”，伯顏等議，以高麗軍千人屯耽羅，其留戍四百人縱之還家，從之”(『元史』卷13「世祖本紀」)，③ “[二十九年(A.D.1292)八月]壬子，詔塔刺赤、程鵬飛討黃聖許，劉國傑駐馬軍戍守，…高麗、女直界首雙城告饑，敕高麗王於海運內以粟賑之”(『元史』卷17「世祖本紀」)，④ “[四年(A.D.1338)十二月]以奴列你他(Nigülestülei)代其父塔刺赤爲耽羅國軍民安撫使司達魯花赤，錫三珠虎符”(『元史』卷38「順帝本紀」)

⁹³ 니굴레수테이(Nigülestülei, нигүүлсэлтэй): “동정해야 할, 애처롭다, 슬프다, 자비심이 깊다.”는 불교식 이름이다. 이 인물의 어머니는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9년(A.D.1283)9월조의 “타라치가 왕을 위해 잔치를 열고는 말 두 필을 바치며 혼자를 구하므로 내시(內侍) 정부(鄭孚)의 딸을 처로 삼게 했다([壬申]塔刺赤享王，獻二馬，求婚，以內侍鄭孚女，妻之)”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정부(鄭孚)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

⁹⁴ 『高麗史』卷130「李峴(?~A.D.1254)傳」: “轉官至樞密副使，使于蒙古，被留二年，說也窟曰，“我國都介于海島，貢賦皆出

대몽골(원)제국의 금패는 일반적으로 파이자(牌子, paiza)나 게르게이(Gergei)라고 불리는데 군대의 징발이나 성지의 전달, 관료권위의 보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금패에는 몽골어나 거란어, 팍파자(字) 몽골어, 한자 등으로 “하늘이 내린 칭기스칸의 성지(天賜成吉思皇帝聖旨 : Tenggeri-eče soyurgagsan Činggis Khagan-u jarlig)”, “영원한 하늘의 힘으로(Möngke Tenggeri-yin küchün-dür)”, “대칸의 위광으로(Khagan abaga-yin suu-tur)”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¹⁰⁶

州郡，若於秋前奄襲州郡，都人必窘，遂受金牌，導也窟而來，隨蒙古兵諭降諸城”

95 『高麗史』卷129 「崔瑄(미상~A.D.1258)傳」: “有閔僞者，自蒙古逃還，以所佩金牌獻瑄且曰，在蒙古時，聞大臣密議，今後不復東伐，瑄悅與第舍米穀衣服，拜爲散員。”

96 『高麗史』卷26 「世家·元宗」 A.D.1270년 2월조: “丁丑，崔坦請蒙古兵三千來鎮西京，帝賜崔坦·李延齡金牌，玄孝哲·韓愼銀牌，有差，詔令內屬改號東寧府，畫慈悲嶺爲界”；『高麗史』卷130 「崔坦傳」: “帝賜坦及延齡金牌孝哲愼銀牌詔令內屬改號東寧府畫慈悲嶺爲界以坦等爲總管。”

97 『高麗史』卷28 「世家·忠烈王」 2년(A.D.1276) 10월조: “戊辰，金方慶受虎頭金牌，仍齋詔書還，王出城以迎”；『高麗史』卷104 「金方慶傳」: “金宰相有軍功賜虎頭金牌，東人帶金符自方慶始 … 又於珍島耽羅日本隨官軍致討果捷有功宣授虎頭牌獎諭答勞”

98 『高麗史』卷29 「世家·忠烈王」 5년(A.D.1279) 2월조: “中郎將鄭公還自元，帝賜王海青圓牌”

99 『高麗史』卷29 「世家·忠烈王」 6년(A.D.1280) 12월조: “辛卯趙仁規印侯還自元，王迎詔于城西門外，帝冊王爲開府儀同三司·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賜印信，又以金方慶爲中奉大夫·管領高麗軍都元帥，知密直司事朴球·金周鼎爲昭勇大將軍·左右副都統，並賜虎頭金牌印信，趙仁規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兼脫脫不孫，賜金牌印信，朴之亮等十人爲武德將軍·管軍千戶，賜金牌及印，趙朴等十人爲昭信校尉·管軍總把，賜銀牌及印，金仲成等二十人爲忠顯校尉·管軍總把”；『高麗史』卷104 「金周鼎傳」: “元將征日本，王以周鼎有將略，拜萬戶上書中書省請賜虎頭牌，乃授昭勇大將軍右副都統賜虎頭金牌及印”；『高麗史』卷104 「趙仁規傳」: “元以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脫脫不孫賜金牌，王教曰，仁規當東征時，能以國家事奏達宸所天子，授寡人中書左丞相，又賜群臣都元帥萬戶千戶金銀牌，皆其功也”；『高麗史』卷103 「趙冲傳」: “方慶之討珍島也白王起忤爲將軍，又從方慶征日本有功，後元復征日本，忠烈請于帝授昭信校尉管軍總把賜銀牌及印”

100 『高麗史』卷29 「世家·忠烈王」 8년(A.D.1282) 8월조: “乙未，大將軍印侯，還自元，帝以內僚高宗秀爲巡馬千戶，仍賜金牌，王嬖宗秀表請故也”

101 『高麗史』卷29 「世家·忠烈王」 13년(A.D.1287) 6월조: “己巳，閱兵訖親祭纛于宮門，以金周鼎虎頭牌賜朴之亮，爲左翼萬戶，以朴球虎頭牌賜羅裕，爲中翼副萬戶”；『高麗史』卷104 「韓希愈傳」: “忠烈時拜副知密直司事，王聞乃顏大叛，將助征，賜希愈虎頭牌爲右翼萬戶，將兵啓行，聞帝已擒乃顏，罷兵還，後帝賜雙珠金牌，授帳前萬戶”

102 『高麗史』卷29 「世家·忠烈王」 14년(A.D.1288) 1월조: “丙午，帝賜萬戶·千戶·百戶，金銀牌雙珠金牌，四分賜朴之亮·羅裕·韓希愈·張舜龍，銀牌分賜百戶以下軍士”；『高麗史節要』卷21 「世家·忠烈王」 14년(A.D.1288): “(元至元二十五年春正月)將軍張舜龍還自元，帝賜萬戶千戶百戶金銀牌·雙珠金牌，四分賜朴之亮·羅裕·韓希愈·張舜龍，銀牌分賜百戶以下軍士”；『高麗史』卷123 「張舜龍傳」: “張舜龍本回回人，初名三哥，父卿事元世祖爲必闐赤，舜龍以齊國公主怯哈口來，授郎將累遷將軍，改今姓名 … 元授宣武將軍鎮邊管軍總管征東行中書省都鎮撫，王遣舜龍如元獻女，求買公主眞珠衣，帝賜舜龍雙珠金牌”

103 『高麗史』卷104 「羅裕傳」: “又從方慶與元將忽敦等征日本，遷鷹揚軍大護軍，帝賜金牌授武德將軍管高麗軍千戶以賞軍功 … [A.D.1287.6]王之請親征乃顏也，賜裕虎頭牌爲中翼副萬戶，[1288.5]及班師策爲一等功臣，賜錄券田一百結減獲二十口，授明威將軍，帝賜雙珠金牌。”

104 『高麗史』卷29 「世家·忠烈王」 17년(A.D.1291) 9월조: “己亥，元遣洪重慶，授王爲征東行中書省左丞相，以印侯鎮邊萬戶府達魯花赤，宋玠爲宣武將軍鎮邊萬戶，劉碩爲忠顯校尉管軍千戶，皆賜金牌”；『高麗史』卷 125 「宋玠傳」: “十七年(A.D.1291)，元授宣武將軍鎮邊萬戶，賜金牌”

105 『高麗史』卷123 「高宗秀傳」: “王表請于帝，授武略將軍巡馬千戶，賜金牌，後加王京等處管軍萬戶府萬戶，賜三珠虎符”

106 대몽골(원)제국의 牌子에 대해서는 賈敬顏, 「成吉思汗御署符牌」『民族歷史文化萃要』,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90 ; 喬今同, 「元代的符牌」『考古』1980-6 ; 蔡美彪, 「元代圓牌兩種之考釋」『歷史研究』1980-4 ; 蔡美彪, 「蒙古字元牌兩種音釋」『內陸亞洲歷史文化研究』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6, pp.14-20 ; 丁毅博, 「元代牌符考」『中華文史論叢』1963-4 ; 包祥, 「新近在蒙古發見的元代八思巴字蒙古語金質聖牌」『內蒙古大學學報』2000-4, pp.30-32 ; 陳永志, 「蒙元時期的牌符」『內蒙古大學學報』2003-1, pp.30-37 ; 箭內互, 「元朝牌符考」『蒙古史研究』, 東京: 刀江書院, 1930, pp.839-899 ; 羽田亨, 「蒙古驛傳考」『羽田博士史學論文集(上)』, 京都: 東洋史研究會, 1957 ; 羽田亨, 「元朝の海青牌」『考古學論叢』2, 1930 ; 榎一雄, 「海東牌のアラビヤ文學銘文」『考古學雜誌』33-7, 1944 ; F.W.Cleaves, “Daru ya and gerege”, HJAS, XVI, 1953, pp.237-259 ; I.de Rachewiltz, Papal Envoys to the Great Khans, London: Faber & Faber, 1971, ; N.Js.Munkuyev, “A New Mongolian P'ai-ts'u from Simperopol”, AOH, 31:2, 1977, pp.185-215 ;

고려시대 몽골의 금패수여 시기는 일본 정벌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수는 대략 30개를 해야린다. 고려는 대원올로스에서 내려주는 금패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 과욕을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였다.¹⁰⁷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탐라의 금패이다. 최영(崔瑩)은 A.D.1374년 9월 탐라를 공격한 뒤 다음의 기록처럼 9개의 금패와 10개의 은패를 습득하고 있다.

적 괴수의 재산은 모조리 몰수하고 모든 계약 문건과 금·은으로 만든 패(牌), 도장 및 말 등록부 역시 모두 몰수할 것인바 이것을 얻은 자에게는 상을 준다. ... 또 금패(金牌) 9, 은패 10, 도장 30, 말 1천 필을 노획하였다. 도장은 만호(萬戶), 안무사(安撫使), 성주(星主), 왕자(王子)에게 주고 말은 여러 고을에 나눠 주어 키우게 하였다.¹⁰⁸

대원올로스 시대 탐라의 몽골인들이나 지배층에게 하사한 금패는 이곳의 몽골주둔군이 A.D.1274년 일본정벌 이후에 주둔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직할령 편입 이후에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최영의 몽골세력 공격 때 획득한 금패 9개나 은패 10개는 대원올로스에서 몽골인들에게 하사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금패의 숫자는 이곳의 몽골세력이 단순히 목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지만 탐라의 본래 기능인 상업기항지로서의 역할, 즉 기항 및 내용물 확인이나 세금징수 등을 관장하는 자들에게 수여된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최영은 도장 30개를 몽골들에게서 빼앗았는데, 원래 A.D.13세기 때 몽골에서 도장을 의미하는 탐가(Tamaga>тамга)는 상업세와 동일시 될 정도로 세금징

Marco Polo, *The Travels of Marco Polo*, the Complete Yule-Cordier edition, vol. I,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 1992, pp.351-354, note.2 ; Yang Hye-suk, "The Foreign Policy of the Great Mongol State and the Paiza", *The Image of Mongolia in European and Asian Travel Literature*, МУ-ын ШУА, МУИС, Eurasia-Pacific Union, 2006, pp.101-108 ; О.Латтимор, 'Монгол гүрний үеийн эрх мэдллийн пайзны асуудал буюу байдал'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ч эрдэмтний II их хурал』, I боть, УБ, 1973, т.241-242 ; Х.Пэрлээ, 'Монголын түүх судлах сурвалжийн нэгэн нь пайз мөн' 『Түүхийн судлал』 Т.ХЦ, F.7, УБ, 1976, т.90-99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үүд' II, УБ, 2001, т.312-323-д багтан дахин нийтлэв.) ; Ё.Жанчив, 'Сонгодог монгол бичгийн өмнөх үеийн дурсгалууд', УБ, 2005, т.79-80 ; Доржи Банзаров, 'Пайзж или металлические дощечки с повелениями монгольских ханов'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Москва, 1955, с.80-90 ; Ц.Ж.Жамцарано, 'Пайзы у монгол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писки Вост. отд. Русск. археол. общ-ва』 1914, т.ХХII, с.155-159 ; М.Г.Крамаровский, 'Символь власти. Золотоордынские пайцзы как феномен офиц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Золото Чингисидов: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золотой орды』, СПб, 2001, с.72-79 등을 참조.

¹⁰⁷ 이에 대한 걱정과 여론을 잘 보여주는 것이 『高麗史』 卷29 『世家·忠烈王』 14년(A.D.1288) 2월條의 “중랑장(中郎將) 정지연(鄭之衍)이 금패(金牌)와 은패(銀牌)를 받아가지고 원나라로부터 돌아오자 당시 여론이, “우리나라는 백성은 있어도 군사는 없는 터에 만호(萬戶)·천호(千戶)에게 줄 금·은패를 그렇게나 많이 요청하였으니, 만일 원나라에 사변이 생겨 금·은패의 수대로 군사를 징발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무인일. 중랑장(中郎將) 정지연(鄭之衍)이 금패(金牌)와 은패(銀牌)를 받아가지고 원나라로부터 돌아오자 당시 여론이, “우리나라는 백성은 있어도 군사는 없는 터에 만호(萬戶)·천호(千戶)에게 줄 금·은패를 그렇게나 많이 요청하였으니, 만일 원나라에 사변이 생겨 금·은패의 수대로 군사를 징발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戊寅, 中郎將鄭之衍齎金銀牌還自元, 時議曰, 本國有民無軍, 而多請萬戶千戶金銀牌, 若朝廷有事, 以牌數徵兵, 則若之何).”라는 기록이다. 『高麗史節要』 卷21 충렬왕 14년조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元至元二十五年, 二月]中郎將鄭之衍, 齎金銀牌, 還自元, 時議曰, 本國有民無軍, 而多請萬戶千戶金銀牌, 若朝廷有事, 以牌數徵兵, 則若之何”).

¹⁰⁸ 『高麗史』 卷113 「崔瑩傳」: “賊魁家產悉輸官, 且得公私契券金銀牌印信馬籍, 亦皆輸官, 得者有賞 … 得金牌九銀牌十印信三十馬一千匹, 印信付萬戶安撫使星主王子, 馬分養于諸州卒”

수의 기능을 상징하고 있다.

4-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와 이회(李薈)

태종은 A.D.1402년에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만들었는데, 탐라가 선명하고 크게 부각된 이 지도에 표기된 지명들은 현재 분광조사결과 5000개가 확인되었다. 이 지도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연구논저가 나와 있다.¹⁰⁹ 그런데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다. 이 세계지도는 조선 초기 국가 최고의 의결기관인 의정부의 최고위급 관원들이 동원되어 만든 것인데, 권근(權近)은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제작 동기를 밝힌 발문을 썼다.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에서 밖으로 사해에 닿아 몇 천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요약하여 두어 자 되는 폭(幅)에다 그리면 자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를 만든 것이 대개 소략한데, 오직 오문(吳門),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는 매우 상세하게 갖추었으며, 역대 제왕의 국도연혁(國都沿革)은 천태승(天台僧)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에 갖추어 실렸다. 건문(建文) 4년(A.D.1402, 태종2) 여름에 좌정승 상락(上洛) 김공 사형(士衡)·우정승 단양(丹陽) 이공 무(茂)가 정사를 보살피는 여가에 이 지도를 참고, 연구하여 검상(檢詳) 이회를 시켜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게 한 다음에 합하여 한 지도를 만들었다. 요수(遼水) 동쪽과 우리나라 지역은 이택민의 광피도에도 또한 많이 결락되었으므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더 넓히고 일본(日本) 지도까지 붙여 새 지도를 만드니, 조리가 있고 볼 만하여 참으로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저 지도를 보고서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도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되는 것이니, 두 공이 이 지도에 정성을 다한 데에서도 그 규모와 국량의 방대함을 알 수 있다. 근(近)은 변변치 못한 재주로 참찬(參贊)이 되어 두 공의 뒤를 따라 이 지도가 완성됨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매우 다행하게 여기는 바다. 평소 책에서 강구하여 보고자 하던 나의 뜻을 이미 이루었고, 또 내가 후일 물러가 시골에 있으면서 누워서 유람하는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하며 이 말을 지도 아래 쓴다. 이해 가을 8월 일 기록한다.¹¹⁰

¹⁰⁹ 현재까지 나온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宮紀子, 『モンゴル帝國が生んだ世界圖』, 東京: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07;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서울: 창비, 2011; 村岡倫, 「龍谷大学所蔵『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から見るユーラシア世界」 『京都高等学校社会科学部研究会2011年度春季総会・研究大会』 2011; 上同, 「龍谷大学所蔵『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に見えるモンゴル高原の諸都市」 『第10回国際モンゴル学会議』 2011; 조지형,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아프리카: 비교사적 검토」 『이화사학연구』 45, 2012; 백옥경,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산악(山嶽) 표기에 나타난 제인식(諸認識)」 『이화사학연구』 45, 2012; 왕치엔진(汪前進),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제작과 조선 태종의 천도 및 지방행정제도 개혁과의 관계」 『이화사학연구』 45, 2012; 최창모,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년)의 제작 목적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관한 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1집, 2013 등을 참조.

¹¹⁰ 권근, 『陽村集』 卷22 「歷代帝王混一疆理圖誌」: “天下至廣也, 內自中國, 外薄四海, 不知其幾千萬里也, 約而圖之於數尺之幅, 其致詳難矣, 故爲圖者率皆疎略, 惟吳門李澤民聲教廣被圖頗爲詳備, 而歷代帝王國都沿革, 則天台僧清濬混一疆理圖備載焉, 建文四年夏, 左政丞上洛金公士衡, 右政丞丹陽李公茂, 燮理之暇, 參究是圖, 命檢詳李薈更加詳校, 合爲一圖, 其遼水

이 지도는 권근(權近)의 발문을 보면 김사형(金士衡)과 이무(李茂)는 지도 제작을 기획하였고, 실무는 이회(李薈)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회가 그 전에 조선팔도도(朝鮮八道圖)를 제작한 것을 감안하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실제 주역은 이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지도의 제작자가 가계적으로 탐라와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회의 가계는 외손인 이승소(李承召)의 문집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름(諱)은 장(莊)이고 성은 이씨이며 본적은 태안이다. 대원(大元)에 들어가 탐라군민상만호(耽羅軍民上萬戶)를 제수 받았다. 아들의 이름은 영수(英秀)인데 그 직책을 물려받았다. 원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고려)에 돌아와 개성소호인 경(卿)을 낳았다. 소윤(少尹)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이며 사간원(司諫院)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인 회(薈)를 낳았다. 그는 시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일찍이 우리 왕세자를 모시고 [A.D.1394년] 명나라에 들어가 금릉(金陵: 南京)에서 영락황제를 만났다. 황제가 보살고시(菩薩古詩: 菩薩故事로 이루어진 古詩)를 지어 보이며, 주위에 화답시를 지어 올릴 것을 명하였다. 운(韻)이 강해 일행들이 모두 곤혹하여 감히 붓을 들지 못하였는데, 사간이 즉시 시를 지어 올리니 황제가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겼다. 사간(司諫) [이회] 검교(檢校) 한성윤(漢城尹) 이맹운(李孟雲)의 딸에게 장가들어 우리 어머니를 낳으셨으므로 이에 일러두는 바이다.¹¹¹

원래 고려 말의 정치상황에서 이성계는 돌아온 몽골파 세력의 우두머리이고 이인임(李仁任, ?~A.D.1388)은 고려내 몽골세력의 우두머리였다. 그리고 조선의 건국 후 친몽세력들은 모두 이성계 주변에 모여들었고 이성계의 사후에는 태종 이방원(李芳遠, A.D.1367~1422)의 주변에 포진했다. 바로 『삼탄집』의 기록은 그런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의 선조인 이장(李莊)은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이 몽골인이거나 혹은 탐라목호 세력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인물이다.

以東及本國疆域，澤民之圖亦多闕略，方特增廣本國地圖，而附以日本，勒成新圖，井然可觀，誠可以不出戶而知天下也，夫觀圖籍而知地域之遐邇，亦爲治之一助也，二公所以拳拳於此圖者，其規模局量之大可知矣，近以不才，承乏參贊，以從二公之後，樂觀此圖之成而深幸之，既償吾平日講求方冊而欲觀之志，又喜吾他日退處環堵之中而得遂其卧遊之志也，故書此于圖之下云，是年秋八月日，誌”

111 李承召, 『三灘集』 卷4 「次泰安東軒韻」: “(自註)有諱莊, 姓李氏, 籍泰安, 入大元, 授耽羅軍民上萬戶, 子諱英秀嗣職, 元亡, 歸于我朝, 生開城少戶諱卿, 少尹生通政大夫司諫院左司諫, 大夫諱薈, 以詩文鳴世, 嘗侍王世子, 入見永樂皇帝于金陵, 帝出菩薩古詩, 命賡進, 韻強, 在行者, 皆錯愕莫敢操筆, 司諫即應製以進, 帝奇其能, 司諫娶檢校漢城尹李孟雲女, 生我慈親故云”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채바다 삼별초 뱃길탐험대장

토 론 문

채바다 삼별초 뱃길탐험대장

소설가 이청준은 “이어도”를 이렇게 쓰고 있다

긴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제주 좀녀들이 잠수질(물질) 갈 때 부르는 타령조 歌樂들을 담아 내고 있다.

좀녀들은 一葉片舟와 다름 없는 작은 風船에 몸을 의지하여 노를 저어 이어도를 찾아 갔다. 노 하나에 목숨이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이 메달려 젖는다. 노를 젓다 보면 힘이 빠져든다. 그러나 온 힘을 다 해서 노를 저어가야 한다. 소라 전복이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 간다. 보물이 없어도 그만이다. 오로지 그곳에는 그녀들의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이 좀녀들의 本郷이다.

이렇게 좀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입에서 歌樂이 터져 나온다.이 가락이 터져 나오면 어디서 솟는지 저절로 흥이 나고 힘이 솟는다. 고달픔을 잊게 된다. 그 歌詞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日常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매우 순발력이 있고 郎興的이다. 놀라운것은 長短에 맞추어 한결같이 音의 높 낮음에 숨 고르며 반복하며 부르고 있다.

이여도 사나 이여도사 이여도 사나

요넬 젓엉 내 어딜 가리 진도바당 혼 골로 가게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이여도 사나 이여도사 이여도 사나 히

물 때 좀좀 늦어 진다. 어서 저어라, 어서 저어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도사나 히”, “쳐라쳐라 어기야 쳐라”

이 가사속에는 꿈과 희망들이 여실히 보인다.생활에서 고통과 餘恨들을 바다 한 가운데서 씻어 내고자 하고 있다. 멍들었던 가슴들을 풀어 내고 있다.

좀녀들만이 숨겨논 恨의 스민 歌樂이다. 그러나 좀녀들에게는 숨겨둔 낙원이 있다. 그곳이 이어도이다. 그 가락들을 토 해 내면서 바다로 바다로 이어가고 있다. 生命줄인양 이어서, 또 이어 가고 있다.

그녀들은 이 소망의 담긴 꿈의 理想郷들이 손에 잡힐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다. 바로 이곳

을 잇고 또 이으면서 찾아 가는곳이 이어도이다.

시대별로 이어도는 바뀌었다.

탐라의 삼별초 시대(1273년 전후 탐라 포기)를 기점으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어도가 있었다. 이들은 日本으로 또는 오키나와 琉球王國으로 이어도를 찾아 나섰다. 좀녀들에게 陸地(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러시아, 등지) 또한 이어도이다.

이러한 곳들은 제주 좀녀들에게는 오랜 역사속에서 또 다른 신세계로 떠 오른다.

개척과 도전의 고향 희망봉이 있어서다.

이어서 가자, 이어서 가자. 힘을 내어 이어서 가자.

그곳에 좀녀들이 기다리는 아름다운 樂園이 있다.....혹 이렇게 서툴지만 적어 보았다.

離麗島.移黎島를 찾아 나선 希望歌 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이어도가 “해양 과학 종합기지”가 건설되면서 “망향의 이어도”. “슬픈 이어도”는 아직도 迷路이다. 漂流하고 있다. 難破되기전에 이어도를 구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곁에 있는 이어도 해양 과학 종합 기지 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반발이 예상 되고 있다. 중국 영해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토론 들어 가겠습니다

1page

弘益人間의 확대판을 팩스-몽골리카이라 하고 있다. 즉 인류 통합이라는 모델로 보고 있다.

팩스-몽골리카=세계통합전략=홍익인간의 확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팩스 몽골리카는 문명의 파괴 모델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몽골은 고려와 탐라에 갈등과 분열을 가져다 주었다. 고려의 멸망을 앞 당기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아니면 배경이 되고 있다. 토론자는 이런 사례들이 파괴 모델이 아닌가? 한다.

몽골의 점령과 정복으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탐라는 주요 **상업항구**의 기능도 했으리라고 보인다....라고 한다.

상업항구의 기능이라면 여러 가지 물산과 물류의 보관,관리,운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교역활동이 이뤄질 때 상업 기능이다.

말 이외에 어떤 교역 기능과 활동을 말하고 있는지? 말 이외 다른 物産들은 어떤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주요한 상업 교역(교류) 대상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2p

세계의 모든 지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침략과 정벌 정복으로 잃은것 보다 얻는것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탐라는 서양 정복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빼앗긴 뼈 아픈 상처뿐인데? 과연 영향을 두고 하는지요?

서로 Win-Win 했을 때 영향이라는것이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3_4p

역사적, 군사적 배경이와 문화적 배경은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엔닌은 "입당구법 순례행기"에서 장보고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엔닌은 장보고 선단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일본으로 불교 전파와 무역 활동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절이런 생산적인 무역 활동에 비하면

몽골은 탐라에 문화적 요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몽골인들을 지옥이 군대라고 한다. 그 어느 나라도 군사나 무기및 전술의 정교함,등에서 몽골의 맞수가 되지 못 했다. 정보,심리전, 보급전, **무기의 과학화**,군대의 다국적화 등에서 놀랄 만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탐라와 고려에 구축한 **과학화 되어 있는 무기와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5-6p

징키스칸의 이념과 핵심가치를 말하고 있다.

징키스칸의 확장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된 지역과 집단은 다음 정복기지가 되고 또 군대와 물자의 보급원이 되고 있다. 징키스칸의 대 몽골 제국은 사상과 인종에 구애 받지 않은 열린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탐라는 열린 사회 구조보다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구속되는 사회 현상, 즉 닫힌 구조 폐쇄 현상, 단속 현상으로 갔다고 봅니다.

탐라인들은 무서운 정복자의 명에서 벗어 날수 없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7-8p

大都와 해상 루트에 대하여

몽골의 일본 침공을 위해 **물류기지 역할**은 제주는 큰 역할을 했다. 여기서 어떤 물류를 말 하고 있습니까? 말 이외? 빈

고려와 탐라의 해상루트는 피로 물들여진 치욕의 정복의 해상로이다.

토론을 마치면서

고려, KBS 2016년 8월29 <역사저널> “고려”에서

몽골군이 휩쓸고 간 고려의 전쟁터는 그야 말로 처참 했다.몽골과 전쟁으로 처참하게 짓 밟힌 고려 개경이 함락 위기에 처 하자 고려는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고려사 고종18년 1231년, 기록에 이렇게 남기고 있다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다 잡힌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없는 것 같으며 다리가 있어도 다리를 저는자 같다. 들어라 ,우리가 너희에게 왔다.너희 백성 가운데 투항한 사람은 옛 날 처럼 살것이고 투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일것이다.

-마치 범이 고기를 고르는듯 하였다.그래서 겁방당해 죽은 자가 사방에 낭자 했다, 참혹상 알수 있다. (이규보,동국이상국 전집25권)

다루가지 배치로 몽골은 무리한 요구를 강요 한다.

복속 조건

- 1, 인질을 보낼것,
- 2, 고려 민호를 조사 호적을 보낼것
- 3, 군대를 보내 몽골에 배속 시킬것
- 4, 군량미를 운송할것 (역을 확보하고 교통로 장악)
- 5, 말 2만 필,1백만명의 의복 바치라 수달 피 2만장 협상하여 1천장으로
- 6, 관인의 자녀 남자 아이 1천명, 여자 아이 1천명 인질로 보낼것을 각각 5백명으로 축소 (고려사 고종 19년 1232년)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는 밝은면 보다 어두운 그림자가 더 많았다.

“팍스-몽골리카와 세계통합전략 그리고 弘益人間의 확대판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 하지 않는다. 탐라의 이어도 항로는 몽골에게 유라시아 진출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탐라에서 삼별초의 패망을 가져 왔다. 탐라인들에게 많은 희생을 가져다 주었다. 삼별초 세력들의 패주 항로에서 고려의 망국을 앞 당겼다. 탐라를 떠난 삼별초는 태평양에서 Boat Peoples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희망이 바다가 절망의 바다로 바꾸워 놓았다. 그러나 여기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탐라의 삼별초는 저 먼 오키나와에 유구왕국을 탄생 시켰다.(채바다연구서,오키나와 유구왕국을 찾아서, 中에서)

오늘에 와서 “애월 향몽유적지”는 “삼별초의 유언”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탐라와 몽골 제국의 만남은 맑은 날 보다 비 바람 몰아 치는 폭풍의 바다에서 난파되어 침몰되고 말았다. 이제 그 부활을 꿈꾸고 있다.

발표자의 結言에서 “ 탐라는 태평양에 뜬 몽골의 향기란 이름으로 조랑말과 함께 몽골의 바닷길을 상징하는 인류역사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탐라는 “몽골의 향기”가 아니라 탐라의 눈물 이다. 이런 뼈 아팠던 역사의 교훈들을 他山之石과 反面教師로 삼을 때라고 본다.

이제 탐라 제주와 몽고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태평양 시대 역사의 향기로 부활하여 동반자가 되어야 할것이다. 이어도 항로는 21세기 제주와 몽골이 세계로 뻗어가는 Navigator 가 될것으로 믿고 싶다.

감사 합니다.

세션 2 ■ 발표

“고대해양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

東亞地中海 체계 속 ‘이어도’의 위상과 역할

- 항로를 중심으로

윤 명 철*

1. 들어가는 말과 문제점

동아시아에서 해양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일 간의 독도문제, 한·중 간의 간도(동만주, 두만강)와 이어도(중국 측은 蘇巖礁·丁巖)문제가 있다. 또한 중·일 간의 센카쿠제도(조어도) 문제, 일·러 간의 남쿠릴 4개 섬 분쟁, 중·러 간의 다마스키섬(진보도), 연해주 영유권과 두만강 하구 및 국제 질서 측면에서 동해 해상 무역권과 항로 확보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해양분쟁, 여기에 미국의 개입문제까지 있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는 원유의 추정 매장량이 최대 1000억 배럴이고,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물류의 경유지로서뿐 만 아니라 자원의 보고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¹

한국은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80마일)에 이어도 해역을 1995년부터 해저지형과 조류의 움직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하였다.² 2003년에 이어도에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한 후 운영해왔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양국 배타적경제구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EEZ 중첩 지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3월에는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발언하면서 재차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중국측의 주장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어도가 제주도과 먼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인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톈타오에서 245km, 서산다오에서 287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나가사키현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져 있다. 또한 수중암초이므로 실제로 제주도와는 무관하다는 논리이다.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를 제주도 및 한국과 분리시켜 자국의 방공식별 구역권에 넣음은 물론이고 영토처럼 만들려는 의심을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

* 동국대학교 교수

¹ 윤명철,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 모델」, 『아시아 연구』 제 19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16. ,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그 배경과 해소방안」 『아시아의 지역갈등과 협력』 한국아시아 학회, 2012 아시아 경제공동체포럼, 2012, 11,08

² 이어도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동경 125도 10분 56.81초, 북위 32도 07분 22.63초)를 설치하였다.

앞으로 이어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이어도의 위상과 성격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본 발표문은 해양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이어도의 위상을 또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 발표문을 몇 가지 관점을 갖고 작성되었다.

첫째, 제주도와 이어도 등의 자연 및 역사적인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발표자가 ‘東亞地中海’라고 설정한 동아시아의 역사 공간을 ‘海陸史觀’에 근거해 분석한다.³ 육지적인 관점 또는 연안 도서라는 관점을 갖고 평가할 경우에는 제주도와 이어도의 역사와 역할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성격의 해석에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중 암초에 불과한 이어도를 생활과 역사의 활동 영역에서 완전하게 소외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도와 마라도 및 이어도를 별개의 섬이 아니라 ‘역사 유기체설’과 ‘해양의 메카니즘’, 해양 공간이론을 적용시켜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 즉 地經學的 측면에서 ‘어업권’과 ‘항해권’을 설정하여 분석한 후, 유기적인 생활권으로 설정한다.

셋째, 역사상 남해 및 동중국해상에서 사용된 항로와 연관시켜 역사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국제관계와의 연관성, 중국 지역 및 琉球, 동남아시아 일본열도와의 교류 상황 등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어도는 인식되지 못했거나 생활영역이 아닌 별개의 섬이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 하나의 체제로서 구성되고, 존재해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연구를 위해 해양과 연관된 필자의 해석모델과 다양한 이론 및 지식들을 동원할 예정이며, 문헌학 외에 고고학 민속학 자연과학 등의 학문을 수용해서 해석을 시도하고, 필자의 이론과 연관된 현장 답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을 설정하고 연역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동원하며, 후속 연구자들을 위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필자의 견해와 함께 자료를 제시하고 한다.

2. 제주도와 이어도의 유기적 관계-‘生活圈’ 개념의 적용

제주도는 북위 33°11'27"에서 33°33'50"에 걸쳐 위치하며, 제주해협을 사이에 두고 목포와는 154km, 부산과는 304km 떨어져 있다. 또한 동경 126°08'27"에서 126°58'50"에 걸쳐 위치하는 제주도의 형상은 북동동 - 남서서 방향으로 가로놓은 타원형으로 남북 간의 거리가 31km, 동서 간의 거리가 73km이다. 제주도의 총면적은 1,845.88km²(’98. 12. 31 기준)이다. 그리고 이어도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주도와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거리에 있다.

본 발표문은 제주도 해양은 동아시아중해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따라서 동아시아중해의 틀 속에서 남해안과 동중국해 등과 직접 연결된 제주도의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또

³ 윤명철, 「반도사관의 극복과 해륙사관의 제언」 『고조선 단군학』 25호, 2011.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문화사, 2012 등 참고.

한 母섬의 유기적인 분자로서(面 線 點을 포함) ‘마라도’와 ‘이어도’ 및 주변 해양들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역사공간의 유형화작업은 영토나 영역, 장소의 문제들 뿐 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들의 만남과 접촉방식을 총체적인 연결망, 즉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유기적인 전체의 큰 틀과의 연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역사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육지와 해양, 그리고 매개물인 강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터(場 field&mulji core)’로 파악한다. 따라서 자연과 문명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논리이며 세계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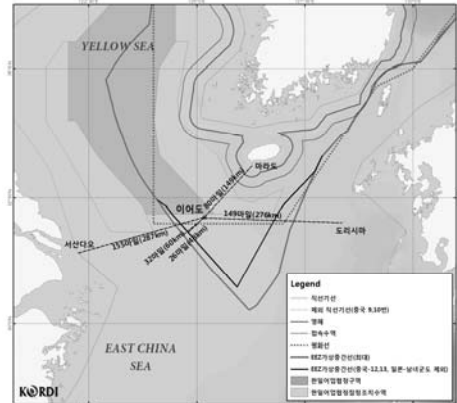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작성

추상적이고 평면적이고 미시적인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한반도의 국가들,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 활동권의 설정과 유형화는 한 시대, 특정국가, 일정한 문화패턴을 가지고 분류해서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자연지리적인 측면 외에도 地政學的(geo-politics) 측면, 地經學的(geo-economic)측면, 그리고 地文化的(geo-culture), 地心學的(geo-mentology)인 측면이 결합돼서 종합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역사활동권 속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의 존재가 분명히 있으므로 국가별, 종족별, 문화별에 따라 구분하고, 동일한 ‘歷史體’라 해도 시대와 역할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東아시아는 중국이 있는 大陸, 그리고 北方으로 연결되는 대륙의 일부와 한반도, 일본열도로 구성되어있다. 길고 수량이 풍부한 강⁴들로 구성되었으며,⁵ 3,400,000평방km에 달하는 바다가 있다. 즉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일본열도와 사이에는 동해와 남해가 있고,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황해라는 內海(inland-sea)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열도의 서부, 그리고 중국의 남부지역(양자강 이남을 통상 남부지역으로 한다.)은 이른바 동중국해를 매개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 연해주 및 북방, 캄차카 등도 동해연안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고 있으며, 타타르해를 통해서 두만강 유역 및 북부지역과 사할린 홋카이도 또한 연결되고 있다. 즉 多國間地中海(multinational-mediterranean-sea)의 형태로서 한민족과 漢族 그리고 일본열도의 교섭은 물론 북방족과의 교섭도 모두 해양을 통해서 교류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東亞地中海(EastAsian- mediterranean-sea)’⁶ 라는 모델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⁷의 역사는 국가와 국가간, 지역과 지역간의 관계라는 一國史的, 一民族史的인 관점과 陸地的

⁴ 만주지역에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60여개에 달한다. 한반도는 18개라고 한다.

⁵ 윤명철, 「고구려 문화형성에 작용한 자연환경의 검토-터이론을 통해서-」, 『한민족 연구』, 4, 2007 등 참고.

⁶ 동아시아중해의 자연환경에 대한 검토는

윤명철 「海洋條件을 통해서 본 古代韓日 關係史의 理解」 『日本學』 14,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995 및 「黃海의 地中海의 性格研究」 『韓中文化交流와 南方海路』 국학자료원, 1997. 기타 논문 참고.

⁷ 일본에서는 1970년대 동아시아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더니 점차 해양과 동해(일본해)에 관심을 갖고 지중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에 와서 새삼 동아시아의 지중해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국가전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치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千田稔 『海の古代史-東アジア地中海考-』, 角川書店, 2002.

인 시각을 벗어나 동아시아 해양 전체라는 巨視的인 관점과, 육지와 해양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러한 해석틀을 적용하면 과거 동아시아의 역사를 대륙과 반도 해양을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체제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해륙(海陸)사관'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⁸

따라서 방법론으로서 해양의 메카니즘과 함께 '역사유기체설'을 도입한다.

역사공간은 자연 지리 기후 등 자연환경 외에 생태계를 포함한 영토나 영역 등 역사가 포함된 총체적인 환경이다.⁹역사공간에서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소통되고, 내부의 인간 즉 주민들 간에도 활발한 교류와 문화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화는 내부의 유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화를 창조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를 존립의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공동의 이익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공동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비로소 자연의 공간에서 역사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歴史的 經驗은 이러한 단위공간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공간의 유형화작업은 영토나 영역, 장소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들의 만남과 접촉방식을 총체적인 연결망, 즉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과 이어도라는 역사공간은 정치 군사 등의 지정학적 가치가 아닌 지경학적 가치에서 살펴본다면 경제권(어업권 포함)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발표자는 이를 '생활권'이라는 용어로 가설을 제기한다.¹⁰ 생활권 속에 울릉도와 독도와의 관계를 다른 것은 '어업권'에 속하게 하고,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서 동해 전체와 연관된 것은 '항해권'이라는 범주 속에 속하게 한다.

'生活圈'이라는 용어는 학문, 특히 실용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전체로서 통일된 개념은 없다. 다만 이 용어는 처음에 지정학 이론 및 독일의 히틀러가 영토 팽창 정책을 쓸 때 활용하였다. 필자는 그동안 공간이론을 전개해오면서 역사공간과 해양활동의 메카니즘을 이해해왔는데, 이를 위해 동물행동학, 현재물리학 생물학 및 도시 공간이론, 그리고 한의학 이론 등을 이용해서 논리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 사용한 '생활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정확하게 이론적 틀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는 서문에서 1996~98년까지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가 '동아시아지중해세계에 있어서의 문화권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보고서로서 이 책을 출판한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동아시아지중해는 남지나해, 동지나해, 일본해, 황해, 발해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남방 해양문화에 관하여 연구를 해 온 國分直一の 예로 들면서 그는 동아시아지중해를 4개의 지중해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오후츠크해, 일본해, 동지나해, 남지나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동아시아지중해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있다.

⁸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문화사, 2012, pp85~104, 윤명철, 「반도사관의 극복제안과 해륙사관의 제언」 『역사활동과 사관의 이해』 (『윤명철 해양논문선집』 제6권)

⁹ 이러한 이론과 실례들은 아래 줄고와 줄고에 인용한 여러 글들을 참조하기 바람다. 줄고, 「동아시아의 해양공간에 관한 재인식과 활용 - 동아시아지중해 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 14집, 동아시아 고대학회, 경인문화사, 2006.12 ; 줄고, 「고구려 문화형성에 작용한 자연환경의 검토 - 터와 多核(field & multi-core)이론」을 통해서, 『한민족연구』 4호, 한민족학회, 2008년 등 참고.

¹⁰ 식물, 동물들은 영역권, 세력권, (총)생활권(biotope), 행동권(territory) 등의 활동범위를 갖고 있는데, 생활권은 동물행동학자들이 설정한 (총)생활권(biotope)의 범주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제주도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육지환경과 해양환경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데, 본 발표문은 주제에 충실하고자 해양환경을 주로 해서 살펴본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제주도 해역은 제주도 주변의 해역들을 가리킨다. 이 해역의 해양환경은 제주도의 위상과 역할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으며, 전근대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해양환경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문환경, 특히 항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교류와 관련해서는 海流.潮流.바람(季節風, 육지간의 거리 등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류이다. 동아시아의 해양은 쿠로시오(黑潮)의 범위대에 속한다. 동중국해의 쿠로시오는 중국연안에서 일본전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北陸外海에서 북태평양을 東方으로 흘러가는 暖流系의 해류이다. 동중국해에는 쿠로시오 外에 九州西岸의 쿠로시오 分派가 있고, 제주도로 북상을 하다 양쪽으로 갈라져 한 흐름이 서해남부해안으로 부딪쳐 서해연안을 타고 올라오면서 문물과 역사의 이동로가 된다. 또 한 갈래는 남해를 지나 大韓 暖流로서 對馬島를 가운데에 둔 東水道와 西水道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 해류에서 갈라져 황해중앙부를 북상하는 것과 동계에는 중국해안을 남하하는 寒流가 있다. 따라서 쿠로시오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양활동과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림 2. 동아시아 해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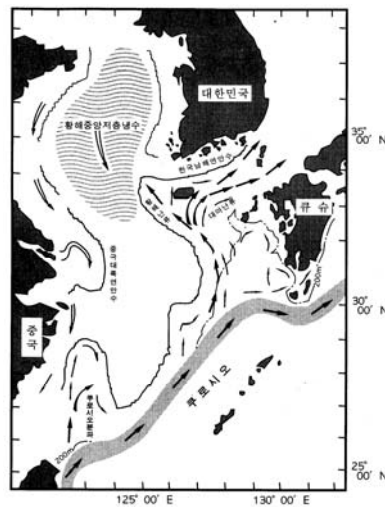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 주변의 주요 해류 및 수괴분포



그림 4. 해류별을 사용한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 경과사진(한국해양연구원 이흥재 작성)

다음은 潮流이다. 조류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고, 제주도가 항해인들에게 유리한 위치로 작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조류의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도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다음의 요소는 바람이다. 해양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季節風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무역풍이라고도 부르는데,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는 冬季에는 북서풍, 풍력 3~5이고, 때때로 偏北에서 偏北東風이 되며 夏季에는 偏南 또는 偏南東風이 많고 풍력은 3~4이다.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 및 9월에는 不定風이 많다. 그러나 때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는 육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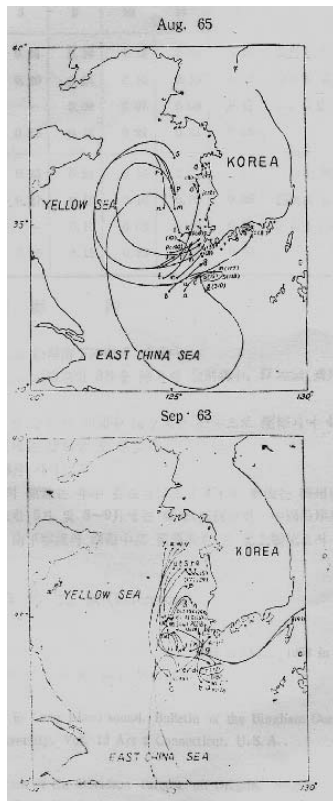


그림 5. 남서해역주변의
해류병 표류도

역 및 제주 해역과 연관되는 해역도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계절풍을 활용할 경우에 제주도를 이용하는 항해가 발달하고, 항로는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해류와 계절풍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은 선사시대부터도 다양한 항로를 만들어가면서 항해와 교류가 가능하였다. 고대 항해는 이러한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이용하였다.¹¹ 백제 고구려 신라 왜 통일신라 발해 등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며 활동했다.

제주도는 또 다른 점에서 항해조건이 좋았다. 제주도는 육지(한반도 등)와 멀리 떨어져있어 독자성을 확보한 섬으로서 '海中地'의 성격을 지녔다. 지리적으로 보아도 북으로는 한반도 남부, 남으로는 오키나와의 여러 섬들, 서로는 중국의 山東省 江蘇省 浙江省 등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동으로는 對馬島 및 五島列島, 日本列島와 해양으로 연결된다. 더구나 데 중간에 있는 한라산은 해발 1995m의 고산이다.

이는 항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의 기준으로 視認距離를 계산하면 시인거리가 약 100마일 정도이다.¹² 이 숫자로 본다면 주변 해역 뿐 만 아니라 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자기위치를

측정하고, 항로를 결정하는데 이상적인 里程標의 역할을 했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은 정상적인 항해뿐만 아니라 항해 도중에 태풍 폭풍 등을 만나 대피해야할 경우에 피항지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원양항해를 할 경우에는 물 식량 등 보급품을 얻는 장소로도 중요하였다. 이러한 해양환경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선사시대부터 활동의 무대가 되어 비록 여러 지역들 간의 교류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나 교역의 측면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는 터의 역할도 하였다.¹³

이러한 제주 해역 속에 이어도라고 불리워졌던 존재가 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제주도 남쪽 11km)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暗礁)로 해저광구 제4광구에 있는 대륙붕의 일부이다. 면적은 50m 등수심선을 기준으로 약 2km²(동서 약 1.4km, 남북 약 1.8km)다. 이어도는 평소 바다의 평균 해수면보다 4.6m 아래에 잠겨 있어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칠 때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파랑도(波

11 윤명철, 「海洋條件을 통해서 본 古代韓日 關係史의 理解」, 『日本學』 14,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995. pp.67~113. 외 필자의 논문들

茂在寅南, 『古代日本の航海術』, 小學館, 1981, pp.96~97 ; 荒竹清光, 「古代 環東シナ海文化圈と對馬海流」, 『東アジアの古代文化』 29號, 大和書房, 1981, p.91 참조.

12 시인거리는 바다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로서, 100 마일은 항해관측자의 눈높이를 7m로 하여 필자가 계산한 결과이다.

13 문화적 측면에서 제주문화권은 행정구역상 편입된 추자군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본도 및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김동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p8.

浪島)’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위산다오(余山島)에서 287km,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도리시마(鳥島)에서 276km 떨어져 있어 직선거리는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다. 이어도는 오래전부터 제주도의 전설 속에 등장했고, 과거 지도 및 사료에서도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 한국은 1990년 이곳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본도나 마라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水表에 있으므로 육지적인 관점으로는 무관한 관계처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본 발표문은 해양의 메카니즘과 함께 ‘역사유기체설’을 적용하여 두 존재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음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해양문화에서 활동의 주체, 즉 생활을 주도적으로 하는 담당 세력들은 海洋人이다.¹⁴ 그들은 바다라는 터에서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써 대체로 어민(fisher men) 항해자(sailer)들을 주력으로 하면서, 상인(merchant) 해적(pirate) 등의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육지인이 아닌 이들은 생활방식, 공간관, 거리감각, 기술력 등, 특히 생필품을 획득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해양인의 관점에서 공간과 역사, 생활양식과 문화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활동하고 이용한 해양공간 또한 육지 또는 농경 문화권에서 인식하고 활용하는 ‘공간관’과 다른 점이 많다.¹⁵

첫 째는 경제권의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경제권은 ‘자원’ ‘항로’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해양공간은 생산양식 생활방식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 등이 육지와는 다른 점이 많다. 제주도는 육지사관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효용가치가 적은 섬이고 이어도는 파도가 칠 때 수면에 드러나는 암초로서 토지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해양문화와 해양의 메카니즘으로 파악하면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위상도 높다. 제주도가 가진 자원적 가치 가운데 하나는 나무가 풍부한 섬이었다는 점이다.¹⁶ 나무는 전근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상품이였다. 주거용, 토기제작 및 야철업에 절대적인 필수품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산업인 조선업, 즉 선박 건조의 자재로서 중요했다. 또 하나의 자원적인 가치는 해양 생물들이다. 어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바다 갯가 섬 등으로서, 일부는 토지를 활용했지만, 기본적으로 바다를 활용하였다. 어민들은 생활수단으로서 연안어업이나 근해어업에 종사했으므로 ‘漁場’으로 표현되는 바다의 面을 중요시했다. 제주도 연안 해역뿐 아니라 이어도 해역은 수산 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따라서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식품획득 및 상업 공간이었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동일한 어민들이 사용한 하나의 어장, 즉 ‘生活圈’이었다. 이 사실은 어민들의 증언

¹⁴ 필자는 농경민 해양민 유목민 대신에 농경인 해양인 유목인이라고 사용해오고 있다. 민(民)이 지닌 신분적이고 계급적인 분류보다는 본질에 의미를 두는 인(人)이 필자의 역사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 2012.9

¹⁵ 윤명철, 「역사해석의 한 관점 이해-공간의 문제」 『한민족학회 18차 학술회의』, 한민족학회, 2010.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 2012. 해양공간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논한 부분이 있다.

¹⁶ 인종 19(1141)년에 溟州道の 監倉使인 李陽實이 왕에게 蔚陵島의 과실과 나뭇잎을 바친 기록이 있다. 고종(高宗) 30(1243)년에도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게 하였는데, 기록하면서 ‘토질은 기름지고, 珍木과 해산물이 많이 산출되고---’, 라고 하였다. 고려는 직목사를 파견하여 조선에 쓰일 나무를 구하였다. 1273년에도 울릉도의 목재를 벌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러시아와 일본은 울릉도 지역의 벌채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1885년에는 일본의 萬里丸에 실어서 밀 반출해간 목재를 압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과 이어도와 연관된 노래, 묘사 등에 나타난다. 즉 주민들의 생활권이었음을 알려준다.

이어도가 어업 범위 내, 즉 생활권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항해권의 확인에서 가능하다. 항구(hub)과 항로(sea-lane)의 상호보완적인 체계가 '항해환경'이다. 즉 두 섬 간의 거리와 항해방식, 항해가능성의 정도 등이다. 이것을 '航海圈'이라고 개념화 시킨다. 따라서 제주도와 이어도 간의 항해거리와 항해방식, 항해가능성의 정도 등을 분석하면 생활권에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한라산은 해발 1995m의 높이이다. 주변에 크고 작은 산들이나 육지가 없는 거의 수평의 상태에서 2000m에 달하는 산이 방추차모양으로 솟아 있으므로 동아시아중해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이렇게 이상적인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또한 자기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넓어진다. 제주도를 이용하여 항해자들이 地文航法을 사용해서 항해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볼 수 있다.

*視認距離

$$K(\text{해리}) = 2.078(\sqrt{H} + \sqrt{h})$$

** H = 목표물의 최고 높이

h = 관측자의 眼高(7m) **계산 방식¹⁷

물론 이 공식은 맑은 날 시정이 좋을 때에 한한다.

계산 결과 視認距離가 약 100마일이나 되었다.¹⁸ 제주도를 둘러싼 하나의 원형선이 나타난다.

약 50,000 평방km의 해역에서는 한라산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약 150km 떨어진 이어도에서는 날씨가 맑아 시정이 좋으면 제주도를 항상 볼 수 있다. 더구나 초보적인 천문항법 등을 숙달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이어도는 풍부한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었다.

3. 제주도 및 이어도의 항해권과 항로

이어도는 제주도의 생활권 역할 외에 또 다른 가치와 유용성이 있었을까? 그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일까?

원양어업이나 무역 또는 주민의 이주 등 다른 공간과 교류를 할 때는 바다라는 전체 面(field)이 아닌 특정한 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로망인 항구(hub)과 항로(sea-lane)가 중요했다. 그 항구 가운데 하나가 남해와 동중국해 한 가운데의 유일한 큰 섬인 제주도 및 주변도서이다. 제주도는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비롯해서 유구와 한국간의 항로 등을 비롯해서 주용한 항로에서 매우

¹⁷ 이 방법은 視認距離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Bart J. Bok-Frances W. Wright 지음, 정인태 역, 『앞의 책』, p.26 및 茂在寅南, 『古代日本の航海術』, 小學館, 1981, p.22 참조.

¹⁸ 눈높이를 7m로 하여 필자가 계산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섬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제주도 항해권의 범주가 매우 넓으며 국제적이었음을 반증한다. 그 제주도의 광대한 항해권의 범주에 들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이어도이다.

동아지중해에서 제주도와 그 부속 존재인 이어도가 관여한 역할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항로상의 거점과 보완 역할이다.

1) 지리적인 위치

제주도는 망망대해의 한 가운데 있으므로 동아지중해의 모든 육지들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될 뿐 만 아니라, 거리도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보아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정북으로는 추자도를 가운데 두고 한반도 남부의 지역과 연결된다. 전라남도의 남부 해안과는 약 50마일 정도이지만, 중간인 연근해에 섬들이 있어 항해거리가 매우 가깝다. 또한 경상도의 남부해안과 이어지면서 거제도 등은 물론이고, 부산 등과 항해하기에 수월하다. 정남의 오끼나와 열도는 약 420마일 정도로서 비교적 먼 거리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쿠로시오와 계절풍의 활용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서쪽은 중국의 山東省 江蘇省 浙江省 등과 마주하고 있다. 직접 바다를 통해서 교섭하는 곳은 강소성의 남쪽 일부지역과 절강성, 복건성의 북부 일부지역이다. 동중국해를 매개로 연결되는 절강성의 舟山群島까지는 약 300마일이다. 이곳 역시 쿠로시오를 타고 직접 제주도를 향하거나 아니면 약간 북상한 다음에 상해만 해역에서 남하하다 동진하는 황해환류를 탄다면 비교적 쉽게 도착할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동쪽은 대마도 및 오도열도, 일본열도와 연결된다. 오도열도까지 최단거리는 약 100마일 정도이고,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사선으로 길게 뻗은 섬들로 이루어진 열도이므로 제주도 해역과 교섭하기에 매우 자연스럽다. 봄철에 남동풍을 활용하면 오도열도에서 제주도까지 항해가 용이하다. 대마도까지 동쪽으로 약 140마일 정도인데, 쿠로시오의 진행방향에 있으므로 서풍 내지 남풍계열의 바람을 이용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항해조건에 따라서는 1일에도 도착이 가능하다.

2) 물표 기능

제주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라산의 존재로 인하여 항해환경에 매우 유리하다. 자기 위치를 관측하고 항해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다. 동아지중해의 황해와 남해는 해안선과 섬에 크고 높은 산들이 있어 항해자들에게는 목표지로서 관측의 대상이 있다. 반면에 제주도를 가운데 둔 동중국해 해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시인거리란 바다에서 피사체를 바라볼 수 있는 최장거리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제주도는 시인거리가 100 마일에 달한다. 대단한 잇점이다.

한편 항해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각 지역 간의 항해거리와 항법이다. 제주

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는 일부 구간을 빼놓고는 대체로 망망대해의 구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연안항해나 근해항해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항해자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가고자하는 방향 즉 침로를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중간에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위치를 확인하고, 침로를 결정할 수 있다. 상륙해서 경유하거나 또는 먼거리에서 주변해역을 통과해서 목적지로 항해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항해자들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중간정거장 기능을 할 만 한 곳이다. 또한 태풍 폭풍 등을 만나 대피해야할 경우에 피항지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원양항해를 할 경우에는 물 식량 등 보급품을 얻는 장소로도 중요하였다.

이어도와 함께 제주도를 활용하여 사용된 항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국제 항로 체계 속의 역할

제주도를 거점으로 삼은 항로에 대해서는 필자도 밝힌바가 있다. 濟州를 據點으로 하는 航路는 출발항구와 도착항구를 이어주는 단선의 항로가 아니라 다양한 항로의 중간에 있는 경유항로이다. 그 가운데 이어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있을 가능성이 높은 항로를 살펴본다.

(1) 동중국해 사단항로

중국 절강지방의 寧波나 그 외항인 舟山群島의 섬들을 출발하여 동중국해를 동북방향으로 사단한 다음에 제주도를 경유하거나 기항한 다음에 일본방면이나 한반도의 각 지역으로 항해하는 항로이다. 절강과 제주도 간의 계절풍, 해류의 흐름 등 자연조건을 이용하면 봄 여름에는 강남지방에서 제주도까지 항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한국과 강남지방을 오고가는 항해자들이 들르고 선박들이 거쳐가는 정거장의 구실을 했다. 절강성이나 복건성 등에서 표류하면 흑산도나 제주도에 표착한다. 『수서』와 『삼국사기』에는 수나라의 전선이 탐모라국에 표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¹⁹ 그 전선은 항해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항로를 따라 도착했을 것이다. 그 후에 신라의 상인들도 사용했다. 절강의 주산군도는 張友信 등 재당(在唐) 신라인들의 선단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으므로 장보고 세력은 제주도를 국제해상활동의 중요거점으로 삼았을 것이란 추정에 확신을 갖게 하였다. 고려와 송간에 이루어진 시신선의 왕복이나 상선들도 이 항로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항로와 연관된 표류현상들이 무수히 많았다.

고창석은 “이처럼 탐라인이 중국에 표착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은 제주도가 대만해협으로부터 구로시오[黑潮]가 북상하는 지점에서 위치하였고, 또 쓰시마 해협에서 서쪽으로 꺾이어 역

¹⁹ 삼국사기에는 耽牟羅國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수서에는 耽牟羅國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가 수서를 잘못 전제하였으며, 수서에 기록된 耽牟羅國은 제주도가 아니라 대만이라는 견해가 있다. (소진철, 『『隋書』의 백제 부용국 耽牟羅國은 어디?』 『博物館紀要』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1999.)

전된 순환해류가 황해로 흐르므로 탐라인들이 탄 배가 북풍을 만났을 때, 이 회류를 타고 중국 쪽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일단 남방으로 흘렀던 것이 다시 북상함에 따라 일본 등지에도 표착했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²⁰ 이는 이 해역이 가진 메카니즘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필자는 1997년도에 뗏목탐험을 시도하면서 이 항로의 사용과 함께 이어도 해역을 통과하였다. 아래 지도는 당시 항해일지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저서 및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그림 6. 동아지중해호 2의 항적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책의 내용을 일부 전제한다.

“ 18시 53분. 바람의 방향 ENE 64도.

현재 위치 N 32도 49분 52초. E 124도 56분 17초. ”

이어

“어제 밤 10시에 125도를 통과하기 직전에 침로를 북으로 수정하였다.

지금 위치는 북위 33도 11분 12초, 동경 125도 25분 50초.

우린 해류의 흐름 상 아주 미묘한 지점에 있었다. 자칫해서 동쪽으로 더 들어가면 북동진해서 남해로 빠져 들어가는 쿠로시오(黑潮)에 빨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 해협으로 빠져 들거나 그도 아니라면 제주도 밑으로 해서 일본의 오도열도로 닿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우린 다행히 항로를 잘 잡아 한국권으로 들어선 것이다.”²¹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어도의 위치는 북위 32도 7분, 동경 125도 10분이다. 거의 근처 해역을 통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해도를 보고 있었고, 해도에 표시된 '소코트 라록(rock)'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 때 흑산도 출신인 김성식 대원은 어부들이 동중국해에 작업을 나갈 때 꼭 이 암초를 말한다고 했었다.

한편 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역으로 제주도에서 강남 쪽으로 항해가 가능하다. 조선 시대 崔溥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가다가 흑산도 근해에서 폭풍을 만나 절강성 寧波에 다다랐던 경험을 『漂海錄』에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남해나 서해남부에서 표류한 선박들은 대부분 절강지방에 도착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탐라에서 송의 영토로 표류한 사실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²² 그 직후인 예종 때에는 珍島에서 제주로 가다 표류하여 宋의 明州로 표착하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²⁰ 고창석, 『한국의 해양문화』, 제주도, 해양수산부, 경인문화사, 2002.

²¹ 윤명철, 『윤박사의 뗏목 탐험』, 참나무, 1988

²² 『고려사』 권 11 숙종 4년 등.

²³ 『고려사』 권 13. 예종 8년

에는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어도 해역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2) 제주도~일본항로



그림 7. 동중국해 사단항로

또 하나의 동중국해 사단항로가 있었다. 절강성 또는 복건성 지방과 일본열도를 잇는 항로이다. 일본에서는 건당선의 북로에 해당된다.²⁴ 비교적 원거리이고, 원양항해를 해야만 하는 해역이 넓다. 때문에 가능하면 제주도는 항법상으로 보아 경유하거나, 항로관측에 필수적인 지역으로 이용했을 것이다. 『隋書』에는 일본을 오고가는 사신들은 남으로 제주도를 보면서 항해하였다고 하였다.²⁵ 일본과 당나라를 오고가는 사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제주도가 한반도 서남해안과 일본열도 사이에 이루어진 항해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려준다.²⁶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 항로는 신라와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일본은 위험하지만 제 2, 제 3의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제 2 항로인 南路는 북로와 출발항구가 똑같았다. 그러나 서쪽으로 나아가다가 오도열도의 북의 值嘉島에 닿은 다음에 남하하여 相子田, 河原浦를 기항하였다가 바다로 나가 동중국해를 횡단하여 절강성의 해안에 닿은 다음에 다시 양자강구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그런데 중간에 濟州道를 중요한 물표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오도열도 북부의 宇久島, 小值賀島에서는 가을날의 쾌청한 날에 한반도의 서남부의 해상에 있는 제주도의 한라산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²⁷ 따라서 항법상으로 보아 경유하거나, 항로관측에 필수적인 지역으로 이용했을 것이다. 필자의 항해경험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면 이어도 해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있다. 필자가 그래서 사용한 건당선의 남로는 아래 항해도이다.

물론 이 항로도 위험해서 표류를 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609년에는 80여명의 백제인을 실은 백제선 한 척이 양자강 유역의 뚝지방에 파견되었다가 전란으로 입경하지 못하고 돌아오다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 구마모두 해안에 도착하였다.²⁸ 이 때도 역시 제주도권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²⁴ 윤명철 「8세기 東아시아의 國際秩序와 海洋力의 상관성」 『8세기 東아시아의 역사상』, 동북아재단, 2011. 이 논문에는 일본 건당선의 해양활동과 사용항로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있다.

²⁵ 『隋書』 권 81 倭國傳

²⁶ 윤명철 「제주도를 거점으로한 고대 동아시아중해의 해양교섭에 관한 연구」 『신해양시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 제주 불교사회문화원, 2000. 제주도의 해양문화적 역할과 주변 각 지역과의 항로가 기술되어 있다.

²⁷ 江坂輝彌 「朝鮮半島南部と西部九州地方の先史原史時代について—交易と文化交流」 『松阪大學紀要』 第4, 1986. P7.

²⁸ 『일본서기』 推古 17년

제 4차 견당사는 661년 越州를 출발하여 귀국하다가 표류를 하여 일부 일본인들이 耽羅島에 닿았다. 주민들은 환대하였고, 귀국할 때에 왕자인 阿波伎가 배와 함께 이들을 데려다 주었다. 재당 신라인들을 포함한 범신라인들은 제주도를 활용하는 이 항해를 하였을 것이다. 장보고가 생존했던 당시에 절강에는 張友信이라는 대항해가가 일본을 오고 갔는데,²⁹ 그는 물론 제주도를 자신의 놀랄만한 항해에 이용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일본에서 관인, 승려, 속인 등이 송나라로 들어가다 표류하여 일부인 265명이 群山 楸子 두 섬에 피했다.³⁰ 이 사실들은 동중국해 사단항로에서 제주도가 가진 위치를 알려준다.



그림 8. 일본 견당사들이 사용한 남로. 제주도를 경유하고 있다.

(3) 제주도-琉球항로

이 항로는 제주도와 현재 오키나와 사이를 오고가는 항로로서 왕복하는 항로에 차이가 있다. 동북상하는 쿠로시오와 봄철에 남서방향으로 부는 계절풍을 활용하면 오키나와에서 제주도로 오는 것은 어려운 편이 아니다. 『고려사』에는 고려가 유구국과 교섭한 사실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해양환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주도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것도 가능하였다. 고려 때에는 顯宗 20년에 탐라사람 21명이 폭풍으로 유구국으로 추정되는 동남쪽 섬에 표착하였다가 탈출하여 동북쪽으로 항해하다가 일본의 那沙府에 닿아 귀환된 일이 있었다. 숙종 때에도 2년에 탐라인 20여명이 풍랑을 만나 鰐國에 표착 하였다가 세 명만이 간신히 탈출하여 송나라로 갔다가 귀환한일이 있었다.³¹ 이 사실은 이 항로의 사용이 가능하였음을 반증한다. 제주도 출신의 張漢喆은 표류를 한 끝에 오키나와 남쪽의 虎山島까지 갔다. 이렇게 남방으로 표류한 다양한 사례들³²은 시기에 따라서는 발달된 항해술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항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고려에 조공을 왔던 유구국의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 혹은 제주도가 유구 지역 사이에 공적인 항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어도가 사용가능성 있다.

(4) 기타 제주도거점 항로

²⁹ 절강 지방에서의 신라인들의 활동 및 이 부분에 대해서는 金文經 「7~10世紀 新羅와 江南의 문화교류」 『중국의 江南社會와 韓中交涉』 집문당 1997년 참고.

³⁰ 『고려사』 권 25. 원종 4년조

³¹ 『고려사』 권 6 현종 20년. 『고려사』 권 11 숙종 2년

³² 제주도 관련 표류 사례들에 대해서는 고창석이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제주도, 경인문화사, 2002.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9. 제주도 거점 동아시아중해 항로도

그 외에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해안 외양에 있으므로 황해와 남해 동해를 이어주는 중계지 기능을 하였다. 또한 각종 표류현상을 볼 때, 표류와 표착의 원인제공자로서는 물론이고, 표류 항로상에서도 이어도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선사시대부터 한반도내의 국가들과 교류하였으며, 역사시대에 오면 일본열도 내의 정치세력들, 중국지역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선사 시대부터 중국의 남쪽 지방 및 오키나와 지역,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과도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³ 그럼으로 다양한 항로들이 제주도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표류들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에서 이어도는 직접 간접으로 연관이 있었다.

5. 맺음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해양문화의 시각이나 해양민(항해자와 어민들 모두를 포함한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도와 추자도, 마라도, 그리고 이어도는 일종의 '생활공동체'이다. 어업을 주업으로 삼는 제주도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산활동의 영역, 즉 생활권이다. 또한 제주도를 활용하는 항해민들에게는 항해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존재로서 이어도는 제주도 항해권에 포함된다. 황해 남해 동중국해를 횡단해서 제주도를 활용하여 교류할 경우에 항해민 집단들은 필요에 따라 이어도 등을 경유하거나 활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어도의 역사적, 생활적 가치와 위상에 대한 이해는 제주도와 연계해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해양영토의 개념이 적용되고, 해양자원이 중요시 되면서 더욱 예민해지고 있다. 특히 이어도와 관계가 깊어지는 중국은 창치투(長春 吉林 圖門)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청진항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동해로 연결되는 물류망뿐만 아니라 해군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 '신실크로드 프로젝트(大唐제국의 부활)'와 '해양강국의 건설'을 선언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제진출을 대규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대중화경제권으로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一帶 전략'은 육상 실크로드 전략이고, '一路 전략'은 해양 실크로드 전략이다. 특히 해양실크로드 전략은 소위 진주목걸이 전략이다. 이른바 해륙적 유라시아 전략이다.³⁴ NDB와 최근에 발족한 AIIB 등은 일대일로

³³ 일본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동남아시아와 교류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는 수단이고, 활용하는 도구임에는 분명하다. 결국 현재 동중국해는 중국의 진출, 일본의 재무장화, 그리고 한민족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제주도와 이어도가 있다.



본고는 발표문의 형식을 띄고 있으므로 일반화된 자료들,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각주 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필자의 연구성과들도 다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추후 논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빠진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한다.

³⁴ 윤명철,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 모델』, 『아시아 연구』 제 19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16.
 윤명철, 『유라시아 실크로드와 우리』, 경상북도, 2016
 윤명철,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2014
 윤명철, 「유라시아 실크로드 문명의 또 다른 해석과 신문명론의 제안」, 『Silk-Roa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2015

“고대해양사에서의 이어도 항로”

김동윤 제주대학교 교수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토 론 문

김동윤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평소 윤명철 선생님의 저작을 접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지중해'라는 설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도 그 용어를 두루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선생님의 발표에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현대소설 전공자여서 이 토론의 책임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일전에 「이어도 담론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2013)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주최측에서 토론자로 부른 것 같습니다. 짧은 식견이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가 논문을 통해 말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어도 전설은 20세기 지식인들에 의해 스토리텔링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문에선 1923년 강봉옥의 글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용호의 『청룡만고』에 이어도 관련 언급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걸 일부에선 19세기 고문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호는 1897년부터 1903년까지 제주 유배생활을 했던 인물이기에, 이 책의 편찬은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원래 제주민요의 사설에 자주 등장하는 여흥구였는데, 지식인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이어도 전설을 만들어냈으며, 그 이후 제주사람들의 이상향으로 스토리텔링 되었고, 그것을 역으로 제주민중들이 받아들이는 특이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상향을 추구하는 섬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섬사람들을 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이데올로기로 작용됨으로써 제주사람들에게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제주사람들의 이상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에 존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중암초 소코트라 록을 이어도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이 문제는 또다른 양상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코트라 록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고 그 이름을 '이어도'로 붙임에 따라 전설의 섬을 실재의 섬으로 확실히 둔갑시켜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 기지 이름은 '이어도'로 전설의 섬은 '이어도'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윤 선생님의 해륙사관에 근거한 동아지중해 설정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아지중해 항로에서 제주도가 해중도(海中島)의 성격으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음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 그림과 함께 제주도 주변의 항로와 해류 등에 대해 밝혀주신 선생님의 발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논의에서 이어도에 관한 부분은 뭔가 어색해 보여서, 이 점에 대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발표문을 통해 밝히고 있는 '제주도 및 이어도의 항해권과 항로'의 문제에서 보면 '지리적인 위치'와 '물표 기능'은 사실 이어도가 아닌 제주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주도 및 이어도를 거점으로 한 항로'에서도 보면 거의 제주도 거점의 항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일본 항로에서는 "이어도 해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유구 항로에서는 "제주도 출신의 장한철은 표류를 한 끝에 오키나와 남쪽의 虎山島까지 갔다"면서 "고려 혹은 제주도가 유구 지역 사이에 공적인 항로가 있었음"을 말하지만 "이어도가 사용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발표에서 동아시아중해 항로 속 제주도의 위상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어도와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어도 항로의 실체는 상당히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어도 항로'라는 말을 써도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장한철의 오키나와 표류를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한철 일행은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한철 『표해록』(1771)에는 이어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제주민들에게는 이어도 담론이 없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어도 항로는 과연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어도는 (...) 과거 지도 및 사료에서도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고 하셨는데, 19세기까지의 지도나 사료 중 어디에 그런 기록이나 표시가 있는지요?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수중암초는 우리에게든 중국에게든 영토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우리의 영해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어도 전설이 20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상향으로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향은 이상향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상향을 억지로 바다 위로 끄집어내어서 자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설에서 말하는 이상향의 공간이라면 평화공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어도 전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중해 권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논의되어야 궁극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중해 공동체를 강조하는 가운데 분쟁을 평화로 이끄는 노력이 이 시대 인문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상 두서없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발표에 우문으로 폐를 끼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도 전설과 실존의 탐구: ‘이어도 고대항로를 찾아서’

강병철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문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

부영주 전 제주일보편집국장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토 론 문

강병철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이어도전설을 포함한 이어도와 관련된 이어도 문화는 제주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이어도 문화는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갈등이 불거지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협상에서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도해역이 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어민들이 옛날부터 이어도해역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로활동이나 항해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협상을 하면서 정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논거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공허한 소리가 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어도 전설과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해역의 연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어도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어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은, 이어도 전설의 형성과정에서 이어도 수중암초가 동기를 부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어도 실재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왔다. 물론 이어도암초가 전설상의 이어도와 같을 수는 없다. 그것은 논리의 여지가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설 속에서 이어도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가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한자로 이어도(離於島), 이여도(離汝島), 이허도(離虛島)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는 기록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하게 쓴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된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용호(李容鎬)의 '청용만고(聽春漫稿)'이다. 이용호(李容鎬)는 1897년 경 제주에 유배되어 7년 간 머물렀는데 '방아 찰는 소리처럼 생각 내키는 대로 엮은 시문'이라는 뜻의 '청용만고(聽春漫稿)'란 시문집에서 '이여도(離汝島)'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아래에 인용한 이용호(李容鎬)의 자서(自序)에서 짧게 '이여도(離汝島)'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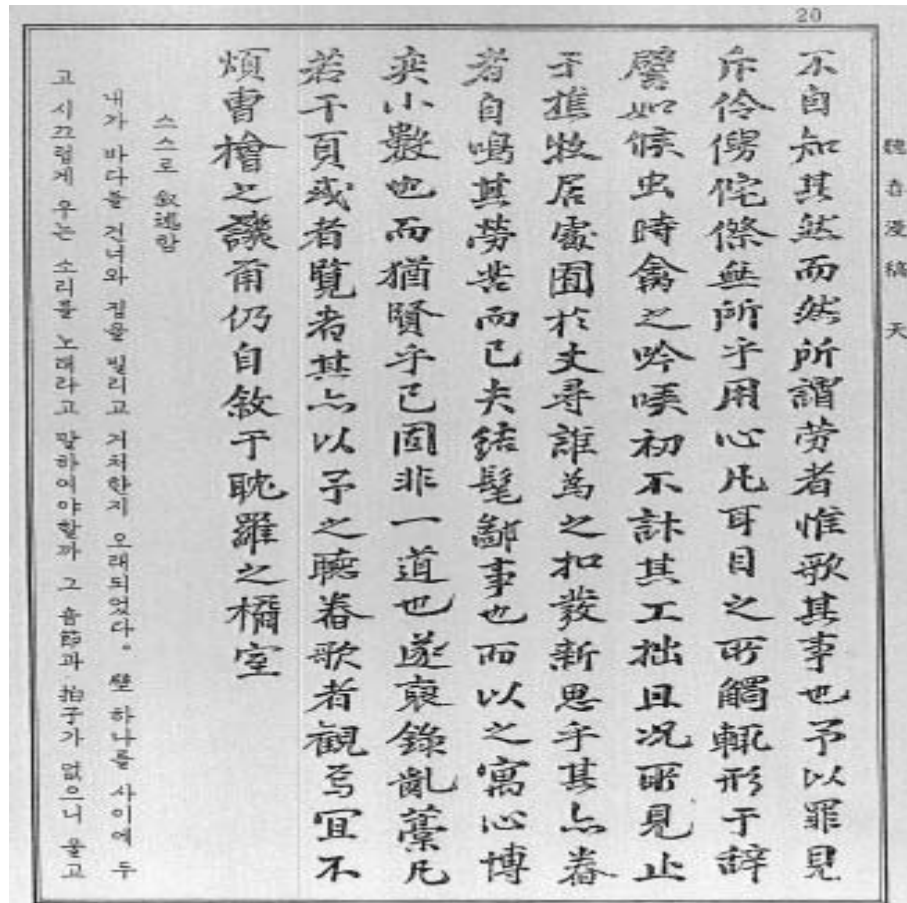
스스로 敍述함

내가 바다를 건너와 집을 빌리고 거처한지 오래되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끄럽게 우는 소리를 노래라고 말하여야할까 그 音節과 拍子가 없으니 울고 있다고 말하여야 할까 원망하고 울분하는 것 같지는 아니하여 館人(客舍를 지키고 賓客을 接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것이 섬 사람의 방아노래라고 대답했다. 濟州道가 옛날에는 오랑캐 元나라의 領土로 牧畜을 바치는 役事가 있어 사람들이 나무속을 차내어 배를 만들어 타고 大海를 橫斷하는데 바다가 넓고 넓어서 가끔 상어와 악어에게 잡아 먹히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열에서 서넛도 못되었다. 그들이 떠날때 家族이 離汝島에서 餞送하며 노래불러 訣別하였다

하나 이른바 離汝島가 지금의 어느곳인가는 잘 모른다. 地方사람들이 그 소리를 傳하여 옛 風俗이 되었다. 대개 賦役이 있으며 功을 勸하여 반드시 노래로 音節을 삼았으니 이것이 서로 절구질하며 방아짚는 소리이다. 내가 자세히 살펴 들으니 그 曲節의 왔다 갔다하는 것이 반드시 離汝島에서 나와 雜스럽게 商音도 羽音도 아니며 즐겁지도 슬프지도 아니하며 天賊의 性質 또는 機智가 입에서 나와도 그러한 까닭을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이른바 수고로운 것은 오직 그 일을 노래하는 것이다.

내가 罪로써 귀양살이하며 零落하고 落望하여 마음을 쓰지 못하고 耳目의 觸感을 말로 나타내는 것을 비유하건대 節侯따라 나오는 벌레나 새가 울고 지저귀는 것같아 처음부터 그 재주가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보는 것이 樵夫 牧童에 그치고 居處하는 것은 한 길의 우리에 갇혀 있으니 누가 나를 위하여 새로운 思想을 두드려 내게 하겠는가 亦是 방아짚는 사람이 스스로 그 勞苦를 올릴 따름이다. 상투를 짜거나 쪽을 찌는 것은 천한 일이나 거기에 마음을 부치고 장기 바둑두는 일은 작은셈이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 하였으니 진실로 한길뿐만은 아니다.

드디어 허트러진 글을 수집한 것이 약간 페이지가 되니 혹 보는 사람은 나의 방아노래 들은 것으로 서 보시고 宣當, 曹檜, 曹風, 檜風(詩經 國風の 이름)의 비난에 번거롭지 말아야 할 것이며 濟州道の 굴 樞室에서 스스로 敘述하노라.



두 번째는 강봉옥(康奉玉)의 “濟州島の 民謡 五十首, 맺돌 가는 여자들의 주고 받는 노래”이다. 강봉옥(康奉玉)은 1923년 2월 1일 발행한『開闢』제32호에 “濟州島の 民謡 五十首, 맺돌 가는 여자들의 주고 받는 노래”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강봉옥(康奉玉)은 이어도를 이허도(離虛島)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글에서 이어도를 묘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離虛島러라 이허도러라.
이허, 이허 離虛島러라.
이허도 가면 나 눈물난다.
이허말은 마라서 가라.
울며가면 남 이나웃나

大路한길 노래로 가라. (노래 부르며 가거라는 말)
갈때보니 榮華로 가도
돌아올땐 花旒이러라. (花旒은 喪輿를 말함)

離虛島는 濟州島 사람의 전설에 있는 섬(島)입니다. 濟州島를 西南으로 風船으로 4, 5일 가면 갈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갔다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섬은 바다 가운데 수평선과 가튼 平土섬이라 하며, 언제든지 雲霧로 둘러끼고 四時長春 봄이라 하며 멀리 세상을 떠난 仙境이라구 濟州島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올시다.

강봉옥(康奉玉)이 이어도를 설명하면서 수평선과 같은 섬이라고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 이어도 암초는 수면 아래 4.6미터에 정봉이 있는 수중암초이다. 따라서 강봉옥이 수면아래에 있다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수중암초를 파도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어도가 수면과 같은 높이라고 주장한 것일 수도 있다. 이어도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섬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어도가 풍선으로 서남쪽으로 4, 5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설명 때문이다. 이런 위치에 대한 설명과 수평선과 같은 섬이라는 환경적인 설명에서 옛날 제주 어민들이 거친 파도 속에서 이어도 암초를 보고나서 이어도라는 전설의 섬을 탄생시켰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풍력선으로 4일 이나 5일 정도 항해하면 닿을 수 있다는 이어도와 원나라 항해했던 제주-원나라항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동국대학교의 윤명철 교수가 발표하는 “동아지중해 속 이어도의 위상—항로를 중심으로”에서 약 150km 떨어진 이어도에서는 날씨가 맑아 시정이 좋으면 제주도를 항상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명철교수의 제주도 및 이어도를 거점으로 한 항로에 대한 논의에서 동중국해 사단항로의 설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절강지방의 寧波나 그 외항인 舟山群島의 섬들을 출발하여 동중국해를 동북방향으로 사단한 다음에 제주도를 경유하거나 기향한 다음에 일본방면이나 한반도로 향하는 항로를 윤명철교수가 1997년도에 뗏목탐험을 시도하면서 이 항로의 사용과 함께 이어도 해

역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9】

—— 濟州島의 民謠 五十首 ——

濟州島의 民謠 五十首

—— 맏돌가는女子들의 주고받는 노래 ——

康 奉 玉

民謠는 그國民性의表現된것이라함은 누구나 다아는바이다. 설하民謠의價値가어찌하다 함은이제 새삼스럽게 말할必要가 없겠습니 다. 다못恨스려운것은 우리民族의 노래는 넘 우나荒野에버리워진것가튼그것이다. 이것은 濟州島의主張女子들이 부르는 노래를시다 露骨的單調로운「리리크」로써 참으로 우리民 族이人情에줄이고 사랑의憧憬에 心情的생 (泉)이넘쳐나는 설음을시다. 赤裸裸인粗野의人間의神聖한美의赤子입니다. 「리듬」은 凡庸의압해구을느고 壯嚴한形式압해 翻覆하 야 무어라는追從업고怯懦업는純潔한人間性, 素朴한哀訴, 喜樂는告白이原始的의旋律로써노

래한「센트멘탈」의美입니다. 濟州島의民謠 에女子들이맏돌(磨石)을갈때에 부르는노래 와潛娥(海女)들이부르는노래와 양대(朝鮮笠)는)역갈때,망진(網巾)을갈때에부르는노래,農夫들이갈때부르는노래,其他歌曲의「메로데 이」로부르는牧童의소리,漁夫의소리들이만혼 中에 이것은女子들이맏돌을갈때에 두사람이 나三四人을勿論하고 한사람이노래를주면 그 다음사람이달해서「코」라스」를부르는것이올 시다. 「세」레」가「가장설음에서 넘쳐난노 래가 가장아릿다운詩歌라」는말과가리 이曲 調는秋蔭에서 嗚咽하는매암(蟬)의哀調입니 다. 古體的語調와方言이만음으로歷史的의스

— 二 冊 第 四 冊 —

【 40 】

흔것은 다만 여러 이른의 확고한 理解를 비는 바
이며 설하 後日에 朝鮮民謡의 若干을 모아 드릴
가 합니다. 사람 사람이 우리 民族의 노래에
갓가이와서 「키스」하시오.

離虛島라 이허도리라
이허, 이허 離虛島리라
이허도가면 나 눈물난다
이허말은 마라서 가라
올며가면 남이나 웃나
大路한길 노래로 가라 (노래 부르며 가가는 말)
갈새 보니 榮華로 가도

돌아올새 花旂이러라 (花旂은 褒興을 말함)

離虛島는 濟州島사람의 傳說에 있는 섬(島)입니다. 濟州島를 西南으로
風船으로 四五日가면 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갖다온 사
은 없습니다. 그 섬은 바다 가운데 水平線과 같은 平土섬이라 하며, 현재
던지 雲霧로 둘러싸고 四時長春분이라 하며 멀리 세상을 떠난 仙境
이라구 濟州島사람들이 憧憬하는 理想郷이랍니다.

元의 아들 元자왕말라, (元은 郡守를 말함)
臣의 아들 臣자왕말라,

元도 臣도 무성지안라,
元臣任도 위 나무다리(橋) (元의나 臣의나 木橋처럼 위대한
원이다)
길은 무상한 길이런고. (우리의 一生은 一木橋로 가는 길이다
는 뜻)

서울서울어대가 서울,
한술밥을 열놈이먹어,
설이사니 서울이러라.
서울時勢나 오르고 나려
여기時勢나 한時勢리라.

서울타운독소리조하,
구비江南소남애안저,
朝鮮國을 기울이더라.

서울물넌(沙)白물내소래
드되어 보니 사르릉한다,
그소래란 반기어 들어
돌아드런 三年이러라.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가『朝鮮』212號 昭和 8年(1933년)에 발표한 “民謡에 나타난 濟州女性”는 이어도와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문헌자료 중의 하나이다.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는 1933년『朝鮮』1월호에 “民謡に現はれた濟州の女”를 발표하였다. 이용호(李容鎬)의 ‘청용만고(聽春漫稿)’와 같이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도 방아 찹는 노래와 이어도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섬으로 중간쯤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 노래에는 방아 찰는 노래에도 뱃노래에도 농가(農歌)에도 그 밖의 노래에도 노래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이어도야 이어도(또는 이허도라고도)하는 후렴이 붙어있다. 어떤 이는 이허도(離虛島)라고 쓴다. 이 섬은 공상 속의 섬이며 제주와 중국과의 중간쯤에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가는 배이건 오는 배이건 이 섬까지만 오면 우선 안심한다는 곳이다. 그래서 떠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이허도까지 무사하라고 비는 것이며 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배가 있다면 최소한 이허도까지만 돌아오면 이 재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을 하고 슬퍼한다.

(59) ···· 女の州濟たれ江現に諸民

を握りて立てば直ぐに歌が出る。民謡に
 방이귀광 시왕덴갓단,
 십여서난 설은말한다.
 지을방이 다지여가도,
 불을노래 수만일너라.
 ⑤ 十王竹といふは細い竹で、こゝではこの十王竹に布片を附けた島の女巫の舞ふ時に、持ち振るものをいふ。
 是等無數の杵歌の音調は、何づれも苦酸にして、夜更けて靜に之を開けば、意味を解せぬ客子も暗涙が流れる。其は既に輿地勝覽に出で、爾後濟州を記する何の書も之を云はざるはない。實に杵歌の調は苦酸である。胸中に鬱結した苦悶をば歌を借りて吐出する概がある。何故に濟州の民謡の調子が斯く苦酸なるか。是には傳説的説明が一つある。濟州の歌には杵歌でも船歌でも農歌でも、其他の歌にも其の歌ひ出しと終りとに 이어도야、이허도(又이허도とも)といふ收歟(弁釋)が附いて居る。人或は離虛島と書く。この島は空想上の島であつて濟州と支那との夾程に在ると信ぜられてゐる。往航にせよ復航にせよ、此島まで来れば先づ安心といふ處である。そこで出船に向つては離虛島まで無事なれと祈るのであるし、又往つて返らぬ船あらば切めて離虛島まで返り著きたらば、この災難は免れたりしならんにと悲しむ。謠に
 江南가건 허념을보라.
 이어도가 半이라한다。」
 江南に行くには 離虛島が 半道ださうな。」
 ⑥ 十王竹は同じ、悲歌が出る。皆つき行けど、猶數多し。

이용호(李容鎬), 강봉옥(康奉玉),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는 모두 제주도민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어도, 이어도, 이허도 등의 명칭으로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은, 이어도 전설을 포함한 이어도문화가 쇠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질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려면 이어도에 대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에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모했던 제주학연구 14권의 '이어도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과정에서 권순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이 설문조사과정에서 이어도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84.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이어도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이어도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이다. 정확하게 이어도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12.5%에 불과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한 양금희 연구원도 이어도에 대한 전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심층면접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어도 전설을 알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노인들이 이어도전설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던 것이다. 노인들 중에서 이어도 전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고 그 사람들의 추천과 소개로 이어도문화에 대한 심층면접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무작위로 나이가 많은 이어도심층면접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어도를 인식하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소개와 추천으로 계속 연구대상을 정하는 비확률적 샘플링을 하는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연구방법으로 이어도문화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어도에 대한 인식이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몽골학회 이사장인 박원길교수는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를 발표하면서 "왜 몽골은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 탐라에 대원율로스의 14대 목마장 중 하나를 건설했고 몽골인을 이주시켜 그것을 유지할 만큼 중시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원길교수는 탐라의 위치나 성격이 크림리아 반도 및 그 안에 위치한 무역도시들과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탐라가 『원사』 「외이전(外夷傳)」에 "고려, 탐라, 일본" 순으로 병렬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말의 사육장이 아닌 해상루트 상의 독립된 나라로서의 가치평가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장(李莊)과 같은 탐라군민상만호가 『고려사』에 기록이 안 나오는 이유도 탐라가 직접적으로 대도(大都)와 교통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면 몽골사에서의 이어도 항로를 많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용호(李容鎬), 강봉옥(康奉玉),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문헌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제주 신화 속의 이어도

문무병 제주신화연구소장

1. 요왕[龍宮]올레

제주 신화나 곳에 그려진 이어도는 바다의 저승[海洋他界] 가는 제주물마루[濟州海峽] 이승의 끝에 있는 바다의 미여지벵뒤, 요왕[龍宮]올레, 바다 저승의 입구이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두 개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현실의 일터로서 작은 섬, 해녀의 '바당밭', 여[嶼]라는 의미와 바다의 저승, 이승의 끝이며 저승이 시작 하는 바다의 미여지벵뒤라는 의미이다. 이승과 저승을 굽 가르는 저승의 입구인 요왕올레, 이어도는 제주바당[濟州海峽]의 남쪽 끝, 강남천자국(중국)과 제주의 중간에 있는 하얀 산호섬, 하나의 여[嶼]인데, 이 작은 섬[嶼]은 썰물 때에는 바다 위에 나타나는 난여[嶼], 밀물에는 수중에 잠기는 든여[嶼]라 한다.

그러나 이어도는 제주 바당(동중국해)의 한반도와 중국대륙 그리고 일본열도에 의해 그려지는 삼각형의 가운데 지점에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서산다오에서 287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져 있다.

우리 바당 끝의 작은 섬 이어도는 하얀 산호섬이며 바당밭[海田]이다. 물속의 바당밭(유왕, 요왕, 용궁)으로 가는 용궁올레, 썰물 때만 신기루처럼 하얗게 나타나는 세상 끝, 현실 세계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난여[嶼], 바다에 드러난 섬이며, 해녀들이 물질 가 바다에 들 때 해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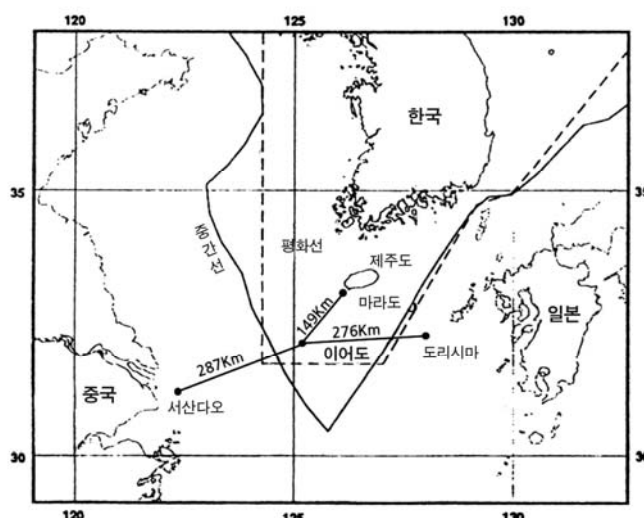


그림 1. 이어도 위치

처럼 들르는 요왕[龍宮 바다밭]가는 길 입구에 있는 용궁올레 같은, 그곳은 이 세상 바당에서 물질하다 죽어 시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죽어서 찾아가는 저승, 해녀들이 죽어서 찾아간다는 또 다른 세상, 해양타계[海洋他界(저승)]이며, 제주 사람들, 특히 해녀나 어부, 선원들이 말하는 이어도이다. 이곳은 물질 갔단 돌아오지 않는 우리 어머님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어도'이다. 사람들은 수중고혼이 되어 바다에서 귀신이 돼버린 영혼들을 "정말 우리 어머님은 거기 강

잘 살았는가?"하며 묵묵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리라 긍정하는 저승의 피안을 이어도라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어도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설이 생겨났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어부, 깊은 바닷바위에 물질 갔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잡녀들이 살아 돌아온 환생담들이 여러 가지 전설을 만들었다. "어떻게 살아와 집디가?" "영정해연, 이어도에 갔단 왔져."하며 이어도의 전설은 완성되었다. 이어도는 현실 세계의 끝에 있는 하얀 산호섬, 썰물에는 보이다가 밀물엔 바다에 잠겨버리는 섬, 바다에서 죽어서 가는 제주 사람들의 꿈의 섬이요 상상의 섬이다. 분명 '이어도'는 고통스럽고 슬픈 삶, 말하기도 싫은 현실, 삶의 터전, 해녀들의 바다 밭, 여[嶼]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여(조수 간만에 따라 드러나는 작은 섬)'는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곳이다. 이어도는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여[嶼]이다.

또 다른 이어도는 가난과 고통의 땅을 현실의 제주도라 한다면, 이어도는 가난의 땅 제주도를 행복과 평화의 땅으로 개간한 미래의 제주, 이상향을 말하기도 한다.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꿈의 낙원이며, 저승의 피안이며, 현실의 해상영토 이어도이며, 지켜가야 할 해양과학기지센타가 있는 해산물과 산호의 보고 현실의 이어도인 '이어도', 썰물에 나타나는 '난여'로서 이어도는 지금 우리가 지켜갈 이어도의 꿈과 현실의 이어도가 숨 쉬고 있는 미래의 이어도이다.

2. 이어도의 지명유래

이어도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름은 1901년 영국 해군이 이어도에 접촉 사고가 있었던 소코트라호 이름을 따서 붙인 Socotra Rock이다. 그 이후 일본은 암초 머리 위에서 하얀 물결을 일으키는 현상을 표현하여 '波浪ス(하로우수)'라 명명했는데 이는 '파랑을 일으키는 처소'라는 뜻이다. 최남선은 1951년에 처음으로 이어도에 '파랑도(波浪島)'라는 이름을 붙였다. 1984년 5월에 <KBS제주방송국>과 <제주대 해양학과> 교수들이 탐사한 후 '파랑도를 찾았다'라는 방송이 나가자 사람들은 이를 따라 파랑도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KBS와 제주대 해양학과의 탐사한 달 전, 즉 1984년 4월에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과 <한국일보사>가 배 두 척을 동원하여 문제의 암초를 찾는 데 성공하고 이를 최초로 '이어도'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민요나 신화에서 '이어도'가 부르던 썰물때만 나타나는 '바당뱃', 저승가는 요왕올레가 실재하는 섬 '이어도'로 처음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파랑도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어도는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갖게 되었으나 중국은 이어도를 "蘇岩(礁)은 Socotra의 음역인 " 소격특랍 蘇格特拉(소격특랍)의 첫 글자 '蘇'와 Rock(拉)의 의역인 '岩'의 결합하여 쑤옌자오(蘇岩礁)라 부르고 있다.



그림 2. 고지도상의 이어도

자료 : 영남대학교박물관(1998), 『韓國의 옛地圖』, 영남대학교출판부, p. 139.

3. '이어도' 항로

'이어도항로'라는 용어는 <이어도연구회>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인데, 원래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가 제주도와 중국을 잇는 동중국해상의 항로를 동중국해를 비스듬히 가로지른다는 뜻에서 '동중국해사단항로'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윤명철 교수의 용어는 의미 부여가 없는 단순한 술어적인 명칭이기에 '**이어도항로**'라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어도항로에 대해서는 제주 민요에 나온다.

강남가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훔다.

라는 민요 사설에서 이어도가 중국을 오가는 바다 길목의 중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설에서의 '강남'은 바로 양자강 중하류(오월지부)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남부지방을 가리킨다. 윤명철 교수는 고대 이래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두 일곱 개의 항로가 방사상으로 펼쳐지고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어도항로는 예나 지금이나 동중국해만이 아니라 동아시아해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길이다. 이어도항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의 통로일 뿐 아니라 돌풍(영등바람)의 발생지이기도 한다. 이러한 항로의 특성이 고대 이래 수많은 제주의 어민들을 수장(水葬)시켰다.

토 론 문

부영주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

오늘의 발제 “몽골사에서의 이어도항로”는 매우 흥미롭다.

그 가운데 조선 태종 때 제작된 세계지도인 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의 제작자 이회(李薈)의 선조가 2대에 걸쳐 耽羅軍民上萬戶를 지냈다는 내용은 놀랍기만 하다.

이 지도가 동양의 지도로서는 華夷觀을 벗어난 우리나라 주체적인 지도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당시대의 최고 수준의 지도라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아프리카 유럽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당시대 우리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나는 이 李薈가 고려 禡王 때 문과 급제한 文臣이었다는 점에서 조선 태종 때 이 지도가 나왔지만 세계와 교역했던 해양왕국 고려인이 남긴 걸작이라고 글을 쓴 바 있다.

하지만 이 지도가 제주도를 왜 크게 부각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발제자의 발표대로 이회의 선조인 이장(李莊)과 그의 아들 이영수(李英秀), 2대에 걸친 탐라군민상만호는 원나라 몽골제국이 임명한 탐라통치자였다면(그들의 이름이 高麗史 등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고려시대 몽골계 제주인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회는 몽골계 제주인의 후손인 것이다.

앞으로 당시 몽골계 제주인에 대한 논의와 그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더 많은 연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몰테우리”에 대해서이다.

발제자는 몰테우리가 13세기 탐라 몽골인들이 카치(哈赤)가운데 말을 다루는 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근거로 ● 현재 몽골어에서 가축무리를 쫓거나 보는 일을 “토오바르”라고 하고, ● 그것에 종사하는 목동을 토오바르치, 토오바르친이라고 부르고, ● “몰리고 있는 가축”이라는 뜻의 “토오바린 말”이 있고, “내모는 길”이라는 뜻으로 “토오바린 잠” 등의 단어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몰테우리는 몽골어인 “mori 타오오리”의 음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랑말”에 대해서는 몽골어로 名馬를 뜻하는 jiruga mori 로 보았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학자는 만주어 계통으로 보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하지만 몰테우리나 조랑말이 몽골어도 만주어도 아닌 순수한 제주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제주에서는 과거 쉼(소)을 관리하는 사람을 쉼테우리, 말(말)을 관리하는 사람을 몰테우리라

고 했다.

테우리는 자기가 관리하는 소나 말의 毛色, 특징, 습성, 낙인 등으로 소유자를 잘 기억하고 목장이나 방목할 장소의 풀이 자라는 시기와 못(물이 있는 곳),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도망친 소나 말이 있는 곳을 잘 찾아내고 보리를 거둬들인 후 곧바로 밭을 갈아엎고, 좁씨를 뿌려 씨앗이 땅에 단단하게 덮여져야 밭아가 잘 되므로 말떼를 밭에 몰아넣어 밭을 밟게 하는 데, 이를 '조밭밟음'이라고 한다.

제주어에서 '테'는 '떼'(群 무리)를 말한다. 그래서 말떼는 말테로 부른다. 제주도의 작은 밭안에서 말테를 잘 몰아가면서 밭을 잘 밟도록 하는 테우리를 말할 때, 테우리가 좋다고 한다.

테우리가 쉼테나 말테를 부리는 방법으로 내는 소리를 테우리 소리라고 하는데 "어이 어려러~,,,,우어러러러러~,,,,"하는 소리를 낸다. 이 소리에서 쉼테우리 말테우리란 말이 나온 게 아닌가 한다.

말테우리는 농경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례로 번췌 테(순번이 정해져서 돌보는 소 무리)나 둔췌 테(정해진 소 무리)를 낮에는 휴한지에서 방목하고 밭 경작이 잘 되게 하려고 밤에는 테를 밭 안으로 몰아넣어 그 분노로 거름이 되게 했는데, 이를 '바렁팻(밭)'이라 했다. 이런 밭을 만들고 돌아보는 일도 테우리가 했다. 그 기능상, 역할상, 그리고 유목과 농경이라는 상이한 문화상으로 볼 때 단순히 말을 다루는 몽골어인 카치로만 볼 수 없다.

조랑말도 마찬가지다. 밭제자는 이 조랑말이 몽골어 jiruga mori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조랑말이 만주어 joran morin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다른 설도 있다.

하지만 이 조랑말 역시 순수한 제주어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에서는 아주 작은 개울로 졸졸 소리내어 흐르는 개천을 "조랑내" 혹은 종롱내(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라고 한다. "조랑"이라는 말은 제주어로 "작은"이라는 뜻으로 썼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흔히 제주도의 말과 관련한 문화의 이해를 12~13세기에 등장한 몽골의 원나라 시대와 연관지어 생각하려 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12~13세기 元나라에서 明, 淸에서 더 올라가서 7세기 초 百濟에서 唐 高祖에게 바친 3척馬도(舊唐書, 扶餘璋 遣使奉獻果下馬), 8세기 新羅에서 唐 玄宗에게 바친 과하마(唐書)도 耽羅가 백제, 신라의 附庸國일 때 바친 말이었다고 한다.

제주도의 말 문화는 몽골의 제주지배 이전부터 있었다.

참가자 프로필



이 름 **고 충 석** (高 忠 錫, Koh Choong-Suk)

직 책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직 책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이메일 kcs2935@jejunu.ac.kr

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전공분야 : 행정이론, 조직론)

□ 교육 경력

- 1979. 11. ~ 1982. 9. 전임강사(최초 임용일 : 1979. 11. 16.)
- 1982. 10. ~ 1987. 3. 조교수
- 1984. 1. ~ 1986. 2.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장
- 1987. 3. ~ 1989. 2.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장
- 1991. 2. ~ 1993. 1.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무과장
- 1987. 4. ~ 1992. 3. 부교수
- 1989. 3. ~ 1991. 3. 제주대학교 평의회 위원
- 1989. 6. ~ 1990. 5. 제주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 1992. 4. ~ 2005. 4. 교 수
- 1996. 3. ~ 1998. 2.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 2005. 5. ~ 2009. 4. 제주대학교 제7대 총장
- 2009. 1. ~ 현 재 (사)이어도연구회 이사장
- 2013. 8. 31. 행정학과 명예퇴임
- 2014. 9. ~ 현 재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경력

□ 주요 사회활동

(현직)

- ♦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 ♦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회장
- ♦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역임)

- ♦ 제주특별자치도 하논분화구 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 ♦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 제2회 UCLG제주세계총회 자문위원회 위원
- ♦ 제주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
-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 ♦ 국제평화재단(제주평화연구원) 이사
-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민간위원
-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 위원장 ◆ 제주교육대학교 총장 추천 자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협의회 위원장 ◆ 제주지역대학발전협의회 의장 ◆ (사)국제자유도시포럼 및 제주국제협의회 이사 ◆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제주평화의 섬' 추진위원회 위원 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자문위원(1999. 7. 1.~2005. 6. 30.) 역임 ◆ (재)제주발전연구원장(2001. 9.~2004. 4.) 역임 ◆ '제주평화의 섬' 추진위원회 위원장(2001. 9.~2004. 4.) 역임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1992. 3.~2001. 9. 20.) 역임 ◆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 2005년 제13차 APEC정상회의 제주유치추진협의회 공동의장 역임 ◆ KBS제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역임 ◆ 제주은행 사외이사 (1999. 2. 27.~2003. 3. 31.) 역임 ◆ 한라일보 비상임 논설위원 역임 ◆ 맑고 푸른 북제주21추진협의회 의장(1999. 6. 4.~2001. 3. 1.) 및 위원(2001. 3. 2.~2005. 1.) 역임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 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 위원(~2005. 10. 12.)
학술 및 저서	□ 학회 활동 및 수상실적 (학회활동) ◆ 제주지역혁신발전연구회 회장 ◆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2005. 3. 1.~2007. 2. 28.) ◆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역임 ◆ 한국행정학회 상임이사 역임 ◆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역임 ◆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장 역임 ◆ 한국정책학회 상임이사 역임 ◆ 시도발전연구원협의회 감사 역임 (수상실적) ◆ 청조근정훈장 수훈(2014. 3. 5.) ◆ 대한민국 근정포장(2008. 2.21) ◆ 서울행정학회 학술상 수상(2000. 2. 18) □ 학술논문 및 저서 (학술논문) ◆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과 대응 필요성(2013), Strategy 21(31),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계층구조의 성과 및 과제(2012), 한국정책연구(12권, 2호),

경인행정학회

-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 모색(2004), 자치행정, (사)지방행정연구소
 - ♦ 제주지역 계층구조 논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2003), 제주도의회 의회보, 제주도의회
 - ♦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서설적 논의(2000), 제주도연구(17), 제주학회
 - ♦ Governance적 민·관 협력체제 구축방안(1999), 제주발전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정책 분석모형(1999), 법과 정책(5), 한국법정책학회
 - ♦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논리로서의 RORP모델(199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 ♦ 국제화시대 지방정부의 자치능력 제고방안 연구(1996), 지방행정연구(10권, 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기초연구(1995), 제주도연구(12), 제주학회
 - ♦ 지방자치 4년의 평가와 발전방향(1995), 법과 정책(창간호), 한국법정책학회
- 外 다수.

(저 서)

- ♦ 이어도 깊이읽기(2016)
- ♦ 제주,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2013)
- ♦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2013)
- ♦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2010) 공저
- ♦ 도서지역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기초연구(1995)
- ♦ 유고슬라비아노동자 자치관리제도와 조직권력 - 인간적 사회주의를 위한 하나의 시도(1991) 外 다수.



이 름 **강기춘**
 직 책 **원장**
 소 속 **제주발전연구원**
 이메일 **kanggc@jejunu.ac.kr**

학력

- 高麗大學校 經濟學科 (經濟學士)
- 美國 Iowa(아이오와) 州立大 (經濟學 博士)

경력

- 하나銀行
- 東洋證券 責任研究員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1993년 - 현재)
-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 Iow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韓國銀行 客員研究員
- 濟州大學校 大學院 副院長
- 監査院 감사연구원 팀長
-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소장
- 現) 제주발전연구원 원장(2014년 12월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이름 김 은 석

직책 교 수

소속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이메일 eskim@jejunu.ac.kr

학력

- 1981. 2. 한양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 1983. 2.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석사
- 1995. 8.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경력

- 서양사학회 간사
- 아세아방송국시청자 위원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위원
-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
- 제주발전연구원 자문교수
- KBS 제주방송총국 객원해설위원
- 1992. 8. 1 - 1994. 7. 31 제주교육대학교 학보사주간
- 1994. 8. 1 - 1996. 7. 31 제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 학보사주간
- 2000. 8. 1 - 2001. 8. 31 제주교육대학교 전자계산소장, 기획실장
- 2001. 9. 1 - 2003. 7. 31 제주교육대학교 학술정보원장
- 2003. 8. 1 - 현재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수원장

학술
및
저서

- 김은석, 클리오와 함께하는 제주(심산, 2003)
- 김은석,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우물이있는집, 2004)



이 름 **박원길** (Park Won-Kil, 朴元吉)

직 책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

직 책 국립 울란바야타르대학(Улаанбаатарын Их Сургууль, Ulaanbaatar State University) 명예교수

이메일

경력	몽골고대사 및 북방민족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2000년 3월 몽골정부로부터 몽골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포장을 받았으며, 2010년 5월 몽골과학아카데미·국립 울란바야타르 대학교로부터 명예교수를 수여받았다. 대만 정치대학 변정연구소,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수학했으며 중앙대, 고려대, 한국몽골학회 회장, 한국몽골학회 초대이사장 등을 거쳐 현재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이며 국립 울란바야타르대학(Улаанбаатарын Их Сургууль, Ulaanbaatar State University) 명예교수로 있다.
학술 및 저서	주요저서로는 『몽골고대사연구』(1994),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1996), 『몽골비사역주(I)』(1997), 『북방민족의 샤머니즘과 제사습속』(1998),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2001),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2001), 『유라시아 대륙에 피어났던 야망의 바람 —칭기스칸의 꿈과 길』(2003),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2006), 『유네스코의 공예품 인증정책과 주요각국의 인증제도 연구』(2006), 『배반의 땅, 서약의 호수 —21세기 한국에 몽골은 무엇인가』(2008), 『조선과 몽골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난 몽골인식』(2010), 『한국·몽골 교류사연구』(2013), 『한국·중국·일본과 몽골—한·중·일의 초원을 향한 꿈』(2013),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2014) 등이 있고 또 『몽골현장답사기』(1996) 등 17권의 공저, 『몽골석인상의 연구』(1994) 등 2권의 번역서와 함께 60여 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기타	위의 저서 중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은 2002년 종교분야 우수학술도서(문화관광부), 『조선과 몽골』은 2010년 역사분야 우수학술도서(문화체육관광부)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그의 연구업적(저서 11권, 공저 10권, 번역서 2권, 연구논문 53편)이 국제몽골학술지인 Bulletin - The IMAS News Information on Mongol Studies -, No.2(47), 2012, Ulaanbaatar, pp.109-112에 소개되어 있다.



이 름 채 바 다

직 책 고대항해탐험연구소장

직 책 하멜 리서치 코리아대표

이메일 chaibada@hanmail.net

학력	•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졸, 이학사
경력	• 고대 해양 탐험연구소장 • 바다 박물관 관장(전) • 한국 하멜 기념사업회장 • 하멜 리서치코리아 대표
학술 및 저서	시집·수필집 및 연구논문 *파도가 바람인들 어찌겠느냐(시집) 1994년 *일본은 우리다(시집) 2001년 *그래도 그대는 행복하다(시집) 2002년 *아무도 부르지 않는 노래 2003년(시집: 일본어 판) 외 *일출봉에 해뜨거든(수필집) 1987년 *성산포에서 띄우는 편지(산문집) 2004년 외 연구논문: *한국 해양문화의 시원과 때배의 역사적 고찰(해사문제연구소) *하멜표류기의 재조명과 표착지에 관한 연구(제주문화원) *탐라국 탄생신화에 나타난 벽랑국 찾아서(완도군·강진군 학술회의) *17세기 네델란드 국가경쟁력(대한민국해군지.이어도연구회) *일류로 가는 길 네델란드 국민성과 청년들의 도전과 개척정신외
기타	탐험항해 때배 국립해양 박물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기증 1차고대 한.일뱃길 탐험 천년1호 서귀포시 기증 1996년 4월 처지연 전시 2차고대 한.일뱃길 탐험 천년2호 제주 해녀박물관기증1997년 4월 해녀박물관 전시 3차고대 한.일뱃길탐험 왕인박사호 영암군 기증,2001년 4월 왕인공원 전시 4차: 제주도 연안일주 2003.10.남북평화호 국립해양박물관 기증 전시 5차고대탐라-벽랑국뱃길 탐험 (2006.6.)전남강진군기증 (마량항 전시) 6차700년 삼별초 뱃길 탐험(2011.10.24.-30.)제주-추자도-진도)

주요 강의 기관

해양수산부
해병대 백령도여단
인간개발연구원
사법연수원 제41기
한국해양과학연구원,
제주대학교, 한국외국어대대학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어도 연구회
여수시청, 제주도교육청
장성군성공아카데미
진안군청, 마이학당
LG그룹(노경관계론)
서울 동작구청, 마포구청(공무원), 서귀포 시 공직자 등

포상:(해양역사문화탐험부문)

장보고 대상(2008.5.)
대통령상 수상(2007.5).
해양수산부장관 표창(2000.5.).
신지식인 선정(2009.11).
한류문화산업포럼 대상(2010.12)
대한민국 도전, 최고 기록 인증(2016,7,8),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



이 름 허 남 춘

직 책 교수

소 속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이메일 hnc423@jejunu.ac.kr

학력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대학교 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대학교 대학원박사(1991년)

경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장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역임

 학술
 및
 저서

주요논문

△ 논문

-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 고대 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탐라문화』 제38호, 탐라문화연구소, 2011.
- 「제주도 신화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 『영주서복문화』, 2010.
- 「조선후기 예학과 실학, 그리고 詩樂 -문체반정과 악풍반정-」, 『반교어문학회』 제28집, 반교어문학회, 2010.
- 「韓日古代神話의 山岳崇拜와 三山信仰」, 『일본근대학연구』제2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 「해성가도솔가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민심의 조화」, 『어문연구』 제56집, 어문연구학회, 2008.
-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제3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7.
- 「가사를 통해 본 중국과 일본」, 『어문연구』 제52집, 어문연구학회, 2006.
- 「청산별곡의 당대성과 현재성」, 『한국언어문화』 제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 「한림별곡과 조선조 경기체가의 향방」, 『한국시가 연구』 제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 「三女神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탐라문화』 제2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일본신화와 신어가를 통해 본 한일고대시가」, 『비교민속학』 제28집, 비교민속학회, 2005.
- 「제주 전통음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탐라문화』 제2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수로전승의 희락과 제의 비교고찰」, 『동아인문학』 제4집, 동아인문학회, 2003.
- 「중세 예악과 근대 수용」,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 「설화·전·소설에 수용된 제주민중항쟁과 이재수」,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연구회, 2002.
-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과제」, 『백록어문』 제17집, 백록어문학회, 2001.
- 「무욕의 세계에서 우러나는 향기-백이운 시조」,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

- 「음사로 정의된 기층신앙의 실태연구」, 『인문과학』 제31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제21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고전시가와 예악사상-조선 전기 고려 가요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7집, 한국시가학회, 2000.
- 「송강시조의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제10집, 반교어문학회, 1999.
- 「황조가 신고찰」,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 「한국 역대왕조의 사전연구」,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9.
- 「고려가요와 예악사상」, 『한국시가의 사상적모색』,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 「古代詩歌의 呪術性과 祭儀性」, 『모산학보』 제10집, 모산학회, 1998.
- 「조선후기 시가의 전개와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제8집, 반교어문연구회, 1997.
- 「중세시가의 전개와 미의식」, 『성교어문연구』 제32집, 성균관대국문과, 1997.
- 「鄉歌와 歌樂」, 『모산학보』 제9집, 모산학회, 1997.
- 「한국문학의 근대성론 반성」, 『도남학보』 제16집, 도남학회, 1997.
- 「동동의 송도성과 서정성 연구-자연관과 내용소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1996.
- 「<動動>의 송도성과 서정성 연구(2)」, 『도남학보』 제15집, 도남학회, 1996.
- 「<동동>의 송도성과 서정성 연구(1)」, 『도남학보』 제14집, 도남학회, 1994.
- 「이효석 소설의 자연관」, 『백록어문』 제9집, 백록어문학회, 1992.
- 「사람과 시가의 자연관과 서정」, 『국문학보』 제11집, 제주대국어국문학과, 1992.
- 「高麗俗謠의 頌禱性 研究」, 성균관대학원, 1991.
- 「쌍화점의 우물옹과 샛기광대 考」, 『반교어문』 제2집, 반교어문학회, 1990.

△ 저 서

- 『할망 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 이야기』(공저, 2015)
-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양창보 심방 본풀이』(공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인류문화의 판타지, 신화』(공저), 서경문화사, 2010.
-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서, 2010.
- 『이용옥 심방 <본풀이>』(공저), 보고서, 2009.
- 『(웨니깃또와 함께하는) 제주음식이야기』, 제주넷, 2008.
- 『제주의 음식문화』(공저),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고전읽기』(공저), 보고서, 2007.
-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1999.

기타 도남 국문학상(2010) 수상



이 름 윤 명 철

직 책 동국대학교 교수

소 속 다르마 칼리지

이메일 ymc0407@yahoo.co.kr

학력	동국대학교 사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전 한민족학회 회장 전 고구려연구회 부회장 전 고조선 단군학회 회장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심의위원장 현 한국 해양정책학회 부회장 적도해양포럼 부회장
학술 및 저서	2003. 『고구려 해양사 연구』(사계절) 2003. 『한국 해양사』(학연) 2004. 『역사전쟁』(안그래픽스) 2012. 2 윤명철 해양논문 선집 8권 (학연) 2012. 9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 2013.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로』 (참글세상) 2015. 『우리민족 다시본다』 (상생출판사) 등 45여권
기타	2003. 포상내역 : 대한민국 근정포장 2008. 제7회 지구문학 문학상(시분과) 2008. 제 1회 김찬삼 여행상 수상 2010. 동아일보 창립90주년 '2020년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 2015. 문화부장관 표창



이 름 박 찬 식

직 책 센터장

소 속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이메일

학력

- 1985. 2. 25 제주대학교 사학과 졸업
- 1987. 8. 17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 1996. 8. 13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한국사 전공)

경력

- (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 (전)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 국무총리소속 제주4·3사건위원회 전문위원
- 제주4·3연구소장
-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연구관
- 제주도 문화체육과 전문위원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운영위원
-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4·3유해발굴단 연구책임자

학술
및
저서

- 제주역사에 관련된 여러 논문과 단행본 발표. 1901년 제주민란(이재수란)과 제주4·3사건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음.

< 단행본 >

-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2007)
- 『4·3과 제주역사』 (2008)
- 『4·3의 진실』 (2010)
- 『1901년 제주민란 연구』 (2013)



이 름 조 성 윤

직 책 교수

소 속 제주대학교

이메일 chomin@jejunu.ac.kr

학력

- 1977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1983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 1992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경력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일본 창가대학교 방문교수
- 일본 관서학원대학 방문교수
- 미국 UCLA Visiting Researcher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장 역임
-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역임
-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역임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역임

학술
및
저서

- 남양군도
-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
- 추자도바당(공저)
-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연구(공저)
- 제주도민간신앙의 구조와변용(공저)
- 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공저)
- 2005 무통문명 (공역)
-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공저)
- 2008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편저)
- 2008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 보고서 I (편저)
- 2012 추자도바당 (공저)
- 2013 제주와 오키나와 (공저)
- 2013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
- 2013 숙명전환의 선물 (공저)

<주요논문>

- 제주도 지역개발정책과 주민운동의 전망 (2003)
-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 (2005)
- 지역 주민 운동의 논리와 근대화 이데올로기 (2005)
- 고난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2008)
- 일본 속의 한국종교 (2008)

- 제국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와 연구동향(2010)
-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2011)
- 전쟁의 기억과 재현 : 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 자료관을 중심으로(2011)
- 제주도의 평화 정책과 해군기지 문제(2011)
- 알뜨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2012)
- 왜색종교 : 1964년의 한국 창가학회와 국가 폭력(2013)
-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2013)
- 일본의 소코트라 락(Socotra Rock) 인공섬 조성 계획(2014)



이 름 강 병 철

직 책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이어도연구회 연구이사

소 속 이어도연구회

이메일 qshuba@naver.com

학력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박사
경력	- 제주인뉴스 대표이사 -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및 연구이사 -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학술 및 저서	논문 및 간행물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 방안 : 다층적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 『평화학연구』 제13권 제4호(2012년 12월) pp.245-270 1738-2580 KCI. “Jeodo, Okinotorishima and International Politics” 『평화학연구』 제14권 제2호(2013년) 99p ~ 118p 1738-2580 KCI. “일본 아베정권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대응” 『평화학연구』 제16권 제5호(2015년) 217p ~ 240p 1738-2580 KCI.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신아세아』 제23권 제2호(2016년) 83p ~ 111p 1226-0096 KCI. 단행본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한국학술정보, 2012) 공저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한국학술정보, 2013)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공역 『제노사이드예방학』(온누리, 2008) 『정치적 이슬람의 미래』(온누리, 2009) 『평화연구의 이해: 방법과 쟁점』(대왕사, 2016)
기타	‘이어도로 간 어머니’ 2014년 제11회 문학세계문학상 대상 수상

	이 름 문 무 병 (文 武 秉) 직 책 이사장 소 속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메일 m5056@hanmail.net
학력	• 1979년 제주대학교 졸업 • 1984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1993년 제주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경력	현 (사) 제주신화연구소 소장 (사)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사) 민족미학연구소 이사
학술 및 저서	• 《제주도 무속신화》(1999) • 《제주도 큰굿 자료집》(2001) • 《제주의 민속극》(2003) •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2004) • 《제주도의 굿춤》(2005) •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8) • 《제주도 본향당신앙과 본풀이》(2008) • 《제주큰굿》(2010) • 《설문대할망 손가락》(2013) • 《11월엔 그냥 젖고 싶어》(2013)



이 름 부 영 주

직 책 이사

소 속 제주언론인클럽

이메일 boo4960@empas.com

학력	-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1979)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고려시대사 전공(1987~1988 언론인 연수, 지도교수 박용운)
경력	- 제주일보사 정치, 경제, 사회부 부장 - 청와대 상주 출입기자 - 제주일보사 편집국장, 논설실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 - 국회기자단 지방간사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위원 - 제주한라대학 평의원회 의장 - 제주도 경제살리기 대책위원회 위원 -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중친선협회 이사 - 민족통일제주특별자치도협회 수석부회장 -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자문위원 - 제주언론인클럽 이사 - 춘추클럽 회장 (주)원영관광-서귀포요트투어, 위미항마리나(관광유람선업) 대표이사 (주)마린이노텍(해양환경용역, 제주대씨그랜트사업단MOU, 산학협력) 대표이사
학술	국내 언론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이어도 연구 5, 2014)



이름 **양 경 희**
 직책 연구위원
 소속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메일 happywaa@hanmail.net

학력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경력	• 제주인뉴스 편집국장 역임 • 이어도 문학회 회장 역임 •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트센터 연구원
학술 및 저서	• "남중국해 갈등과 '항행의 자유' 작전,"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4호(10월) 2015. • "남중국해 갈등과 수중드론(underwater drone)의 배치,"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12호(06월) 2016. • "남·북한 민주화 비교정치와 민주화 요인들," 제주대 『사회과학연구』 제7권 제2호, 2016.
기타	• 이어도 문화를 찾아서 영상제작 •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 영상제작

■ 스텝



이 름 권 순 철
직 책 연구실장
소 속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메일 ieodojeju@naver.com



이 름 이 우 석
직 책 사무처장
소 속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메일 wseok06@naver.com



이 름 최 미 경
직 책 대외협력실장
소 속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메일 banmane@hanmail.net

631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6 진흥빌딩 4층(연동)

Phone 064-712-8110

Fax 064-712-8122

www.ieodo.kr

